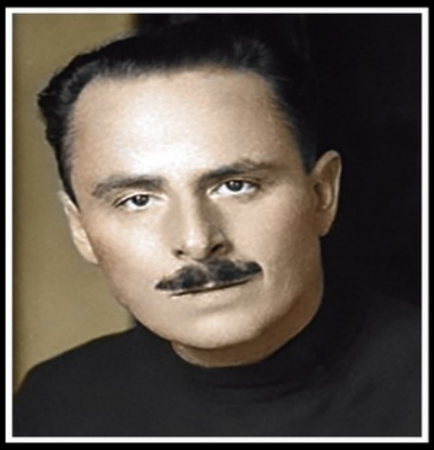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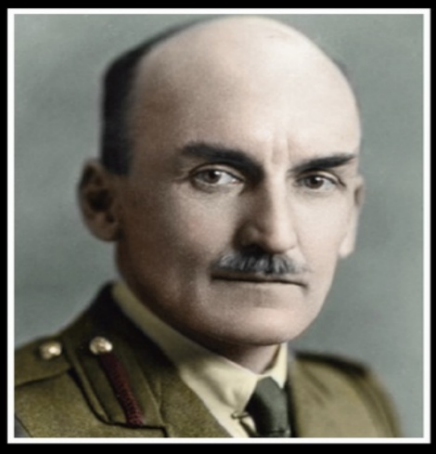
FASCIST VOICES

ESSAYS FROM THE 'FASCIST QUARTERLY' 1936-1940

Volume One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파시스트의 목소리

1936-1940년 '파시스트 계간지'에 실린 에세이

1권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파시스트의 목소리

1936-1940년 '파시스트 계간지'에 실린 에세이

1권

저작권 © 2019 Sanctuary Press Ltd. 모든 권리

보유. 본 책의 어떠한 부분도 발행인의 서면 허가 없이는 복사, 녹음, 정보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 수단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할 수 없습니다.

생츄어리 프레스 유한회사
셀턴 스트리트 71-75
코벤트 가든
런던 WC2H 9JQ

www.sanctuarypress.com 이메
일: info@sanctuarypress.com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파시스트의 목소리 - 1권

이 판에는 다음과 같은 에세이가 실려 있습니다.

존 베켓
제임스 드레넌 노라 엘
람 프랑코 장군
소장 J. F. C. 풀러 요
제프 괴벨스 J. K. 헤이든 맥스 헝거 조리
안 젠크스 윌리엄 조이
스 로버트 레이 박
사 프랜시스 맥시
보이 오스월드 모
슬리 경 에즈라 파운
드 비드쿤 퀴슬링 알
프레드 로젠버그 아서
리드 앤 실리그-토만 클로
드 서튼 알렉산
더 레이븐 톰슨 A. 유수
프 알리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목차

파시스트의 목소리

오스월드 모슬리 경의 파시즘 철학, 앤 젤리그-토만의 독일과 여성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요제프 괴벨스의 세계 철학과 외교 정치 알프레드 로

젠버그의 파시즘, 여성과 민주주의 노라 엘랍의 파시즘,

여성과 민주주의 조리안 젠크스의 귀중한 농가 조앤 모건의 히틀러의 베르히테스가덴,

새로운 독일의 목가적 비드쿤 퀴슬링의 북유럽 세계 연방 클로드 서튼

의 파시즘에 대한 해석 JFC 풀러 소장의 스

페인 전쟁 에즈라 파운드의 프랑코 장군의 경제적 정통론에 대한 연설 A. 레이븐 톰슨의 불황

의 원인 에즈라 파운드의 배신당한 혁명 프랜시스 맥이보이의 마르크

스주의, 쇠퇴의 교리 JK 헤이든의 적은 자유주의 윌리엄 조이스의

토마스 칼라일 - 국가 사회주의자 아서 리드의 윌리엄 모리스 - 국가 사회

주의자 "회의주의자"의 유대인 신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A. Yusuf Ali의 무슬림 세계와 팔레스타인 A. Raven Thomson의

파시즘과 변증법 Francis Mcevoy의 토지 박탈 A. Raven

Thomson의 기업 경제학 James Drennan의 관점에서 본 나치

운동 John Beckett의 쇠퇴하는 사회 민주주의 JFC Fuller 소

장의 파시즘과 전쟁 Oswald Mosley의 파시즘에서 전진 Robert Ley 박사

의 기쁨을 통한 힘 Max Hunger의 독일 겨울 구호 활동

_____

_____

_____

_____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오스월드 모슬리 경의 파시즘 철학

1933년 3월 22일 수요일에 영어연합에서 오스월드 모슬리 경이 한 강의입니다.

영형 반대자들은 파시즘에 역사적 배경이나 철학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오후 저는 파시즘이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변적 사고의 가장 뛰어난 업적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일간지 칼럼에서 우리의 활동에 철학이 크게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시즘 철학"에 대해 강연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깡패가 철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마음을 비추는 그 거대한 거울들이 항상 정확한 반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믿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우리 진보의 더욱 감동적인 순간들에 대해서만 읽었지만, 깊이 있는 사고와 건설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시스트 철학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파시스트 신앙은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존재해 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성장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철학적 배경은 어느 정도 정립될 수 있으며, 이는 역사상 다른 어떤 위대한 정치적 신앙의 상응하는 발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강대국에서 파시스트 운동 자체가 경이로운 속도로 권력을 향해 전진했듯이, 파시스트 신앙과 철학은 영구적인 개념, 즉 삶에 대한 태도로서 기존 신앙의 철학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자유주의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볼테르와 루소 같은 사람들의 저작과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영국 정치가들의 손에 자유주의 신조가 최종적으로 형성된 사이에는 매우 긴 간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거대한 정치 운동과 심리적 격변은 매우 느리게나마 명확한 사고 체계와 행동 체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파시스트의 경우, 10년 만에 구체적인 구체화된 형태를 갖추리라 기대하기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시스트 철학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시대의 사상에 완전히 새로운 기여를 하는 동시에, 그 기원과 역사적 기반이 과거의 정립된 사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저는 대부분의 행동 철학이 이전 시대의 문화적 갈등의 종합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사상, 추상적 사색의 시대에 두 위대한 문화가 날카롭게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다음 행동의 시대에는 대개 그 두 날카로운 대립 사이의 실천적 종합이 나타나 행동에 대한 실천적 신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개념은 어느 정도 슈펭글러적 접근 방식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독일 철학자가 다른 누구보다 파시스트 사상의 광범위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매우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광범위한 배경이며, 파시스트적 제안이 나오는 세계사의 거대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타고난 비관주의 때문에 그 주제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저는 겸허하게 말씀드리건대, 그 비관주의는 현대 과학과 기계 발전에 대한 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슈펭글러의 안경을 통해 보면, 당신은 반드시 ******ebook converter DEMO Watermarks*******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극단적인 비관주의는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처음으로 부여한 요인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 철학자가 이 엄청난 새로운 요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계 사상에 대한 그의 엄청난 공헌을 결코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 상반되는 문화들이 결합되어 다음 행동의 시대를 이끌어 그 시대의 철학적 아이(행동으로 표현되는)를 낳는다는 제 제안은 슈펭글러 사상에서 어느 정도 파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올바르게 추론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파시스트 사례에서 그 명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세기에 주요 지적 투쟁이 니체 사상이 2천 년 동안의 기독교 문명에 미친 엄청난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향은 매우 느리게만 실현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함의는 오늘날에야 비로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상에서 어디를 보든 인간의 정신과 정신을 지배하기 위한 그 거대한 투쟁의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수 세기 동안 인간의 사고를 광범위하게 지배해 온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처음으로 그 종교와 사고가 사실상 도전을 받았고, 적어도 그 순간의 기반은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맹렬한 에너지와 비범한 천재성을 가지고 비난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저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장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 교리와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종합될 수 있다고 믿는지 보여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두 신조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들이 어디에서 누적되고 어디에서 유사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니체는 기독교 사상의 모든 토대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노예와 약자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삶으로부터 도피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꿈같은 내세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 지상에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활력도, 인간성도 없는 그들에게 구원은 나약함과 굴복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는 이 종교를 "인류를 속박하고 약화시킨 종교"라는 훌륭한 표현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대신 그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초인이란 어려움과 위험에 맞서 물질적인 것과 환경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며, 이 지상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이루고, 승리하고,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고뿐 아니라 삶의 모든 기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사고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이 논쟁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두 신조 중 하나는 승리하고 다른 하나는 쇠퇴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교리들을 어떤 식으로든 결합하거나 종합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그렇듯이, 겉보기에 매우 달라 보이는 신조들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어떤 종합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파시스트 교리에서 실제로 두 신조의 위대한 특징들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에서, 기독교적 개념에서 직접 차용된 파시즘에서 타인을 위한, 세상을 위한, 그리고 조국을 위한 봉사, 자기 부정, 자기 희생이라는 엄청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에 융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시스트가 가장 위대한 대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봉사, 자기 항복이라는 파시즘의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충동입니다. 반면에 니체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남성성, 인류의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현존하는 것에 대한 도전, 항복의 교리에 대한 절대적인 포기,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맞서 싸우는 확고한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파시즘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인 강인함과 자립의 교리가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제 생각에는—이 두 위대한 교리의 결합이 오늘날 파시즘의 실천적 신조에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 전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인 삶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하여 일상생활의 가장 세세한 것들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양보하며 파시스트적 개념에서 국가는 절대적인 자유를 양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적 삶에서 인간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행동해야 하며, 모든 행동에서 국가의 복지에 부합해야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국가로부터 개인으로서 살아가고 발전할 완전한 자유를 대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에서, 그리고 저는 이것이 사적 실천이 공적 항의와 완전히 일치하는 유일한 공적 도덕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에서 모든 도덕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그것이 국가에 봉사할 개인의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파괴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국가에 해를 끼치는가? 국가의 다른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는가? 국가에 봉사할 나의 능력을 해치는가?"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다면,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가장 큰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제도나 종교 기관이 개인에게 부여한 자유보다 훨씬 더 큰 자유입니다.

그러한 도덕적 시험에 가장 가까운 접근 방식은 아마도 그리스 문명의 접근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리스 문명의 국가 개념은 오늘날 파시스트의 국가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태도, 그러한 철학적 배경은 파시스트에게 매우 명확한 사회적 행동 규칙을 강요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사물의 질서에 대한 세부적인 도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들이 세부 사항으로 축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이 세부 사항에 대해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인 시간 이후에 술을 마셔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만 해도 벌금을 물 수 있는 제도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더 크거나 작은 공인으로서 공적인 자격으로 국가 전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완전히 면책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자신에게 아주 사소한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면, 법의 모든 힘이 그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의 공적인 자격으로 그는 국가의 전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국가의 기둥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파시스트의 원칙은 사적 자유와 공적 봉사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적 삶과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일정한 규율과 제한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공적 삶에서만 그렇습니다. 저는 사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경제적 혼돈 속에서 질서를 확립하는 공적 조직을 통해서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적 조직은 파시즘에 내재된 권위와 규율의 방식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철학적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 파시스트에게는 그의 철학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일정한 규율, 제가 말하는 질서 있는 운동성,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신뢰, 권위에 대한 믿음을 부여해 주었는데, 이는 다른 운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근본 교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경제 조직에 대한 개념에서 자유주의와 크게 다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하지만 철학에서는 볼테르-루소의 삶의 태도, 특히 후자의 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회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실제로 공통된 기원이 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파시즘 사이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루소가 큰 실수를 했거나, 혹은 크게 오해받았습니다. 루소는 평등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인간의 평등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아닙니다."라고 답합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소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가 의미한 것은 기회의 평등이었고, 루소의 주된 공격은 그가 살았던 타락한 체제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당연히 겨냥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이 게으르고 타락한 귀족들이"(당시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랬듯이) "국민의 삶을 옥죄는 특권을 스스로 주장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통치할 자격이 있는 자가 통치하게 하세요. 할아버지가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증명했다는 이유로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특권에 대한 반항이자, 재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위대한 국가의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확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대 제자들은 이 교리를 인간의 평등,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는 명백하고 명백한 부조리입니다. 한 사람은 마음과 체격 면에서 다른 사람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흔히 말하듯이 도덕적 또는 정신적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도덕적, 정신적으로 대기업의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경영자보다 훨씬 우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적합한가입니다. 그가 수행해야 할 적절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 능숙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에 능숙합니다.

물론 우리는 파시즘에서 사회 계급 개념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전의 우연성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특정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주의라는 개념 전체에 도전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도전합니다.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정부나 다른 분야의 기술자가 일 년에 단 5분이라도 그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제가 기계 공장에 들어가 엔지니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에게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하면, 그는 제가 건방지다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문제에 대해 전혀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 카운터에 맥주잔을 내려놓고 투표소로 가서 향후 4년 동안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국가 통치처럼 복잡한 주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가 루소의 저작에 부여한 해석이며, 이러한 관념은 명백히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민주주의 체제의 철학적 기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해 판단할 평등하다는 기본 관념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받아들이고 우리 것으로 만들며, 특권적 유전이라는 관념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증명하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으며, 우리의 모든 교육 시스템도 그렇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먼저 그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파의 특권에 도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천부적인 재능으로 평등하다는 좌파의 터무니없는 교리에 도전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진실일지도 모르지만,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러한 교리는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보나파르트주의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카이사르주의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파시즘이 카이사르주의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 세계는 고대 세계의 형태와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대 조직은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어떤 개인에게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현대 카이사르주의는 모든 현대적 사물과 마찬가지로 집단적입니다. 개인의 의지와 재능은 파시스트 운동을 구성하는 규율 있는 수천 명의 의지와 능력으로 대체됩니다. 모든 검은셔츠단원은 집단 카이사르주의의 개별 세포입니다. 자발적인 규율에 복종하고 국가 생존이라는 열정적인 이상에 고무된 헌신적인 대중의 조직된 의지는 개인 초인의 권력 의지와 더 높은 질서를 대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의 무기로 무장한 이 집단 카이사르주의는 고대 카이사르주의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반동, 다른 한편으로는 무정부 상태와 역사적으로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카이사르주의는 한편으로는 스파르타쿠스주의에, 다른 한편으로는 귀족 원로원에 맞섰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2천 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건설적 성취의 기회가 부족했으며, 이 교리의 이전 증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간단히 이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영향으로 세계가 완전한 붕괴와 혼돈에 빠질 때마다 슈펭글러가 "위대한 사실주의자"라고 부른 사람들이 그 결과 발생한 혼돈에서 세계를 구해내고 인류에게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안정 속에서 수 세기 동안 평화와 질서를 제공했습니다. 현대 파시스트 운동은 "정치와 철학의 근본적인 사실들을 인식함으로써" 그러한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겉보기에 상충되는 두 교리가 결합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파와 좌파에서 무언가를 차용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다른 신앙에서 무언가를 차용하고,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낡은 의회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러한 방향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파시즘은 우파와 좌파에서 무언가를 차용하고, 거기에 현대에 맞는 새로운 사실들을 더합니다.

파시즘의 이 새로운 종합은 우리의 당면 상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면서, 권위, 질서, 규율에 뒷받침되는 안정성이라는 위대한 원칙을, 우파의 속성이었던 이 원칙과 결합하고, 이를 좌파에서 가져온 진보, 역동적 변화의 원칙과 결합합니다. 보수주의(이 나라에서 보수주의로 알려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자면)는 안정성을 믿고 질서에 대한 믿음으로 안정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보수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항상 실패해 온 것은 안정성은 오직 진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변화에 대한 고집스러운 저항은 보수주의가 가장 두려워하는 혁명적 상황을 촉발합니다. 반면 좌파는 루소 콤플렉스 때문에, 진보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실행 도구를 채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질서 있는 변화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정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좌파가 바라는 진보는 권위, 규율, 충성이라는 진보의 실행적 수단을 채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우파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파시스트적 신앙과 파시스트 조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카이사르주의나 보나파르트주의입니다. 더 이상 순전히 개인적인 지도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체계는 한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카이사르주의가 되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조직적이고 규율 있는 대중의 지도력. 이들은 국가와 세계 재건이라는 이념에 의해 자발적 규율로 결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념은 대중에게 열정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파시스트 운동이 카이사르주의가 이전에 이루어냈던 목적을 달성하고, 스파르타쿠스와 반동 사이의 갈등이 불러일으킨 혼돈 속에서 질서를 되찾고, 몇 년 또는 몇 세기 동안 세상에 큰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부패를 안고 있으며,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을 진정으로 성취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례에 대한 답은, 유일하게 타당한 사례인, 이전에는 항상 현대 과학이라는 요소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요소가 생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부 체제에 새로운 효율성을 도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집권했을 때 모두가 그 효율성에 동의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몇 년 동안이라도 행정권과 일을 처리하는 효율성을 정부에 부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갇혀 있던 과학의 천재성을 해방시켜 현대 세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국가 구조와 경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저는 우리 모두 현대 과학과 산업의 힘을 이용하여 세계를 건전하게 조직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과 질병, 그리고 세상의 고통이라는 최악의 요소들을 단번에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부 형태를 가질 수 있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한 체제를 위한 도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의 모습이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현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그 임무를 완수하고, 정치·철학 체계를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기반에서 영구적이고 기술적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나면, 오늘날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와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빈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주요 문제들은 가능한 한,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해 해방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영원한 반복 속에서 이러한 현상 중 일부는 과거에도 세상에서 목격되었고 인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위대한 행정 운동이 현대 과학과 발명이 부여한 과업을 완수할 기회를 얻은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결국 필연적으로 심화될 세계적 위기의 순간에, 필연적으로 출현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의 운동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매우 영광스러웠던 과거에서 유래한 특정한 전통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시대만이 인류에게 부여했던 도구들로 무장하여 오늘날의 현실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새롭고 놀라운 도구와 사건의 일치를 통해 이 시대의 문제들은 극복될 수 있고, 점진적인 안정 속에서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불멸의, 영원히 반복되는 카이사르 운동의 마지막 거대한 세계적 물결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도움과 현대 정신의 영감으로 이 물결은 인류를 더 먼 해안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마침내, 영속적인 성취를 향한 고결한 노력 속에서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한 발현인 '카이사리즘'은 세계적 사명을 완수하고, 시대의 투쟁 속에서 희생을 치르며,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빈곤과 질병의 수많은 공포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과학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세상을 누리는 인류는 여전히 새롭고 더 고귀한 인류 질서라는 목적을 위해 변화된 파시스트 운동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상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투쟁과 위험의 날들과 어둠과 노동의 밤에도 세상이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철의 도구를 만들어낸 이들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Anne Seelig-Thomann의 독일 과 그녀의 여성들

디지난번 영국 방문 당시, 많은 영국 여성들이 제3제국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만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우리 독일 여성들이 신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내와 어머니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모든 혁명 뒤에는 새로운 헌법적 형태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를 낳은 봉기 덕분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사회생활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발견합니다. 독일의 새로운 체제인 "국가사회주의"는 전쟁의 여파로 많은 어머니와 아이들의 삶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 수백만 가정에 환영받는 변화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임무는 그들을 돕고, "아이를 전혀 낳지 않는 게 낫다"는 비참한 생각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총통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기 이전부터 이기심이 옛 체제의 근간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독일 여성들에게 가족이 국가의 필수 단위이며, 가족 안에서 어머니는 건강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국가 생존의 살아있는 상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모성과 여성성은 예전의 의미와 영광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서비스

1934년, 국가사회주의 여성 연맹(National Socialist League of Women)은 본격적인 협동 활동을 위해 처음으로 결성되어 제국 어머니 서비스(Reich Service for Mothers)를 설립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연맹의 모든 지부에서 운영되며,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젊은 여성과 노인 여성 모두에게 열려 있는 특별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34년 이후 최소 60만 명의 독일 여성이 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가사 관리, 요리, 재봉, 그리고 위생 및 간호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독일인은 식민지가 없는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원자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 교육 과정에서 여성들은 겉보기에 쓸모없는 것들을 유용한 목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웁니다. 각 교육 과정은 일반적으로 10일 저녁, 총 2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수강료는 시골에서는 2~3마르크, 도시에서는 3~5마르크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노동전선 여성부와 국가사회주의복지기구가 추가 금액을 지원합니다. 결혼으로 인해 곧 퇴직하는 여성에게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는 이러한 어머니 학교가 수백 개 상설 운영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보호자, 사회복지 교사, 청소년 지도자 등 다양한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모든 독일 여성은 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모든 여성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는 남성과 나란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일하는 여성

제3제국에서 전문직 여성과 근로 여성의 지위만큼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이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반대자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는 순간부터 모든 근로 여성은 강제로 직업에서 쫓겨나고 남성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이는 진실에 더 어긋나는 것입니다. 산업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모든 활동적인 여성은 노동전선 내에 조직되어 있으며, 이전에는 고용되지 않았지만 신제국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숄츠-클링크 부인의 전국적 지도 아래 여성 연맹에 자발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두 조직에는 주부, 교사, 간호사, 조산사, 예술가, 여의사, 그리고 대학 졸업 자격을 가진 모든 여성이 포함됩니다.

가족을 국가의 필수 단위로 보존하는 것이 국가사회주의의 이상인 만큼, 노동전선이 여성의 체격에 맞지 않는 공장 노동에서 여성을 쫓아내고 실업 남성으로 대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 더 적합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독일 여성들은 여전히 의류 관련 모든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교사, 간호사, 가정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 의사, 건축가, 무대와 영화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뛰어난 프로듀서로서도 활동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요한 당 회의와 올림픽에서 모든 사진 촬영을 담당한 유명한 레니 리펜슈탈이 있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여성들이 일반 산업 분야에도 종사하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이 노동전선의 특별 부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독일 여성들이 가정으로 내몰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 서비스

가정부나 주부처럼 집안일에 특별히 제한되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여성 연맹은 가사 노동이 하층 계급의 직업이라는 보편적 편견을 극복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소녀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엄격한 가사 노동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우리 소녀들은 18세가 되어 자신의 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성 노동 서비스(Women's Labour Service)에 자원하여 가사 노동을 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회 질서에서 여성의 몫은 "여성의 권리"라는 옛 슬로건에 기반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여성이 공동체 전체, 즉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봉사와 관련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여성의 영향력은 국가의 내밀한 사회생활 형성에 항상 가장 컸기에, 우리는 봉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보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더 관심을 둡니다.

독일 소녀

이미 학교에서 독일 소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동종 단체인 BDM(Bund Deutscher Mädel)에 가입했습니다. 히틀러 청소년 운동에 가맹된 BDM은 훈련 과정에서, 특히 국가 청소년 지도자 발두르 폰 쉬라흐로부터 건전한 인생 철학(Weltanschauung)을 심어주는 데 있어 상세한 지침을 받습니다.

전국에 여학생을 교육하는 단일 목적을 위해 40개의 학교가 건립되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원칙을 가르치십시오.

미래의 어머니, 의사, 경제학자, 교사, 변호사 등 모든 독일 여성은 자신의 재능을 국가적 목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확고한 사회적 배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독일 여성 단체인 BDM의 동지애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신체 단련이며, 따라서 모든 여성은 연령에 따라 체계적인 신체 발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응급 처치와 간호 교육도 제공됩니다. 여성들이 농사일을 돕는 BDM 캠프와 아동 간호사, 영양사, 기타 가사 노동 훈련을 위한 가정 학교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1년 동안 "Land Year Service(토지 연도 봉사)"에 참여하여 토지에서 유용한 일을 하도록 권장됩니다. 이는 청년들을 위한 "Labour Service(노동 서비스)"와 유사한 조직으로, 일반적인 직업과 경쟁하지 않는 유용한 일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여성들을 대체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Land Year Service"에서 일하는 여학생들이 집안일을 맡게 되면서 자녀들이 지역 "유치원"에서 돌봄을 받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어머니들에게 이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 여성들로 구성된 이 거대한 조직의 통계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진정한 가치는 바로 만들어진 도덕적 기준에 있습니다. BDM과 "Land Year Service"에 참여하는 독일 여성들은 풍부한 경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청년 남성들과 똑같은 정치 및 경제 문제에 대한 강의와 교육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감을 키웁니다. 여성 노동 수용소를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눈빛으로 반짝이는 강인하고 체격 좋은 소녀들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제 영국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젊은 세대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깨끗하고 힘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냈어?" 대답은 오직 하나, "아돌프 히틀러의 정신"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요제프 괴벨스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매우 합리적인 현대 정치 개념은, 그것이 인정되든 아니든, 모든 미래 발전의 중심 요인인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자형

사회적 곤경은 단순한 문제 이상이다. 만약 그 이상이 아니었다면, 마르크스주의자의 말이 옳았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가 국제적인 것은 국제적 혼합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는 자신의 생존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이 없었다는 비극적인 깨달음 때문이다. 부르주아적 이기심과 유대인의 경쟁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함께 작용하여 민중에게서 삶의 빛과 숨결을 앗아가는 것, 즉 계급 전쟁을 낳았다.

사회적 곤경은 안보에 대한 열정을 낳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깊은 곳에는 고향, 땅,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잠들어 있으며, 이는 좋은 형태와 나쁜 형태로 모두 표현되며, 언제나 가장 고귀한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하에서도 프롤레타리아트는 조국에 대한 증오를 느끼지 않고, 오직 부르주아적 조국 왜곡, 즉 체제에 대해서만 증오를 느낍니다. 이 체제는 민족주의와 자본주의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제주의에 맞선 투쟁은 결코 말로만 이길 수 없습니다. 사회적 곤경은 오직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민족에 대한 몫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사고할 것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문제는 국제 도시 프롤레타리아트가 토양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의식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토양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과만 연관되어 있다고 느낀다. 볼셰비즘에 맞서는 유일한 효과적인 투쟁은 자본주의를 제거하는 것이다.

중산층이 자본주의와 동일시했다는 것은 정치적 본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데, 결국 자본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자본의 부도덕한 분배다. 경제학에서의 자본주의는 정치에서의 민주주의와 같다. 즉, 국가 내 권력의 부도덕한 분배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두 요소, 즉 그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으며, 새로운 국가 사회 조직의 숙적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사회 문제를 무시하는 데 만족했고, 위선적인 자선 행위로 가능한 한 그 문제를 회피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비극이다. 자선 행위는 부르주아적 비겁함, 감상주의, 가학성, 그리고 공포의 집합체다. 사회적 '개선'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사회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더 나아가 그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주의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사회 문제는 감상주의나 '자선'과는 전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국가적 필연성의 문제입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문제를 전 세계적인 정치적 중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사상에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감상주의와 '자선'은 그 자체로는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 필연성만이 광신주의와 맹렬한 신앙의 충동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는 미래의 정치 발전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의무와 과제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국가의 진정한 사회적 개념이 나타나며 이는 다음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마르크스주의-프롤레타리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결합된 것입니다. 동포들의 피억압 계층이 자연권을, 다소 자발적인 선물이 아닌 권리로서, 획득하기를 바랄 때, 저는 사회적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부르주아적 공포나 감상주의에서가 아니라 국가적 필요성과 사회 정의의 실현에서 이러한 권리를 요구할 때, 저는 사회적 의미에서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적 인간은 부르주아로서 사고하고, 마르크스주의적 인간은 프롤레타리아로서 사고하며, 사회적 인간은 공동의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국민국가라는 관점에서 국민적으로 사고합니다. 그에게 국민적 사고와 사회적 사고는 하나이며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즉, 국가에 대한 사랑, 국가의 미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알프레드 로젠버그의 세계 철학과 외교 정치

나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은 정치와 사회생활이 궁극적으로 철학적 동기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부르주아 도덕률의 개념, 법의 개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은 항상 인간의 내적 태도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결정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게 되는 것은 한 국가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혁명적 사건이 발생할 때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의 갈등이 여러 민족과 국가의 정치적 사건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든, 단순히 피상적인 사고를 넘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점점 더 깊이 각인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엄청난 격변 이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세계대전의 큰 투쟁에 영향을 받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결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겉보기에 갑작스러운 운명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중요했던 질문과는 매우 다른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1914년 이전 세계는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 지평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목격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가들 사이에서도 이전의 비슷한 경우처럼 일상적인 타협의 정치 체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강대국 간의 갈등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며, 세계 경제 구조의 붕괴가 불가피하고 몇 달 안에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수학적 정밀성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지적 낙관론자들은 "세계의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대를 걸었고, 각국이 세계 경제의 광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요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전쟁.

그러나 자연 그 자체처럼, 사람과 민족의 삶은 논리의 직선 경로가 아니라, 흥분된 감정과 격렬한 열정이라는 구불구불한 샛길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헤아릴 수 없는 요소들이 마침내 세계적 재앙의 족쇄를 풀어주었습니다. 1914년은 거대한 군사적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해였을 뿐만 아니라, 8월의 그 운명적인 날들에 구세계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들과 지도자들이 그러한 끔찍한 갈등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당시의 사회적 갈등,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경향, 그리고 국가들의 사회 구조가 더 이상 명확하게 정의된 평화 정책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층민의 혼란스러운 대중 운동, 정치적 열정, 경제적 이익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종종 정치가들의 손에서 조종 장치가 빠져나가고 세계는 충돌로 치닫다가 영웅적인 힘을 소모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에야 수년이 지나서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정신의 회복,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은 군사적, 정치적 패배로 인해 가장 먼저 나타난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적어도 당분간은 전쟁 승리의 결실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국가들보다 훨씬 더 명백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헝가리, 독일, 터키에서 일어난, 그 성격이 매우 다른 모든 발효 과정은 세계 정치를 똑똑하게 관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언급된 구질서의 붕괴와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는 노력의 명백한 징후로 보입니다. 이는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리적 인식 때문이라기보다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향해 "이런 상황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내적 결의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떤 논쟁으로도 제거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새로운 정신 태도는, 어느 방향으로든, 경우에 따라 건설과 파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계 정치에서 현재 우리의 움직임의 중심은 이러한 다양한 정신적 에너지의 병치와 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잘 정의된 사고방식에서 "세계철학"(Weltanschauung)이라고도 불리는 것을 봅니다.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이 단어는 무엇보다도 그 말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 즉 영혼, 정신, 그리고 성격이 외부 사물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태도는 수백만 명의 목소리라면 삶의 방식, 국가 구조, 인종이나 민족의 의무와 특권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이러한 태도가 삶의 모든 다양한 영역에 스며든다면, 우리는 통일되고 단일한 국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 민족, 그리고 "세계철학"이 하나로 융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매우 드문 경우에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인종적 특성과 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으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흐름에 영향을 받는데, 이는 종종 국가 내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세계 철학"은 종교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종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계 철학"은 종교나 과학에 의해 특별한 성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 국가의 예술적 또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한 민족의 "세계 철학"이 진정으로 깊고 진실하다면, 모든 것을 포괄하고 특징지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은 가장 다양한 정신적, 영적 기질을 포괄할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세계 철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국가와 저명인사의 태도는 종교적, 과학적, 문화적 성격을 모두 아우르며, 지난 수세기 동안 각국의 지적 삶뿐만 아니라 정치적 삶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저는 세계 철학이 역사의 위대한 시대 동안 대외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가 세계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심도 있는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연구자뿐 아니라 모든 정치가에게 중요한 주제여야 하지만 말입니다.

정치적 결정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예를 인용해도 될까요?
"세계 철학"은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역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기독교가 지중해에서 유럽 대륙으로 퍼져 나가고 게르만족이 잇따라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로마 가톨릭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리우스파, 즉 아리우스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리우스파는 기독교 창시자의 인격과 신적 지위에 대한 개념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념과 실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오직 하나의 중요한 부족만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했는데, 그 이유는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지도자의 편의를 위해, 즉 프랑코니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코니아인들은 군사적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고, 동독인들처럼 본래 고향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에, 고대 로마는 이후 동방으로 향하는 강인한 젊은 의지와 결부되었습니다. 이 의지는 군사적, 세계 철학적 측면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서기 336년 사망)는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리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금지되었고, 그 결과 유럽은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아리우스파가 아닌 로마 가톨릭으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한 사상이 다른 사상에 대한 승리를 보게 되며, 이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만약 다른 아리우스파 부족들이 프랑코니아인들을 정복했다면, 유럽은 완전히 다른 영적 양상을 띠었을 것이고, 후에 나타난 개신교 운동 전체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같은 형태로는 말입니다.

종교에 기반한 "세계 철학"이 어떻게 온 민족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지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는 이슬람입니다. 이 믿음은 신앙심이 강한 수많은 베두인 부족을 하나로 묶었고, 그들은 아프리카 북부 전체를 정복하고 남유럽을 침략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운 유럽인들에게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호메트교는 지브롤터에서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의 상당 부분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치 운동과 격렬한 불화는 특정 "세계 철학"이 어떻게 지속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그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에게 그들만의 "세계 철학", 생활 방식, 정부 개념, 문화를 전파하고 옹호하도록 강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편 교회가 수 세기 동안 승리를 거둔 후, 유럽 여러 지역에서 이에 대한 격렬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란은 전 세계를 뒤흔든 민중의 항의를 불러일으켰고, 공통된 이념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수 세기 동안 다양한 개신교 민족들이 보편 교회와 그 군사적 대표들에 맞서 싸워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 속에서 유럽의 집단 의식은 매우 특징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종교적이거나 교리적인 투쟁이었던 이 논쟁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가적 구조를 보호하는 것은 윤리적 가치를 대체할 것이며, 그 가치의 대표자들이 최고위층에 속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리슐리외 추기경의 경우일 것입니다. 그는 루이 13세의 수석 장관이자 루이 11세의 후계자로서, 루이 11세가 구상한 국가 통합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편, 그는 로마 교회의 주교였고, 이후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파리 궁정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이 팽배했고, 주로 스페인 세력이 그 세력을 대표했습니다. 로마의 정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가에 유리했으며, 스페인-합스부르크 왕가가 프랑스에 승리하면 유럽에서 오랫동안 가톨릭의 패권이 확립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슐리외는 개신교 동맹국들과 맺은 모든 협정에서 로마 교회의 자유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른 쪽으로 옮겨 합스부르크 왕가에 맞서 전 세계를 동원하고 스페인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교황의 세속 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프랑스 궁정에 있는 모든 교황의 친구들에 맞서 그는 프랑스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프랑스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그는 자국 내 개신교도들을 섬멸했지만, 구스타프 아돌푸스와 바이마르 공작 베른하르트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대포에 교황군을 향해 발포하도록 명령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 추기경의 명령으로 로마 군대를 향해 발사된 이 총격은 유럽이 새로운 태도로 전환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이런 태도는 우리 대륙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9세기에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형태의 유럽 민족주의로 변화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민족 사상은 삶을 해방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당시의 많은 저술과 워싱턴, 볼리바르, 가리발디와 같은 인물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과 상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졌고, 발터 라테나우의 "운명은 경제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격언은 대부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라이트모티프(Leitmotiv)"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여러 국가의 인구 규모였는데, 이는 국가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생산물과 원자재 공급 시장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지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세계 공화국"을 목표로 삼고 기존의 국가 경제 체제를 중앙 통제 하의 소위 세계 경제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세기의 전환기에 군사적 정치적 성격을 지닌 몇몇 국가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대립하는 많은 경제 집단, 상업 및 산업 신탁, 국제 은행이 거의 희망 없는 혼란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혼란의 성공과 실패는 수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가 정책은 이러한 사적 이익에 종속되고 이를 대부분 국가적 중요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순수 경제 체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모든 면에서의 저항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운동, 즉 마르크스-코민테른을 통해 사회적 자유를 설파하는 교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새로운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해 끊임없이 복잡해지고 심화되었던 이러한 모든 흐름과 경향들은 19세기 말에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전 세계를 뒤흔든 이러한 진동들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지진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감상적인 철학에 빠지지 않았지만,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경험했습니다.

시민 사회와 마르크스주의 세력의 영향으로 사회 구조가 허무주의로 붕괴될 것이라는 자각과 동시에,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강력한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는 희망은 그의 격언과 그의 모든 저작의 특징입니다. 동시에 폴 드 라가르드와 리하르트 바그너 같은 인물들은 세상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세상이 탄생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종말을 어두운 색채로 묘사했습니다. 극도의 불안감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동안, 이러한 사상들은 어떤 형태도 갖추지 못한 채 모든 국가의 수도에서 수용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몰락했고,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악마들』에서 예견했던 그러한 경향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공산주의는 러시아에서 모든 사회 이론에 맞서 승리했는데, 이는 도시의 프롤레타리아 대중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버린 의지가 강한 비유럽적 성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치명적인 적대 관계 속에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다양한 세계 철학들을 살펴보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이든, 과학적이든, 또는 사회윤리적이든, 모두 잘 정의된 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그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가용한 모든 정치적, 군사적 힘을 동원하여 이 교리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태도는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편성은 세계 운동의 법칙을 부여하는 최고 지도자로 개인이 임명되든,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든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사회 또는 어떤 특정 이론에 기반합니다. 실제로 지난 15세기의 유럽 역사는 모든 국가가 그러한 보편적으로 인식된 "세계 철학"의 어딘가로 움직이며, 모든 국가 간의 거대한 투쟁은 보편적 성격을 지닌 교리 내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교리는 로마 가톨릭 "세계 철학"에서 종교적 보편성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또한 개신교 교리에도 동일한 특징이 존재했지만, 형태는 달랐고 개인주의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존재했습니다. 자유주의 체계에서는 프랑스 혁명 당시 설파되었던 것과 같은 사회윤리적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분파인 세계 공산주의의 특징이기도 했던 것은 허무주의적 보편성이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는 더 이상 국적과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만을 인정했으며, 언제든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결정적이고 급진적인 세계 철학적 변화는 다가올 투쟁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성격을 갖지 않을 것이며, 민족 투쟁이 보편주의적인 어떤 특정한 “세계 철학”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적인 “세계 철학” 안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확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에는 순전히 국가적이었던 경향이 더욱 확대되고 세계 철학적 관점에서 고찰되어, 가장 넓은 개념에서 삶을 규제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 초기에는 보편 교회의 통치가 가장 높은 종교적, 정치적 요소였습니다. 첫 번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두 종교가 서로 대립했습니다. 이 투쟁의 후반기에 이러한 주요 요인들은 종교적 영역에서 국가적, 정치적 영역으로 옮겨갔고, 국가적, 정치적 영역은 처음에는 군주제 형태를 띠다가 마침내 공화주의 이념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우리는 계급 사상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특히 독일에서 여러 정당의 근본적인 정치 원칙을 형성했습니다. 중세 시대의 주요 요소는 중앙당으로 대표되었고, 왕조 사상은 과거 보수당으로 대표되었으며, 공화주의 사상과 결합된 경제 사상은 민주당으로 대표되었고, 계급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대표되었습니다. 독일에 존재했던 이 모든 집단에 맞서, 국가사회주의 운동은 새롭고도 오래된 주요 요소, 즉 국가적 명예의 이상을 선포했습니다.

1933년까지 지난 14년간의 모든 투쟁은 이 깃발 아래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깃발이 신비로운 힘을 지녔다면, 그것은 오직 명예를 의식했던 위대한 민족이 붕괴를 겪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붕괴 이후 내려야 할 결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낡은 정치 집단들을 구세계 철학을 대변하는 존재로 더욱 용인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철학을 독일 국민의 삶의 기반으로 삼아 창조해야 했습니다. 국민적 명예라는 개념이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점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독일 국민이 존재한 이래로, 모든 예술과 문학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힐데브란트 서사시", "니벨룽의 노래", "구드룬 사가"가 이를 증명하며, 독일 영웅 음악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이러한 사상은 옛 독일의 "작센법"과 "시민법"(Stadterecht)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는 많은 민족에게 궁극적으로 통일을 낳은 여러 요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민족을 지칭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내 유일한 목표는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우리가 이 경우 많은 혁명 중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혁명이 독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는 혁명이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독일 농민 전쟁, 옛 "자유 도시"의 법률 제정, 프리드리히 대왕, 1813년 독일 해방 전쟁의 지도자들,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위대한 사상가들의 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열렬한 독일 민족주의가 다른 민족의 정당한 민족주의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이 독일 민족주의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정신적 우월성을 통해 전 세계가 갈망하는 정의로운 균형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국가사회주의 운동에 기반을 둔 권위주의 국가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 사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문화적 선전과 무법적인 경제 팽창을 근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 민족은 경제적 갈등에서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종과 토양에 기반한 "세계 철학"인 독일 민족주의는 보편성과 관련된 교조가 아닙니다. 그 전제나 결론에는 다른, 따라서 서로 다른 민족과 인종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는 우리의 철학이 자연과 그 법칙에 대한 경건한 찬양으로의 회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 "세계 철학"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특성을 적절히 중시하지 않는 민족적 삶의 형태들로부터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문화 과학적 교리들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를 동일한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추진력에 대한 더 높고 동시에 더 깊은 의식을 성취하려는 시도로 간주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세계 철학"은 타자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문화 간에 상호적이고 진정한 존중을 가져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를 들어 국가사회주의 운동은 각자 고유한 특성을 지닌 완전히 다른 인종과 국가 헌법을 가장 존중합니다. 극동의 두 강대국에서 우리는 각자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구조물들을 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은 종교적 표현,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 그리고 국가 이익에 대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존경스럽습니다. 중국 민족 또한 경제와 사회 윤리라는 한 형태의 "세계 철학"에서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에는 해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모든 민족의 고귀한 야망에 보이는 것과 같은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이러한 재편 시도를 지켜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실상 통제되지 않은 채 확장하던 시대는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경제적 팽창기 이후 수축기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속에서 진정한 모습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은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또는 세계철학적 성격의 격렬한 충돌을 통해 입증됩니다. 이러한 충돌은 거의 보편적인 신앙의 부재를 증명하며, 국가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이념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체제가 지속적인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 채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정치의 징후와 징조를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모든 국가의 정신적 갈등은 우유부단한 전쟁을 벌이는 모든 체제를 특정 체제로 대체하거나, 모든 체제를 능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대체하려는 욕구에 집중되어 있는 듯합니다.

독일은 이 세계 투쟁에서 하나의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모범적인 사례 — 소위 "운명적인" 발전이 결코 공산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오히려 강인한 인격에서 우러나온 결의가 오늘날의 상황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르 지역의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국민투표는 새로운 삶의 개념이 모든 반대 흐름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체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반대 흐름은 아무런 방해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독일 체제가 사적인 정치적 또는 사적인 경제적 이익의 권력 장악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제국만이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중대한 이익에 필수적인 한계를 규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로써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비록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지라도 사적 이익과 국가 전체의 중대한 이익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러 국가의 삶과 관련된 자연적 원동력이 더 이상 서로에게 자의적으로 작용할 수 없고, 개별 국가의 이익과 모든 국가의 유기적 협력이라는 두 가지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안정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복합체 속에서 수적으로 작은 국가들은 더 이상 편협한 이기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강대국 간의 유기적 활동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은 단위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소국"에 대해 언급할 때 저는 단지 그 영토와 인구만을 언급하며, 그들의 지적·문화적 중요성을 어떤 식으로든 과소평가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의 "세계 철학"과 국가적 이상의 부활은 국가와 국가 경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낳았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새롭고 잘 규제된 국가 통제로, 이것만이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면, 통제가 없는 개인에 의한 오용은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온 국민의 감정과 사고를 오염시키고 타락시켜, 타락시킨 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들 간의 조화, 모든 국가 활동 분야를 규제하는 권위 있는 국가와 다른 국가들 간의 협정,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국가들의 집단("콤플렉스")과 정치적, 인종적, 지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다른 단위들 간의 협정은 19세기를 특징지었던 무질서한 요소들과 대조적으로, 현 시대의 결정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국가사회주의는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철학"이 정치 사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및 대외 정치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간략한 요약에 제시된 고려 사항들이 실제 적용과 효과의 관점에서 자세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1세기 전 자유를 위해 싸웠던 한 독일인의 말을 염두에 두십시오. "다른 사람의 조국을 존중하되,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라."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노라 엘람의 파시즘, 여성 그리고 민주주의

경험에 따르면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그 본질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가장 추악한 부패조차도 그 악행을 은폐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악랄한 금융가들이 꿈꾸는 풍요의 땅입니다.

— 조르주 소렐(Georges Sorel), 『폭력에 대한 반성』.

1906년부터 1914년까지 여성의 투표권을 위한 투쟁을 직접 겪은 진정한 냉소주의자라면, 파시스트 영국에서 참정권을 가진 여성에게 위험이 따른다는 주장에 집착하는 전후의 열광자보다 더 흥미로운 광경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배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끈질기게 옹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전쟁 전 투쟁에 그토록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오늘 완전히 180도 돌변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후원자들은 여성에게 원칙적으로는 아무것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비록 실제로는 여성들이 생존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것을 거부당해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역사적인 투쟁에 참여했고, 투표권을 단순한 상징으로 여기며 투표를 통해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여성에게 이러한 후원은 한 세대 전의 그것만큼이나 불쾌합니다. 그녀는 그 모든 고된 세월 동안 그녀를 돕기 위해 손길을 내밀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성(性)이 없는 비열한 여자나 실망한 노처녀라고 부르곤 했던 사람들이, 성공의 순간에 반동적이고 타락한 체제의 이익을 위해 그녀의 여성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뻔뻔함은 그런 뻔뻔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 투쟁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했고, 지금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으며,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개인적인 방종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성의 지위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질서 있는 변화를 위한 주목할 만하고 단호한 표현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재확인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격동의 시기에 수천 명의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머리를 이끈 열정적인 동요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그것은 개인적인 이기심이나 여성만을 위한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부터 가장 비천한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함께 살고 남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 체제 하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회에서 영향력, 관점, 재능을 배제당하는 나라는 최선의 정부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여성들도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성들이 거의 희망 없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사회적 상황이 참을 수 없었다면,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기 땅의 대도시들을 둘러보며, 남녀노소가 현대 문명의 수치라고 동의하는 주택 환경을 목격했습니다. 노동 시장을 주시하며, 임금 노동자를 괴롭히고 옛 체제에 내재된 불안의 유령을 우려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내무부와 외교 정책 모두에서 영국을 깊이 아끼거나 이미 국가 모든 정당에 침식되기 시작한 타락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봉기는 간단히 말해 오랜 적대감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 기관 내에서의 협력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시민권 개념에서 여성들의 투쟁은 파시즘의 새로운 철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실제로 파시즘은 한 세대 전의 투쟁적인 여성들이 제기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논리적이면서도 훨씬 더 웅장한 개념입니다. 유사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시스트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성 운동은 엄격한 규율 하에 진행되었고, 모든 당의 충성심을 초월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모든 계층과 당에서 나왔습니다. 여성 운동은 여성들에게 사익을 잊고, 하찮은 개인적 이익과 소수의 특권을 다수의 이익을 위해 포기하고, 인류의 안녕에 그토록 재앙적인 체제에 내재된 부당함과 불의에 함께 맞서라고 호소했습니다. 파시스트 운동과 마찬가지로 여성 운동은 지도자를 선택했고, 일단 선택되면 그 지도자에게 정책과 운명을 지휘할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 나라 역사상 전례 없는 충성심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파시스트 운동이 그랬듯이, 이 운동은 거리의 잔혹함, 반대자들의 조롱, 선량한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정치인들의 원한에 맞섰습니다. 현 정부의 증오, 그리고 마침내 감옥의 고독과 강제 급식의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광장과 길모퉁이에 서 있는 연설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했고, 침 뱉고 욕설을 퍼붓는 그들의 문학 작품을 팔아넘기는 것을 옹호했으며, 대표단은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성 참정권론자들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모든 난폭한 자들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비유를 더 정확히 하자면, 어떤 비방도, 어떤 중상도 지도자들의 도덕적 품성이나 그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여성들의 목표와 목적을 깎아내리는 데는 아무런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연합에 모인 여성들은 정치와 당의 구호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게 되었고,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라는 신성한 단어가 비방자들의 입에서 흔하게 나올 때,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자유주의 정권 하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정치적 지혜의 정점으로 만든 정당의 옹호자들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제 하에서 그들은 범죄자, 미치광이, 아이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여성들은 거기서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고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추방당한 그들의 경험은, 의심스러운 보호 속에서 명예로운 시민이 되었을 때 그들이 겪어야 했던 경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5년에 한 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얻었지만, 투표용지에 치명적인 십자가를 긋고 투표소 문을 닫은 순간부터 그들은 민주주의 기계 앞에서 완전히 무력함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온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지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이 투표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여성도 투표하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생각하거나, 민주주의가 남성과 여성을 꼼꼼하고 조직적으로 착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여성의 특징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전쟁 종전 후 제한적으로나마 투표권이 부여되자 여성들에게도 의회 진출권이 부여되었고, 1918년 늦가을 선거에서 여성들에게 첫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당 시스템은 이미 쇠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응보적 정의라는 냉혹한 법칙에 따라 영국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던 정당은 배은망덕한 후손들 앞에서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기쁨에 들뜬 여성들은 유권자나 유력 후보로서 당시 존재하던 정당들을 선택했습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주저했고, 이번에는 다른 모든 여성 후보들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신 페인당의 마르키에비츠 백작부인은 예외였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악명 높고 공공연한 적이었지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신이 파괴하고 해체하며 불신을 쌓겠다고 공공연히 자랑했던 나라의 의회에 선출되는 것은 지극히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녀는 반대 없이 당선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더욱 고무적이었습니다. 영국 선거구에서 선출된 최초의 여성은 미국 태생 시민이었는데, 영국 여성을 대표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상원에 진출하게 된 영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여성 운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말을 거의 감추지 않고 만족스럽게 지적하며, 이 여성을 여성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표본으로 치켜세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개인적인 것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투쟁과 투쟁 끝에 영국 하원에 선출된 다른 어떤 여성보다 더 낫지도, 더 나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여성 당원들이 웨스트민스터에 선출되었지만,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입니다. 많은 유능한 여성들이 선출된 대표단에 합류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영국이나 제국의 운명에 전혀 미미했습니다. 그들은 남성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체제라는 당의 톱니바퀴에 불과합니다. 당의 채찍이 떨어지자마자 로비로 향하며, 굴러가는 공식 기구라는 거대한 기계 앞에서 무력하게 움직이며, 그 앞에 있는 모든 주도권과 독립성을 짓밟고, 당에 충성해야 할 모든 사람을 정책과 조치를 집행하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이것이 의회의 현실이라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 유권자의 현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 역시 이 냉혹한 체제에 갇혀 있으며, 당 조직의 진정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 체제에서 여성 의원이나 여성 유권자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선출된 정부의 정책 하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현 체제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정당에 속하든 여성들이 이 나라의 현 상황에 만족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고용 규모가 200만에서 300만 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준에 달한 경제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할까요? 모든 사람의 가슴에 절망을 안겨주는 황폐한 지역의 모습에 만족할 까요? 농업 지역의 쇠퇴와 농업 산업의 곤경에 무관심하고,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개탄하는 끔찍한 주택 환경에는 무관심할까요?

제국과 외교라는 광활한 영역으로 눈을 돌려, 대다수의 영국 여성들이 제국의 붕괴를 바라는지, 아니면 소위 국민 정부의 현 외교 정책의 방향을 바라는지, 즉 그들의 이름으로 이 나라의 공언된 적들과 비밀리에 조약과 약속을 맺는 것을 바라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즉각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헌신적인; 이 집단 안보 정책은 무엇을 수반하는가, 혹은 그것을 지시하는 사악한 권력은 무엇인가? 조르주 소렐은 "민주주의는 부도덕한 금융가들이 꿈꾸는 풍요의 땅이다"라고 말한다.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내무부나 외교 정책을 견제할 힘이 있었는가?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되면, 우리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러한 정책들의 결과 앞에 무력하게 내몰릴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중대한 문제들을 바꿀 힘을 주지 못한다면, 소위 자유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만약 평균적인 여성 유권자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다면 왜 이를 허용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녀에게 이러한 자유가 있다면, 한 시간 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이중 삼중의 죄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국가 통치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기준입니다. 만약 그녀가 현 체제 하에서 필요한 권력과 자유를 얻었다면, 그녀가 국가 문제에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없고 사실상 책임을 질 자격이 없다는 비난은 철저히 입증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현재의 낡은 체제 하에서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 자유가 없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속박하는 것은 당 체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억제되지 않은 민주주의 하에서 성인 참정권이 부여된 이후 더욱 두드러집니다. 시간과 환경의 불가피한 흐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빈곤의 세계에서 무한한 풍요의 세계로의 변화는 질서 있는 계획을 생존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옛 세계의 방식은 쓸모없어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국가 의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으려면, 현실주의자로서 주변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조만간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중대한데, 상당 기간 동안 여성의 지위가 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세계 역사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째, 여성은 자신이 소속된 여러 정당의 전문 정치인들의 시녀로 만족하며 낡은 체제와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여성은 오랫동안 충실하게 노력해 왔으며, 그 체제 하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향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하더라도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은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체제에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은 각 정당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당은 과거의 황혼 속으로 사라졌고, 보수당은 급속히 붕괴되고 있으며, 당 대표의 확언에 따르면 보수당이 독립을 되찾을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당도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회당 역시 다른 두 정당을 사회민주주의라는 늪에 빠뜨린 것과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더 나은 시스템, 즉 현대적 조건에 더 부합하는 시스템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흔들리는 건물을 대체할 것은 무엇일까?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문제가 파시즘과 공산주의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국 여성들에게 공산주의는 거의 매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는 파괴의 철학이며, 여성의 자연적 본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소중히 여기고 요구하는 모든 원칙과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파시즘이 유일한 해결책인 듯합니다. 파시즘에는 영국인의 기질에 특유하게 적합하고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원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파시즘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제공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 나라에 선의를 가진 여성들. 오해가 없도록, 흔히 느슨하게 사용되는 이 용어들을 어떤 민주주의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말로 정의하겠습니다. 순수한 민주주의의 사도, 존 스튜어트 밀에게서 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가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누구의 행동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방어입니다. 문명 사회 구성원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시스트적 개인의 자유 개념이며, 여성에게 있어서는 여성 시민으로서의 미래 지위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체제에도 이러한 원칙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업 국가라는 조직에서 파시즘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파시즘은 여성들이 삶의 조건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시즘만이 1906년부터 1914년까지 투쟁적인 여성들이 여성들을 위해 시작한 작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파시즘은 당 체제에 내재된 부패의 악순환에서 여성들을 구출하고, 그들만의 특수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자신과 자녀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을 성공의 희망을 가지고 다룰 기회를 처음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산업계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남녀 간의 갈등.

사회적 영역에서는 모든 계급 장벽을 제거하고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의와 평등을 실현합니다.
여성 투쟁 역사상 처음으로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시즘은 국제주의에 존재하고 존재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전쟁의 유령을 영원히 없애려 합니다. 국제주의는 "사악한 금융가"들이 꿈꾸는 "민주주의"라는 "풍요로운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파시즘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하게 질서 있는 국가를 결속하는 데 규율 있는 협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파시즘은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특정 계층이나 계급의 이익이 아닌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조화롭게 일할 책임과 의무를 당연히 부과할 것입니다. 파시즘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모든 이기적인 개인적 특권을 종속시켜, 불우한 계층이 파시즘의 보호 아래 착취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파시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신기루입니다. 영국 여성들이 조국 역사의 이 중대한 순간에 맞설 수 없다고 해야 할까요? 이 기회를 거부하라고 권하는 자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와 문명의 적입니다. 전쟁 전의 위대한 투쟁의 시련을 견뎌낸 여성들은 적어도 과거의 예속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고, 조국의 필수적인 재편에 명예로운 역할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체제 안에 묶어두려는 국민들에게 도전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영국 여성들은 영국이 필요로 할 때 결코 실패하거나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같은 세대의 남성들과 함께 영국 파시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 체제의 혼란과 추악한 다툼 위로 높이 들고 조국이 부활하는 그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그 승리의 순간에 그들은 진정으로 재생된 위대한 영국에 경의를 표하고, 마침내 주권 국민의 평화와 안보, 번영 속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권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조리안 젠크스의 소중
한 에이커스

티 영국에 토지 정책이 없으니 토지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는 HOSE는 이런 불안한 사실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영국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나라들은 자연적으로 비옥하지 않은 땅(예: 산)의 비율이 저지대 국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인구 1인당 식량 생산지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적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영국은 토지 보존, 개간, 그리고 개량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없는 세계 유일의 문명국입니다. 1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현재 200만 에이커가 넘는, 전체 면적의 7%에 달하는 농경지 손실을 막기 위한 어떤 정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국민의 대부분이 토착 토양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국민 식단에서 오래되고 보존된 음식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인공성이 영양실조, 신경 장애, 사회적 불안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찰자라면 우리가 영국 특유의 엉뚱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매우 위험한 실험의 대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완전히 도시화되고 사실상 기생적인 공동체, 즉 삶의 필수품마저 다른 나라의 노력과 호의에 의존하는 공동체에서 국민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기후의 혹독함이나 우리 땅의 빈곤 때문에 이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강요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 대한 그의 태도가 감탄보다는 연민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상황이 단 하나의 원인, 오직 하나의 원인, 즉 기본 원칙에 대한 무정하고 지속적인 무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후는 험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기후 중 하나입니다. 척박한 토양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토양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체제는 다음 선거 그 이상을 내다보지 않고, 모든 기득권 세력과 학문적 명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오도된 경제학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생산자, 운송업자, 은행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운명이며, 그러한 상황이 원자재와 식량을 끊임없이 공물로 바쳐야 한다는 가정은 가장 큰 오류입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이 가설은 일련의 행운의 우연이 당시 세계가 거의 어떤 대가라도 치르려 했던 서비스 개발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한 우위를 점하게 해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 및 금융 민족주의의 급속하고 거의 보편적인 출현은 우리의 일시적인 독점을 휩쓸어 버렸고, 이 가설은 단순히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설에 더 오래 집착할수록 현대 생활의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국제 무역 회복"을 향한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스스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스스로의 상황을 평가해야 하는 불가피한 심판의 날을 미루는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자원.

생명 필수품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계몽적인 발전은 국가 번영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문화적, 물질적 가치를 지닌 국가적 유산이기 때문에, 그 보존은 엄숙한 국가적 의무입니다.

비교적 근대까지 이러한 사실들은 항상 정확하게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는 큰 특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전적 책임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배 계급은 거의 전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농업은 주요 기반 산업으로 인식되었고, 농업의 복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의 혼란스러운 재정 상황 속에서 탄생한, 빈곤한 토지 귀족 계급이 신흥 재벌 계급으로 대체되고 나서야 비로소 토지에 대한 국민적 태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수출 자본주의가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영국 농업은 영국 제조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직된 자본의 이윤이 국가 번영의 척도라는 교리가 확립되자, 조직되지 않은 농업은 웨스트민스터에 지원이나 지도력을 구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의 시골에 대한 연구는 거의 멸종된 문명에 대한 연구와 다름없습니다.
한 세대 동안 바퀴가 달리지 않은 깊게 파인 골목길, 10년 동안 철을 본 적이 없는 넓게 펼쳐진 울타리, 두꺼운 잔디밭에 여전히 보이는 오래된 쟁기 자국, 모든 단계에서 쇠퇴한 헛간과 오두막, 현재 교구보다 5배나 큰 규모의 교회, 조용한 물레방아와 무너져가는 영지: 이 모든 것이 한때 가장 남성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라진 농촌 인구를 말해줍니다.

물론, 더 나은 땅은 여전히 경작되고 있으며, 종종 잘 경작되기도 하지만, 그 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돼지나 가금류, 과일이나 우유에 모든 것을 건 용감한 모험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상당 부분에는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근근이 살아가는 방식의 병폐가 만연해 있으며, 이는 이름 없는 소들이 제대로 방목되지 않은 방치된 목초지에서 드러납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냉담해서 투기적 건설업자의 낭비적이고 추한 침입조차도 몇 세대 전 그러한 모독 행위가 불러일으켰을 분노의 흔적조차 거의 없이 용인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국가 자산에 가해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적으로 토지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해안선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 식량 생산의 관점에서 토지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가에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첫째, 경작지든 목초지든 경작지는 급속도로 황폐화되어 가축과 양에게 부족한 채집물만 제공하고, 토끼가 먼저 도착하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경작 면적이 꾸준히 줄어드는 시기에 "야생 방목지"로 돌아온 불길한 경작지 증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의 야생 방목지는 대부분 산꼭대기와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모든 토지와 그 외 많은 토지는 다른 유럽 국가나 심지어 우리 자치령에서도 경작할 수 있는 개량 가능한 토지이지만, 지속적인 공무원의 방치로 인해 여기서는 경작할 수 없습니다.

Inskip 유형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이 버려진 땅을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로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비상시 생산. 지난 전쟁의 환멸을 겪은 사람들은 트랙터 몇 대와 비숙련 노동력으로 땅을 간지럽히는 것만으로는 토지의 생산성을 갑자기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듯합니다. 토지 개간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수년간의 인내심 있는 노동이 필요한 고도로 숙련된 작업입니다. 장기적인 농업 정책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비상시 식량 생산 수단으로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둘째, 주거용이든 산업용이든 건설 작업은 매년 엄청난 양의 토지를 소모하며, 실제 사용량만큼 완전히 불모지로 만듭니다. 1929년 이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만 42만 1천 에이커의 농경지를 잃었고, 그중 15만 9천 에이커만이 다시 야생 방목지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6만 2천 에이커의 거의 전부가 건설업자의 손에 넘어갔는데, 그중 상당수는 평탄하고 비옥한 경작지로, 고도로 경작되었습니다.

농경지 손실은 공장, 주택, 정원이 실제로 점유하는 면적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로와 휴양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특히 새로 개발된 지역에는 항상 넓은 황무지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시가지 외곽의 농지나 현대식 주택들이 흩어져 있는 농지는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참새와 쥐가 수천 마리씩 떼지어 오고, 대문과 울타리가 무너지고, 길 잃은 개들이 가축을 괴롭히고, 사소한 피해도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저렴한 도로 교통의 등장과 그에 따른 교외 개발의 확대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은 여전히 농경지로 반환되더라도 수십만 에이커에 달할 것입니다.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서 영국이 모든 땅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이 시기에, 영국이 국가적 유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선동적인 주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RG 스테이플던 교수의 최근 저서 『 땅: 지금 그리고 내일』(The Land; Now and To-morrow)을 주의 깊게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스테이플던 교수 는 "우리의 농경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식량 생산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해야 할 최소 면적에 대한 결정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0년 안에 영국의 농경지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20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 손주들이 아메리카 대륙과 남미 대륙에서 무한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할 만큼 대담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국가 재산을 탕진하고 후손들에게 기본적인 기아 문제에 직면하게 한 세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할까요? 빅토리아 시대의 수출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고갈된 지역'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황폐화된 지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토지 문제의 영양적, 경제적 측면을 더 깊이 고려하면, 국가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농업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중요한 문화적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은 도시 계획 운동 하에서 이미 간헐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이름 자체가 그 한계를 드러냅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잊고 수입 식량 공급을 자연 현상으로 여기도록 부추겨진 공동체는 시골을 도시의 단순한 부속물, 일종의 미화된 공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시골 지역이 마치 영국 본토의 광활한 지역이 특징 없는 교외 정원으로 전락한 것처럼, 개성 없는 "오픈 스페이스"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도시의 시끄럽고 오염된 대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인들의 본능적인 갈망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일요일의 절반을 혼잡한 간선도로에서 휘발유 매캐한 냄새를 맡으며 즐겁게 보내는 것은 나머지 절반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보내기 위해 애처로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사업의 결실을 망치지 않고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골은 그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지 않고서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 특성은 물질적 또는 농업적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도시가 도시를 따라간다면 도시를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인이 시골 산책을 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더라도 마음에 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시골에 살기 위해" 온 사람들에 의해 교외화된 마을의 모습은 지식인 무리가 자신들보다 더 흥미롭고 중요한 수많은 활동들을 하는 가운데, 마치 떠드는 소리만 쏟아내며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만큼이나 애처롭습니다. 얼마 전 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제 밭을 가로질러 걷는 것도, 저를 희생시키면서 멍청한 개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어린아이가 열 수 있는 문을 뛰어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2마일이나 되는 좋은 농지를 걸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 예의가 허비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태도는 시골 활동에 대한 무관심보다 더 심각한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육사가 보지 않을 때 오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발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 사소한 불법 침입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교육받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불법 침입의 누적된 영향은 도시 도피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불쾌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길가 울타리에 과일나무를 심고, 땅은 철조망 끝까지 경작합니다. 영국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조직적인 약탈대가 나무를 베어내고, 농작물을 사슬 너비만큼 짓밟아 버릴 테니까요. 영국인이 독일인보다 반드시 덜 정직하거나 더 파괴적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지막 가로등이 꺼지는 순간까지 그들의 가치관과 도덕적 행동 규범이 사라질 정도로 탈농촌화되었을 뿐입니다. 가게 계산대에서 1페니짜리 연필을 훔쳐 가는 것에 충격을 받을 사람들은 버섯을 훔치기 위해 울타리 여섯 개를 뚫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골은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진정한 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의 비참한 경향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그 부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독의 치유력, 평화와 안전이 주는 영적인 위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들판과 숲의 매혹적인 매력을 알아줄 수 있고 또 실제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해치거나 훼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골을 보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스테이플던 교수가 말하는 "농촌적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입니다.

파시스트 정부는 당연히 토지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는 그들의 살아있는 국가라는 개념이 구축되는 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공언하는 농업 개발 정책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활동을 부추겨 시급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농업 정책이 완전히 수립되기 전에 이러한 투기 활동을 철저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파시스트적 태도는 몇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토지는 더 이상 투기적 상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지의 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증가분은 토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 특히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상태.

토지 이용은 신중한 장기 국가 계획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건설 활동은 농업적 가치가 낮은 지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가능한 한 널리 분산되어야 하며, 그 목적은 다수의 소규모의 안전한 가족 자유보유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수반하며, 토지를 오용하는 자는 사회적 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들판길, 캠핑장, 도로변 휴게소를 확장하고 더욱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동시에 무단침입법을 개정하고 농촌 지역 사회를 간섭과 피해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관리인단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끼, 까마귀, 비둘기와 같은 해충에 대해서는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야외 스포츠에 대한 차별은 없지만, 이러한 스포츠가 농업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은 시골을 존중하고 감상하며, 시골 활동에 지적인 관심을 갖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대해 감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조국'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고, '조국'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한 세기 동안의 자유방임 주의적 자유주의와 재정적 보수주의는 우리 땅에 대한 근시안적이고 상업화된 태도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영국, 우리 민족 정신의 실체인 영국은 거리와 공장, 심지어 공원과 공공건물로 이루어진 영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계곡과 완만한 고지대, 경작지와 아늑한 농가로 이루어진 영국입니다. 도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도시이며, 전 세계의 도시들은 해마다 표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영국은 우리만의 고유한 것이며, 우리의 민족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랫퍼드어폰에이번의 박물관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생산성이라는 자연스러운 활력 속에서 영국을 부지런히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중 땅에서 몇 세대 이상 떨어져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과 라디오를 통한 약간의 재교육만으로도, 적어도 여가 시간에는 우리를 다시 시골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유용하지만 다소 따분한 기초 과학으로 구성된 "농업"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의 교육이 아니라, 우리를 열린 눈과 탐구심으로 골목길과 들판으로 이끌어 줄 교육 말입니다. 시골의 역사와 일상생활에 대한 소개는 마을 사람들이 농업의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격려할 뿐만 아니라, 시골 나들이에 몰두할 만한 흥미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지적인 시골적 사고방식은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최상의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지모신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위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히틀러의 베르히테스가덴, 신독일의 짧은 서사시 - 조안 모건

이자형 바이에른을 잘 아는 분이라면, 그리고 비텔바흐 가문이 바이에른 전역을 아우르고, 총통이 독일 전역을 아우르며 베르히테스가덴을 여름 별장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더라도, 옛 바이에른의 심장이자 새로운 독일의 영혼을 동시에 품고 있는 이곳에 대한 기대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이에른의 가장 동화 같은 모습과 국가사회주의의 정수가 모두 산으로 둘러싸인 이 시장 마을에 응축되어 있으며, 런던의 최신 아파트 단지와 비슷한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기차가 바트라이헨할을 출발하면 산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독일이 오스트리아로 쐐기처럼 뻗은 깊은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마치 산이 온몸을 완전히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 방향 모두 오스트리아까지 걸어가는 것도 가능하며, 꽤 스릴 만점입니다.)

첫인상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살 이상 된 아이들 모두 일종의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고도 때문인지, 바이에른 사람들의 들뜬 기분 때문인지, 아니면 총통이 언제든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뮤지컬 코미디 설정에서 국가사회주의는 매우 재밌어 보입니다.
가끔씩 열리는, 단순하고 이상하게도 영감을 주는 모임을 제외하고는, 당신은 그 모든 것의 깊고 신비로운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완수한 과업의 광대함과 앞으로의 과업의 광대함을요.

매력적인 제복, 총통과의 접촉,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의 건강한 삶을 갖춘 SS는 매우 즐거운 직업이며, SS는 애국심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서 모든 연령과 계층에게 열려 있는 훌륭한 조직입니다.

독일 어느 곳보다도 이곳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SS 대원부터 겨울 구호 배지를 파는 가장 어린 아이까지 모두가 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원치 않는다는 생각에 영혼을 파괴하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모든 성취는 그들의 성취이고, 모든 좌절은 그들의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가 희망을 되찾고 조국의 미래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곳의 삶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가사회주의와 함께 계속됩니다. 그렇기에 베르히테스가덴에서의 삶은 마치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쇼와 같습니다. 막이 내리면 다음 막이 펼쳐집니다. 창밖으로 단조로운 웅성거림이 들려옵니다. 베르히테스가드너라고 불리는 검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인 작은 니트 코트를 입은 민족 의상을 입은 백 명의 시골 여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성직자가 있는데, 그들은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구호를 외치며 움직입니다. 잠시 후, 짧은 갈색 코트를 입고 행진하는 젊은 BDM(히틀러 소녀)들의 날카로운 목소리나, 깃발을 든 건장한 체격의 소년들로 이루어진 히틀러 유겐트 부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제나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하면, 그들은 소방 훈련을 합니다. 튜닉과 헬멧, 그리고 플러스포를 착용한 100명의 소방관(또는 주민 30명당 1명)이 당신의 창문 앞에서 용감하게 훈련합니다. 하지만 일요일은 훈련의 날입니다. 마을의 정점인 마르크트 플라츠에는 농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분수 한쪽에는 녹색 모자를 쓴 남자들이 거대한 솔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바이에른 사자가 있는 곳, 반대편에는 납작한 검은색 모자를 쓴 여인들이 땋은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10시가 되면 맥주와 소시지 수프를 먹으러 호프브로이하우스의 작은 형제 격인 노이하우스로 향합니다. 노이하우스는 밤나무 아래 비어가든이 있는 곳입니다. 비텔스바흐 성의 울타리에 잠자리를 널어놓고, 비할 데 없는 게뮈틀리히카이트(gemütlichkeit)가 있는 비어슈투베(bierstube) 에서 당 지도자들이 안내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중심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어울릴 만큼 웅장한 그랜드 호텔.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뮌헨에서 온 연주자들이 있는 쿠르하우스. 투박한 재치와 매력적인 음악이 돋보이는 농민 극장. 댄스 클럽도 있습니다. 런던의 호텔 지배인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손수건 바닥이 깔려 있는 친밀한 분위기의 호프샤퍼, 그리고 한때 바이에른 왕가의 별장이었던 곳에서 SS 보디가드의 거대하고 우아한 소년들이 춤을 추는 쿠르 카페. 기묘한 영감을 받은 목판화를 그리는 프리츠 리히터와 현대 알프스파의 일류 풍경화가 중 한 명인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먼저 총통의 저택이 있습니다. 세상 꼭대기에 우뚝 솟아 있는 이 저택은 유리벽으로 산맥의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가파른 지형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뒤로 기울어진 듯합니다. 총통이 마을을 장악하듯, 저택은 계곡을 압도합니다.

알프스의 모든 호수 중 가장 아름다운 쾨니히제(Konigsee)는 깎아지른 듯한 산맥이 사방을 감싸고 있는 깊고 푸른 호수입니다. 힌터제(Hintersee)에서 흘러내린 시냇물이 푸르고 울창한 바위 사이로 쏟아지는 마법의 숲, 차우버발트(Zauberwald)도 있습니다.

(제복의 땅인) 소금 광산에서는 검은색 튜닉과 흰색 플러스포(플러스포)를 입고 (말처럼 세련 되고 어울리지는 않지만) 지하 호수까지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데, 호수 끝에는 불빛 목걸이와 나치 문양이 걸려 있습니다. 슐로스 플라츠에는 전쟁 기념비가 있습니다.

자연의 색채 구성이 이어지는 알프스 초원이 있는데, 어느 주에는 분홍색, 다음 주에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런던, 파리, 뉴욕의 꽃집 주인들도 부러워하며 넋을 잃을 정도입니다.

숲은 제각각 눈선까지 곧고 힘차게 뻗어 있습니다. 산들, 독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아름다운 바츠만, 황량한 골,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유령이 출몰하는 험준한 운터스베르크가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을 위해 운터스베르크 안쪽 6천 피트 높이에 있는 조명이 환하게 밝혀진 얼음 구멍이 있습니다. 또한, 굉음을 내며 절경을 이루는 알름바흐 클람 협곡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것이 훨씬 더 많은 듯합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풍경"이 아닌 "감정적 경험"이라는 제목 아래 놓이게 됩니다.

베르히테스가데너 란트에서는 "잔디 신"과 "하일 히틀러!"로 똑같이 인사합니다. 신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히틀러 만세! 이 모든 것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주신 데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비드쿤 퀴슬링의 북유럽 세계 연맹

노르웨이 NASJONAL SAMLING의 리더

에이 낡은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탄생합니다. 작년 스타방에르에서 열린 세 번째 연례 대회와 동시에, 1928년 마지막 세계 대회 이후 7년 만에 모스크바의 옛 "귀족 클럽"에서 제7차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세계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회의 주된 목적은 소련 러시아 내외에서 7년 동안 유대인 국제 마르크스주의 음모가 스탈린의 세계 볼셰비키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성취했는지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 세계 대회에서 논의된 주제였습니다.

둘째, 국가 저항 세력을 파괴하고 공산주의 세계 혁명의 불씨를 지피려는 강령의 전술을 확고히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소위 통일인민전선 전술이 강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에서도 농민당과의 소위 "위기 협정"과 부르주아적이고 민족적인 위장을 채택한 노동당의 새로운 위장 전술을 통해 통일인민전선 전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문제, 즉 소련의 국제연맹 참여 역시 코민템 강령에 오랫동안 반영되어 온 동일한 인민전선 전술의 한 단면입니다.

올해 우리 Nasjonal Samling이 연례 집회를 위해 모였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세계 대회 소집.

이번에 국제연맹의 파산 기업의 주주들은 가을에 기업의 청산이나 재건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총회를 열 예정이며, 그때 총회는 관례적인 연례 회의를 열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지막 두 차례 전국대회와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외교적 정치적 상황을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활동하는 세계 볼셰비즘이 있는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히 낡은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놀라운 증상일 뿐이며, 사악한 세력이 세계의 진화를 그들만의 파괴적 방식, 즉 유대인 독재 정권 하의 보편적 유물론적 공화국으로 강제로 이끌려는 끈질긴 노력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구세계가 오늘날의 절실한 요구, 즉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이라는 요구를 해결하려는 목적 없는 시도를 목격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개별 이해관계의 충돌로 좌절되고 있으며, 상황이 요구하는 국가 내부 협력은 계급 전쟁과 이기적인 정당 간 갈등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 과정은 불안과 위기, 전쟁과 내전을 동반합니다.

국제주의 강대국들이 개입하고 전체 관심사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국가가 점차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에 의해 소모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점차 마르크스주의와 파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마르크스주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인류의 끊임없이 젊어지는 줄기들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통일을 향한 민족 운동이 새 시대를 알리고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이 나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제재와 리그 붕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부르주아 의회 자본주의 기관인 국제연맹의 붕괴가 단순히 그 기관 자체의 허약함과 마르크스주의의 암묵적인 활동, 또는 국제연맹 조직의 근본적이고 형식적인 오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조직된 공동체를 대표하는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50개의 제재국과 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세계 전체의 반대, 그리고 파시즘과 이탈리아에 맞서 결집된 세계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단결은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이탈리아의 이익과 전혀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나시날 삼링(Nasjonal Samling)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에티오피아 분쟁에 대해 명확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의 중립을 지지하고 소위 제재에 대한 노르웨이의 참여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나라의 이익에 대한 배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많은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여론도 선전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전은 실제로는 자신들이 주입한다고 가장하는 고상한 이상과는 전혀 다른 이익에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의 중립을 요구했고, 제재주의의 위선과 무목적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옳았습니다. 일반적인 의견과는 달리, 우리는 현대 전쟁 물자의 중요성과 에티오피아와 영국의 저항력, 그리고 특히 역사적, 국가적 기반 위에서 단결된 노력을 위해 조직된 국민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도덕적, 물질적 힘을 올바르게 평가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올바르게 판단했습니다. 제재 정책의 무용성과 심각한 오산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강대국 영국이 근시안적인 국제연맹 정책으로 인해 겪은 비극적인 좌절을 보십시오. 이는 대영 제국이 아메리카를 잃은 이후 겪은 가장 큰 도덕적, 실질적 패배입니다.

국제 연맹의 새롭고 주목할 만한 회원국인 소련은 제재 정책에서 먼저 무솔리니와, 그다음에는 히틀러와 다툴 가능성을 보았지만, 그들의 계산이 틀어지기 시작하자 교활한 볼셰비키 유대인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그들 자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영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불명예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민족주의 정책과 국제 협력

노르웨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교 정책에서 현실적이고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평소와 같은 편협한 정치를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 나라에서 안타깝게도 과소평가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즉, 국민의 삶은 국내 정치가 아닌 외교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내부 상황과 구조는 자국의 "생존 의지"에 더하여 국제 경제 및 권력 상황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족과 국가의 원초적이고 절박한 욕구, 즉 생존과 거주 공간을 위한 투쟁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대외 정치 영향력은 항상 그 국가의 내부 역량 발전 정도에 상응합니다.

따라서 전쟁 시 자립의 필요성과,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 구조의 재편은 공동체들이 경제적 토대 위에서 노동자 국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도록 강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모든 국가는 모든 자원을 완전하고 유능하게 통제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조직된 경제 단위로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위기는 주로 세계 생산과 무역의 재조정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되고 강력한 특징을 지닌 국가적 경제 단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평화 유지를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원인에 의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추진되는 계획된 국제 협력에 대한 요구 사이에는 본질적인 대립이 없습니다.

정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조직화된 국가적 인물의 형성입니다.
편파성이나 억압이 없는 효과적인 국제 협력.

유럽과 세계의 두 적대적 진영

현재 상황은 세계, 특히 유럽에서 세계대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는 국제 유대인 사회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사회주의 독일과의 전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독일에 대항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으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일을 더욱 포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입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 독일, 영국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 정책은 이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럽의 강대국에서, 특히 대서양을 중심으로 유럽적 이익을 추구하는 아시아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세계 혁명의 거점입니다.

세계 볼셰비즘은 노르웨이와 더불어 스칸디나비아 전체를 독일과 영국에 대한 유럽 공격 전선의 우익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나라에 불길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소련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당의 전반적인 전망은 노르웨이가 독일에 맞서 볼셰비키 편에 설 수 있도록 만들 것이며, 이는 우리의 중립 서약에 위배됩니다.

노동당의 무책임한 독재자 트란말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노르웨이와 소련이 현 국제연맹 회원국이고 독일은 회원국이 아닌 한, 우리는 이 방향으로 심각한 전쟁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독일과 러시아 간 분쟁 발생 시, 우리는 적군과 공군의 자유로운 통행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의 상황 하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전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영국 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프랑스, 체코슬로바키아, 소련의 삼국 동맹, 특히 체코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보다 더 민감한 지역입니다.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것은 영국에게 전쟁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항공 산업의 엄청난 발전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영국과 독일 사이의 이러한 전쟁은 노르웨이에 있어서 재앙적인 가능성이다.
세계 대전 이후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제연맹을 영국의 세계 정책의 도구로 삼았다면 우리는 곧바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국제연맹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로이드 경과 같은 권위자에 따르면, 만약 우리가 세계 대전 때처럼 상선대가 영국으로 상품을 운송하도록 허용한다면, 징벌적 포격을 당할 것이 틀림없다. 영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을 고집할 것이다.

노르웨이 노동당(여당)은 독일을 겨냥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에 동의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민 최소 99%의 의지에 반하여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이 이 전쟁 정책에 직접 끌려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르웨이는 우리의 자유와 국경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행진할 수도 없고 행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과의 평화

저는 이미 독일과 영국 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독일과 영국이 새로운 전쟁에서 서로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파멸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혈통과 전망을 가진 두 나라 사이에 평화와 이해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지라도, 대개 거짓되고 부정직한 이유로 우리 동족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려는 자들에게 정당한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하는 것은 우리의 당면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누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볼셰비즘입니다. 독일과 영국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노르웨이 외교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당파적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이익이 이를 요구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전쟁과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쪽과 서쪽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이웃 국가들, 그리고 우리와 가장 큰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간의 평화와 이해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약 40년 전, 그리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 지속적인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정직한 시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무시되거나 무시되었고, 그로 인해 초래된 재앙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감히 같은 재앙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눈을 크게 뜨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대응을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고려 사항은 우리 외교 정책의 주요 노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퇴폐적인 자유주의와 그 후손이자 계승자인 마르크스주의는 민족 공동체,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연적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제적 세계 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의 조직.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러면 민족들의 내적 결속력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민족과는 달리 온 지구에 흩어져 다른 민족들에게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그 민족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 민족은 열렬히 갈망하는 세계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그러한 체제가 필요합니다 . 바로 그 지배에 유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북유럽 정신 사이의 결투는 불가피합니다. 마르크스주의와 국제주의는 사실상 유대 민족주의이자 제국주의이며, 유대교가 북유럽 유럽 문명에 맞서 부추기고 이끈 음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쇠퇴하는 과정이 삶의 이상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며,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적대감이 유대교와 북유럽-유럽 원칙 사이의 투쟁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쇠퇴와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의 은밀한 활동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북유럽 민족과 그 특징적인 기질이라는 활력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토대 위에 우리 민족을 위한 민족 르네상스를 이루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유럽 국가, 네덜란드, 플랑드르, 대영 제국, 독일 등 북유럽계 주민이 비교적 적은 나라에서 북유럽인과 전 세계의 북유럽적 민족 간에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노르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위대한 노르딕 종족에 적용되며, 우리는 지금 불안정한 북부 협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민족적 특성과 조직을 수호하는 것이 모든 창조적인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라는 인식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오직 이러한 방식으로만 북유럽 문화와 그 특성이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다른 종족의 가치와 문화적 공헌을 깊이 인정하는 조건 중 하나이며, 모든 민족을 해체와 혼돈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한편, 이 시대에 구축되어야 할 국제 협력은 인종, 언어, 문화, 그리고 이해관계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생활 수준과 유사한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고객이다.

북유럽 사람들의 연합

이러한 민족들의 블록 형성, 즉 북유럽 민족들의 연합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연합은 파산한 자유주의-마르크스주의 제네바 동맹보다 세계 볼셰비즘 에 맞서는 방벽 역할을 하고 세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조직된 인류로 나아가는 길은 공동 통화, 국내 자유 무역, 그리고 공동 관세 정책을 갖춘 블록 형성을 통해 위대한 북유럽 민족들의 연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른 국가와 강대국들을 이 체제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교 정책은 노르웨이의 국제적 입지를 보장하고 볼셰비즘에 맞서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우리 나라의 자원이 부족하다면, 이 나라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잉여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 운동에 기반한 협력

북유럽 공동 운명을 강조하는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중요성과 성취, 또는 우리 공동의 인간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유럽적, 보편적 협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연대는 국민 국가 체제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 연맹, 범유럽, 그리고 세계 소비에트 공화국의 본거지인 소비에트 러시아와 같은 자유주의적이고 마르크스주의적인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인민들의 민족적 고양을 통해 창출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모든 진보가 자유와 차별, 그리고 동료애와 조직력의 결합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 군주제와 세계 공화국은 무정부 상태와 해체로 끝납니다. 한 국가의 패권은 다른 국가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재앙을 초래합니다.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목표인 모든 국가와 인종의 바벨탑과 같은 복합성은 각 개인의 특성과 가치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조화는 분리와 발전의 결과임을 가르쳐 줍니다.

인류의 조직적 형성 본능은 국가적 삶과 국가적 단결의 협력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된 모든 국제 기구들은 국가 간의 원활한 상호 이해를 확보하고 그 발전을 촉진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주의적 연맹 사상과 국제적 마르크스주의의 실패를 고려할 때, 1934년 12월 16일과 17일에 몽트뢰에서 열린 새로운 질서 대회에서 제시된 공동체 조직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토대로 유럽적이고 세계적 성격을 지닌 새로운 국가 연합을 만드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대회에서 가장 먼저 고려된 것은 정신적 가치와 국가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위선적이고 기술적인 낡은 외교 방식 대신, 모든 젊고 건강한 민족 운동과 이를 통해 재창조된 민족 국가 간의 자발적이고 명예로운 협력이 발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정신적 쇄신과 정치적·경제적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계획의 틀 안에서, 같은 혈통을 가지고 같은 문화와 문명을 공유하는 민족들은 서로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에 따라 함께 모여야 합니다.

북유럽 세계 운동

나시온 샘링(Nasjonal Samling)이 취하는 주요 원칙은 우리의 정치가 현대의 변화로 인해 필수적이 된 요구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우리 민족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유럽 정신의 불길을 되살리고 영적이고 책임감 있는 삶의 관점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북유럽 균주를 혼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특성을 보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국가적 멸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북유럽 사상은 북유럽 민족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사상이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현대적 요구에 따라 국가적 자산과 정신적 전망이라는 이중적 토대 위에서, 각 북유럽 국가에서 꾸준히 영향력과 통용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실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노르딕 협력의 씨앗과 토양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빠르게 확산되려면 명확하고 적절하게 조직된 표현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북유럽 민족과 북유럽적 관점을 지닌 전 세계 사람들 간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노르딕 운동의 창설.
- 북유럽 민족 연합의 형성.

세계 조직과 평화로운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혁명과 새로운 헌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와 기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평소처럼 사상의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견고한 경제적 토대 위에서 정치적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통화 기반을 북유럽 민족 간의 확립된 통화 연합으로 확대하고, 정치적 재정 협력을 통해 이들 민족 간에 관세 동맹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공언한 목표, 즉 세계적 친교 속에서 북유럽 민족의 위대한 연합을 정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철저히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상당 기간 동안 Nasjonal Samling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형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범북유럽 협력은 실제로 좁은 의미의 북방 국가들, 즉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북해의 노르드 섬들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입장은 노르웨이와 스웨덴보다 훨씬 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영국과 독일과의 평화롭고 확실한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원 없이는 이러한 국가들과 자발적으로 운명을 연결하는 데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확보되었으므로, 북방 국가들이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과 협력하여 북유럽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집단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영국과 독일 정책의 다양한 세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족들 사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상황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교 정책을 갖는 것에 반대하고, 우리 자신의 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시대의 특징은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 단위로 변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다는 사실, 즉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정치에서 그러한 협력이 우리나라에 중대한 이익이 된다면, 우리의 운동에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이익이 됩니다. 우리의 국가 파괴를 위해 활동하는 세력이 국제적으로 조직되어 있기에, 우리는 국가 이익을 넘어서는 목표를 가진 조직으로 그들에게 맞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조직은 우리 국민의 공동의 중요한 기반, 즉 북유럽 원칙 위에만 구축될 수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북유럽 원리

노르딕 원칙은 노르딕 전통, 노르딕 사상, 그리고 건설적인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증오, 시기, 그리고 계급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파괴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는 대조적입니다. 전자는 신과, 후자는 악마와 결탁합니다.

따라서 노르딕 원칙의 정신적 힘은 우리 인종과 문명을 파괴로 위협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유물론적 존재관보다 더 강하고 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수해야 하고,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실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고유의 민족 원칙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역사적 과거와 현재의 심오한 진실을 인식하고,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북유럽 민족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들을 목격하며,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동시에 신의 뜻이 세계 발전의 역사적 과정에 드러났다고 확신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중요성과 공헌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세계에서 북유럽 민족의 지속적인 역사적, 신적 사명을 믿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대한 민족 가족의 사명은 낡은 세상을 청산하고 온 인류를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쇼날 회의는 모든 국가의 북유럽 인종과 전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 즉 노르웨이인, 스웨덴인, 덴마크인, 아이슬란드인, 영국인, 독일인, 네덜란드인 및 북유럽 혈통과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을 북유럽 세계 운동에 참여시켜 전 세계 모든 북유럽 민족 간에 평화와 협력을 창출하고 우리 문명의 구원과 진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자고 초대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클로드 서튼의 파시즘에 대한 해석

에프 이 글에서 사용될 의미의 ASCISM은 우리 시대에 등장한, 마르크스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맞서 남성의 충성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세계 운동을 묘사하기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탈리아에서 이 운동이 취한 특수한 형태를 지칭하는 데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파시즘에서 새롭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출현했다고 느끼는 대중의 의식은 이 용어를 더 넓은 의미로 고집합니다.

파시즘은 공산주의처럼 국제적이지 않습니다. 즉, 역사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민족에게 강요할 수 있는 교조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파시즘은 다양한 현대 민족 운동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근본적인 관점의 유사성이며, 현재 우리 유럽 문화가 처한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유럽의 공통된 문화적 유산을 공유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듯이, 파시스트 운동의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러한 사상에 반응할 것입니다.

이 운동을 낳은 두 가지 요인은 자유민주주의의 쇠퇴와 마르크스주의의 부상입니다.

역사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어도 자유민주주의가 필연적이거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정부 형태와 비교했을 때, 민주 정부는 보편적이거나 안정적이지 않았으며, 귀족주의나 군주제 정부만큼 인류 문화에 지속적인 가치를 기여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를 모든 용인 가능한 정부 형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종종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피트 시대의 영국을 민주주의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심각한 언어 오용이며, 지적 통용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의 모든 피지배자의 동의로 통치하는 모든 정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전체 국민의 복지를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정부, 다양한 의견을 관용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장려하는 정부, 확립되고 알려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되는 정부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민주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저히 실패했습니다. 많은 비민주주의 정부들이 이러한 미덕을 매우 높게 발휘해 왔습니다. 폭정적이지 않은 정부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정부 형태 중 하나이며, 때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중요한 문제를 전체 국민이나 대규모 대의 의회의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유럽과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이하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특별한 산물이며, 당시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의 독특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은 사상가들에게 항상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 철학의 영향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과 시민의 권리"라는 이 철학이 더 이상 ******ebook converter DEMO Watermarks*******을 지니지 않는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확신이 있고, 그에 기초한 정부 체제는 결국 사라질 운명입니다.

다른 정치 철학들처럼, 이 철학 역시 투쟁 없이는 보편적인 수용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그리고 우익(비마르크스주의) 노동당 사이에 그들의 이상이나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의 일반적 성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철학적 가정이나 공리는 무엇인가?
첫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적어도 정부에서 동등한 몫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둘째, 정부는 오직 어떤 사람도 타인의 평등한 자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J.S. 밀). 한 학생이 제게 더 강력하게 표현했듯이, "정부는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지옥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한 개인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가장 큰 만족을 가져다준다는 것입니다.
[1]

파시즘은 이 모든 원칙을 부정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대해 파시즘은 모든 사람이 협동 사업에 대한 역량 면에서 평등하지 않으며, 정부도 협동 사업이라고 반박합니다.
사람들은 용기, 공정성, 충성심, 진실성, 그리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른 자질들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어떤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반적인 의미의 교육에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질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옛 볼셰비키 지도자들의 고백을 믿는다면, 그들 모두는 그러한 자질이 부족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어떤 조직에서든 그들을 권력에서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정치적 대표성은 구성원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아는 실제 집단으로 구성된 선택적 체계에 기반해야 합니다. 좋은 정치 체계는 모든 의견이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보장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원칙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 체계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무의미하거나 재앙적일 뿐입니다.

셋째, 인간과 사회의 본질상, 최대한의 만족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체계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즉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누구도 삶의 끝을 넘어서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직업, 자신의 이웃, 자신의 국가의 복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 그래야 합니다. 좋은 정부는 이 사실을 [2] 하나" –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게으른 철학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끈질기게 싸우는 대신, 선량한 민주주의자는 다수가 어느 쪽으로 뛰어들지 관망하며, 대중의 목소리가 곧 신의 목소리라는 믿음에 안주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도처에서 쇠퇴했다는 사실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구호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옹호자들의 절반은 실제로는 소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공언하는 목표는 만인의 평등한 부이며, 민주주의는 단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은 적어도 먼 미래에는 무력 없이 투표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 자체에 대한 경멸을 자주 드러냅니다. 그들은 시기하지만,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유노동당 사회민주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와 민주당 사이의 불경스러운 동맹의 철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파시즘이 등장하는 곳이면 어디든?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공산주의, 혹은 공산당 밖에도 많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기에 더 나은 마르크스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철학의 산물이다. 역사에서 불우계층의 혁명 운동은 빈번히 일어났으며, 이 운동은 탄생한 빅토리아 시대 초기의 독특한 이념을 계승했다. 공산주의 역시 공동체를 하나의 집합체로, 사회적 행복을 하나의 총합으로 여긴다. 자유민주주의의 처음 두 원칙, 즉 신은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단순히 정치적 권리의 평등뿐 아니라 부의 평등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받아들인다 .3 다시 말해,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부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경제적 평등이 달성되면 국가는 "사라진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이러한 행복한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세 번째 원칙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한다. 경제적 평등이 달성되면 자유방임주의가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 즉 비숙련 공장 노동자의 강제적 독재를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 교리는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의 기반이 된 "잉여가치" 이론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제학자조차 이 두 가지 구분에 전 인류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집단 간에는 실제로 갈등이 존재하며, 그러한 갈등은 살아있는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현대 국가 주민의 상당수는 노동의 공동 수익과 그 노동을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울타리에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민과 시골 주민, 제조업자와 금융업자, 장인과 비숙련 노동자, 인종 집단과 종교 집단 사이의 이해 충돌은 이른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이해 충돌만큼이나 현실적이고 필수적이지 않은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계급 전쟁이며, 모든 방식이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 전쟁이 고개를 드는 곳마다 정치는 너무나 씁쓸하고 더럽혀져, 이전에 집단 간 갈등을 완화시켜 주었던 민족의 도덕적 단결감을 모두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산주의 실험을 통해 가치 있는 성과가 전혀 없었는가? 그리고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독재" 사이에는 아무런 유사점도 없는가?

러시아 공산주의의 발전을 이해하려면, 이른바 "후퇴하는 볼셰비즘"의 현재 단계와 교조주의적 공산주의가 완전히 장악했던 이전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초기 단계는 계급 전쟁 이론을 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 즉 농부, 기술자, 교사, 가축, 기계, 건물, 그리고 예술품이 전례 없이 파괴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볼셰비즘이 권력을 장악한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약 10년 후, 생산이 인간의 인내력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조해지자, 교조주의는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신용, 외국 기술자 및 기계, 그리고 스타하노프식 노동자들의 추진력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음의 변화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징후 중 하나는 코카서스 출신의 강인하고 교묘하지 않은 산적 스탈린과, 지금까지 러시아를 지배했고 현재는 거의 제거된 유대인 집단 사이의 현재 갈등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코민테른과 마르크스의 세계 혁명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는 부의 평등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암묵적으로 포기하고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듯하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민족주의 국가. 스탈린 치하에서는 일종의 부끄러운 파시즘과 죄책감이 드러나는 조짐이 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종말이었다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겠습니까! [4]

"파시즘"은 자유민주주의의 쇠퇴와 볼셰비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났습니다. 볼셰비즘과는 달리, 파시즘은 학문적 이론을 실천에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났으며, 따라서 파시즘이 대체하게 될 두 세계 운동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원래 파시즘은 무질서, 물질주의, 금권정치, 그리고 세계주의의 세력에 대한 유럽인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파시즘은 각자의 최대 자유에서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는 선천적인 조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파시즘과 공산주의의 공통점입니다. 파시즘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행복"에 관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취합니다. 파시즘은 국가를 다양한 기능 집단의 유기적 통합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각각은 국가에 대한 고유한 기여를 나타내며, 그 나름의 삶의 방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올바른 관계가 깨지면 국가에 지속적인 행복이나 건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우리는 도공들이 불 앞 소파에 누워 먹고 마시며 마음대로 물레를 돌리도록 허용함으로써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도공들은 더 이상 도공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농부들은 더 이상 농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 . .

더욱이, 버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국가를 "산 자들만의 협력 관계가 아니라, 산 자들과 죽은 자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사이의 협력 관계"로 인식합니다. 만약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인간과 자연 자원은 낭비될 수도 있고, 더 비옥해질 수도 있습니다.

각 "파시스트" 국가에서는 마치 옛날 귀족 지주가 자신의 가족과 영지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던 것처럼 국가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를 가진 운동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와 흙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다수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도시 주민의 다수가 시골 주민을 몰살시키거나, 미래의 권력을 희생하여 최대한의 현재 부를 누리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다수의 통치가 초래하는 해악, 즉 공직자의 정직성과 자립 정신의 쇠퇴, 가족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쇠퇴, 토지, 숲, 선박의 쇠퇴는 지도자들에게 폭넓은 자유와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파시즘은 국가적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강화하는 데, 즉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게으른 자와 활동적인 자, 상상력이 풍부한 노동과 일상적인 노동 사이의 평등은, 설령 먼 미래의 이상이라 할지라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파시즘은 인간의 불변하고 유익하며 생산적인 불평등을 긍정한다." (무솔리니)

자유민주주의는 기능 집단 간의 경쟁으로 마비되어 있으며, 그 존재를 무시하는 척합니다. 파시즘은 이를 인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의 제도를 구축하며, 강화된 국민적 단결과 "리더십 원칙", 즉 개인 책임의 원칙을 통해 잠재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즉 익명의 다수에 의한 통제의 원칙은 "정치 분야뿐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6]

경제 영역에서 파시즘의 목표는 일반적인 전망에 따라 모든 생산자에게 최대한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지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소비자를 위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제 무역은 국가 계획의 이익을 위해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위치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고려 사항, 즉 어떤 삶을 장려하거나 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 사항이 경제적인 고려 사항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시스트 민족주의에는 다른 국가들의 잘 알려진 이해관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파시스트 민족주의의 외교 정책은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잘 알려진 핵심 이익만을 위해 진정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파시스트 민족주의는 국제 연맹의 민주적, 평등주의적, 보편주의적 원칙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파시스트 민족주의는 잠재적 갈등 원인을 계획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기반으로, 실제로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우호적인 협력을 원합니다. 파시스트 민족주의는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원합니다. 유럽에서 파시스트 민족주의의 임무는 국제 연맹 창립자들이 파괴한 유럽 협력 체제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시즘이 개인을 국가에, 생명체를 비현실적인 추상에 완전히 종속시킨다는, 흔히 듣는 반론에 답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앞서 말한 내용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파시스트는 정부가 단순히 개별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국가 문화와 그 필수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물질적 자원의 수탁자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개인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더라도 개인은 그것을 스스로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바로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의 총체성이 개인을 석기 시대 인간과 차별화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집단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서로를 말살하는 것을 막는 정부는 우리의 충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단순한 기계 장치, 히틀러가 말했듯이, 지속적인 생물학적, 문화적 실체로 여겨지는 인민을 위한 단순한 "용기"일 뿐입니다. 파시즘은 국가가 아닙니다. 헤겔주의자들과 달리 그것은 국가 자체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는 "오론테스 강이 티베르 강으로 흘러들기 전", 즉 추상적인 개인주의와 내세에 대한 갈망이 부상하기 전의 고대 유럽 국가 형태와 유사합니다. 또한, 봉건제와도 유사합니다. 봉건제는 정부가 인간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에 기반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원시 게르만 민족의 코미타투스(comitatus)라는 사상과도 유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모든 생산자 계층의 이익을 위해 생산을 규제하려는 중세 길드의 목적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거대한 운동과 마찬가지로, 이는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낡은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 인종, 자발적 노동 조합, 소유권과 경영의 분리, 과실 없는 책임의 개념, "일방적" 문명과 대조되는 상호 작용하는 문화 등 본질적으로 현대적인 개념들과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7] 그것은 철저히 현대적이며 우리 시대의 산물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라는 그다지 입맛에 맞지 않는 대안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안이 있습니다.

---

[1] M. Haldv가 지적했듯이, 이 세 번째 공리는 두 가지 형태를 띤다. 하나는 사회의 법과 제도가 어떠하든 최대의 사회적 만족은 자동적으로 최대의 개인적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최대의 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일관되게 집착하지는 않지만, 목적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인의 자유는 가능한 한 적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 할레비 : 철학적 급진주의의 성장)

[2] J.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폴렛: 새로운 국가, 27쪽.

[3] 아리스토텔레스와 대조해 보세요. 정치학 III, 9, 12: 정의란 동등한 자에게는 동등한 대우를, 동등하지 않은 자에게는 동등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한 가지 요소나 다른 요소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훌륭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판단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스탈린은 러시아의 "구 볼셰비키" 유대인 지도자들과는 매우 다른 유형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러시아 혁명이 낳은 위대한 인물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스탈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지 못한다.
시아버지인 라자루스 모이세이비치 카가노비치는 이 주에서 두 번째 인물인 듯합니다.

[5] 플라톤: 420e년 9월. 버크: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

[6] Miller와 Campbell: Liverpool University의 두 경제학자가 수행한 최근 연구인 금융 민주주의
영국의 산업 회사.

[7] A. 토인비: 역사 연구. 제1권, 149쪽.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JFC 풀러 소장의 스페인 전쟁

시간 군인이나 기자로서 남아프리카 전쟁, 세계대전, 이탈리아-아비시니아 전쟁, 그리고 현재의 스페인 전쟁 등 4개의 전쟁에 참전한 저는 각 전쟁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원인들이 전쟁의 형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 전쟁들 중 마지막 전쟁의 경우, 그 원인은 정치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확하게 정의되었지만 양립할 수 없는 견해를 가진 두 정부 체제 간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결코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이 전쟁의 원인은 표면을 덮고 있는 정치적 거품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사건을 문화 간의 충돌이자 정치 이론과 군대 간의 충돌로 보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역사 속 반동적인 스페인, 즉 정체된 교회, 나약한 귀족, 그리고 쇠퇴하는 부르주아 계급. 둘째, 혁명적 스페인, 즉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대표하는 이러한 무기력함에 대한 반동. 이들은 마르크스, 바쿠닌, 트로츠키 등 외국에서 이상을 차용해 왔다. 셋째, 미래의 가상 스페인. 군사 독재자에 불과했던 프리모 데 리베라가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 전 적색 정부에 의해 암살당한 그의 아들 호세 안토니오가 꿈꾸었던 것이다.

1933년, 이 젊은이는 스페인 파시스트 운동을 실제로 창설하지는 않았지만, 팔랑헤 에스파뇰라 데 라스 존스(Juntas Offensivas Nadonal Sindicalista, 활동적인 민족 생디칼리스트 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조직에 생명과 형태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 조직의 헌장을 27개 조항으로 구성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요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반. 스페인은 모든 스페인 국민의 최고 현실입니다. 모든 분리주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통일이 목표이며, 이 통일은 국제적 고립이나 외국의 중재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미덕을 심어주고 강력한 군대와 함대를 창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토대. 국가는 모든 정당이 폐지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조합 제도가 의회제를 대체해야 한다. 정치적 규율이 요구되지만, 국민생디칼리즘 국가의 공동 이익과 양립하는 한 개인의 주도권은 필수적이다.

경제적 토대. "국민의 필요를 무시하고, 사유재산을 비인간화하며, 노동자들을 비참과 절망에 노출된 무형의 대중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는 거부됩니다. 마르크스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자가 더 이상 약자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유재산과 노동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족 경영을 확립하여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목축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도덕적 토대. 국가의 토대는 단결, 규율, 그리고 군사 훈련입니다.
교육은 "경제적 여건의 부족으로 재능을 잃지 않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 정치에서 벗어난 가톨릭 정신이 반영되어야 하며, 삶은 "숭고한 봉사와 희생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로 여겨져야 합니다.

스페인 전쟁

영국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과는 달리, 이 운동은 작년 7월 반란 발발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초기 단계였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이 운동의 성장세는 놀라웠습니다. 오늘날 이 운동의 구성원과 지지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며, 그중 18만 명이 민병대에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이 운동이 현재 일간지 19개와 주간지 30개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프랑코 장군의 목표는 다소 모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반란, 아니, 무정부 상태에 대한 질서에 대한 반란이었다. 생명과 재산이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고 교회는 매일 약탈당하거나 불태워졌다. 그의 목표는 거의 전적으로 군사적 목적, 즉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형태의 정부를 위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그의 승리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프리모 데 리베라 유형의 군사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을 것이다.

스페인에 상륙하자마자 그는 완전한 혼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지를 구하는 파벌들 사이에서 단결과 목표의식이 전혀 결여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악시온 포퓰라(Acion Popular) 또는 질 로블레스당(Gil Robles Party)은 열렬한 가톨릭 신자였고 기독교 사회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명확한 정책이 없었고 정치적으로 모호했으며 교회의 도구였습니다. 또한 "신, 국가, 그리고 왕"을 모토로 삼는 레케테스(Requetes) 또는 카를리스트(Carlist)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주권과 기업 국가를 신봉했고, 의회주의에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 외에도 군주제 지지파와 다른 파벌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파벌은 팔랑헤당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다양한 정당과 운동을 흡수해야 했습니다.

당분간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공고화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등이 뒤섞인 그들의 유일한 적이었던 스페인은 독일과 그 동맹국인 이탈리아 쪽으로 마음이 끌리는데, 이는 프랑스가 러시아와 그 준동맹국인 영국 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1년 전 이탈리아-아비시니아 분쟁 당시처럼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 독일을 상대로 또다시 비밀스러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내부 갈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불간섭"입니다. 실제로는 부르고스에 협조하지 않고, 독일을 공격하기 위해 프랑스가 발렌시아에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페인에 대한 국제적 "봉쇄"가 공정했다면 민족주의의 대의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정직함은 현대 프랑스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전시에는 진실을 확인하기가 항상 가장 어렵지만, 프랑스의 적군 지원이 과도하고 수익성이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지원은 금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스페인 어디를 가든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적군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이 러시아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이후 프랑스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 3만에서 4만 명의 적군 국제 전투원을 파견했고, 이러한 밀입국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보르도에서만 스페인 여권을 인쇄했고, "전문" 노동자들이 적군 스페인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전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수많은 국제 노동자들이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국경을 넘어 귀환한 난민으로 이송되거나, 화물선의 일원으로 카탈루냐 항구로 보내진다. 군수품은 안도라를 거쳐 보내지고, 매일 석유를 실은 트럭이 국경을 넘나든다. 프랑스에는 레드 항공 학교가 있고, 무기는 빌바오로 밀수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국민 스페인이 승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프랑코의 정책은 창의적인 반면, 적군의 정책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프랑코 장군의 연설

1936년 10월 1일 방송, 국가원수 권한 인수에 관하여

G 집에서 전쟁 소식을 듣고 계시거나, 전선에서 집을 생각하시고 계시거나, 붉은색 지역에서 우리 군대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시거나, 국경 너머에서 우리의 운명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라디오 카스티야 마이크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쟁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정한 국가적 의무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작업에 대해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토피아에 대해 논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희망이 성취되는 과정을 엄격한 단계로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에서 유익을 얻고, 우리의 결정을 유용하게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온 영혼을 다해 부르고 있는 스페인은 오랜 세월 수많은 병폐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것은 불균형적인 지식인들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 사상가들의 위상을 떨어뜨리려 했고, 다른 나라에서 뿌리내리고 있던 온갖 이국적이고 파괴적인 사상들을 우리 국경 너머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학, 선동적인 교리, 혹독한 인종주의, 패배주의 사상의 침투, 그리고 역사 왜곡 등 이 모든 것과 그 외의 많은 것들이 우리 애국심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민족의 핵심적 특징을 잃고, 현재를 부끄러워하며, 과거를 잊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도덕적 몰락을 초래한 이들에게 나라를 경매에 붙여 최고가 입찰자에게 파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무역은 대변이 아닌 차변 잔액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땅의 수확물은 마치 정복당한 식민지의 수확물처럼 취급되었습니다. 한편, 잠재적인 구원자의 칼날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이비 평화주의가 장려되었습니다. 증오와 계급 투쟁을 조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여 농민에게는 땅을, 노동자에게는 독재를, 그리고 우리 지방에는 자치권을 약속했습니다.

완전히 냉소적인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았더라면 농민에게서 땅을, 노동자에게서 자유를, 지방에서 자율적 유연성에 대한 모든 희망을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새로운 스페인은 그 과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적 협력의 정신으로 법과 질서의 재건이 자유로 가는 우선 조건이자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혜택은 모국 안팎에서 모든 국민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스페인은 대체로 전체주의적 개념 하에 조직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토착 제도는 국가의 국적, 통일성, 그리고 연속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권위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정권이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체제는 국가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가 표현되는 위계적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스페인 각 지방의 개성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오랜 국가적 전통에 따라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는 항상 국가적 단결에 기여해야 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스페인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공 생활에서 하나의 단위로서 고대부터 기능해 왔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거권을 폐지하고, 그것이 지역적, 국가적으로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과 노동조합과 정치적 이익을 통한 억압을 철폐한 후, 국가의 요구와 이상이 가장 잘 발전할 수 있는 기술적, 기업적 기관을 통해 국민의 의지가 표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스페인 국가의 힘이 커짐에 따라 분권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각 지방, 지방자치단체, 협회, 개인은 국가의 최고 이익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노동은 상호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혹하고 투쟁적인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임금 보장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된 모든 임금 인상분도 유지될 것입니다. 이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그는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 요소들과 충실히 협력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스페인 국민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는
기생충을 허용합니다.

국가는 가톨릭 교회에 합당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여 우리의 전통과 대다수 스페인 국민의 신앙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외부 세력이 정부의 특정 기능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입에 관하여 국가는 세금의 공정한 분배를 조직하고 이를 보장한다.
그 짐은 그것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어깨에 떨어진다.

농업과 관련하여, 가족 소유는 토지에 경작자를 정착시킴으로써 실현될 것이며, 어떤 가상적인 소유 제도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현될 것입니다. 그 지원의 목적은 농민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의 항구적인 특징은 이러한 목적을 지향할 것입니다. 농업 노동자는 도시가 오늘날 상업 및 사무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흡수하는 것의 일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민족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전 세계와 폭넓은 우호의 지평을 열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단호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류와 문명에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과는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영웅과 순교자의 땅인 이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역사의 또 다른 영광스러운 페이지를 쓰고, 동쪽이나 서쪽에서 유래하지 않는, 진정한 스페인식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이여, 스페인이여 오래 살자!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에즈라 파운드의 경제적 정립을 향하여

디소위 정통 경제학 의 본질 , 즉 그것을 진지한 탐구로 여겨야 할지, 아니면 범죄적이고 오도하는 가짜로 여겨야 할지에 대한 OUBT(경제학계의 OUBT)는 오늘날 적어도 50년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 경제학을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순진한 사람, 눈먼 사람, 그리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출세주의자들뿐일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에 보이고 흔한 현상을 알아내는 데 15년이 걸릴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패배주의이며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지난 세기 중반에는 항공학과 무선 통신이 아직 과학이라고 불릴 수 없었습니다. (1864년 말 루미스라는 사람이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 한 배에서 다른 배로 전기 신호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지만 말입니다.)

오늘날 진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제학에서 과학(지식의 영역, 즉 episteme)인 부분과 기술(너무나 자주 사기)인 부분인 techne 또는 기술 분야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선박을 조종하는 기술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해술은 이미 존재하며,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선박의 나침반부터 자이로스코프까지 말입니다.

경제학 연구가 실제로 경험주의자들, 즉 진지한 용어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학 논문에 혼란이 만연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생생한 경제 과학을 구축한 앵글로색슨 세계의 진지하고 정직한 저술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소디; 인도 웨스팅하우스 사장이자 엔지니어인 더글러스; 도로 엔지니어인 라라나가; 더글러스에 의해 개종한 언론인인 오라지; 키트슨 램프를 발명한 키트슨; 사업가인 게젤; 등등. 모두 실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달을 발견했다고 말해도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들은 진짜 달을 재발견한 반면, 교수들은 무대 장치로 만든 달을 가지고 유치한 장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술사들은 오직 자기 부스 안에서만 관객을 속일 수 있습니다.

소위 정통 경제학의 창시자들의 사고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리카도의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물론 그가 지폐의 가치를 인식했다는 사실을 눈감지 않고 말입니다). "생산에 더 많거나 적은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상품은 없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닭장에 가본 적이 없고, 계란은 그의 경제 시스템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영양가(생명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계란은 물가 지수보다 앞섰습니다. 자연 현상을 직접 관찰하는 일반인은 로그와 은행 신화로 머리를 채우는 것보다 실수를 덜 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계란의 가치는 배고픔과 포만감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모호하고 복잡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남겼습니다. 바로 'Xpeia', 유용성, 바람직성을 뜻하는 단어인데, 케임브리지 출신인 래컴은 이를 '수요'로 번역했습니다. 그 주학자는 우리에게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옳았지만, 화폐 단위의 가치는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를 과학 용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서 경제학에 관한 500개의 허위 논문을 찾아보아도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데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이며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담은 유클리드 표로 시작하는 논문은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잘못 정의했거나, 아예 정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정의 없이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20세기 동안 이러한 반쯤 모호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정의를 제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학회나 의회, 또는 더 나아가 진지하고 권위 있는 전문가 집단이 이 사전 편찬 작업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정의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조되지 않은 금은 화폐가 아니다. 화폐용 금을 다른 상품과 교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물물교환이다. 즉, 미리 무게와 치수가 측정된 금속을 특정 수량의 상품이나 특정 무게의 상품과 교환하는 것이다.

돈의 본질적인 특성은 측정 가능하고 측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금속 원반을 재화와 교환할 때조차도, 그 원반이 화폐인지 아닌지는 국가의 각인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정부도 "킬로미터가 없으니 도로를 건설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정부만큼이나 어처구니없을 것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돈은 측정된 권리입니다." 돈은 권리 또는 측정된 권리입니다. "돈은 일반적인 권리입니다." 돈은 구체적이지 않은 권리입니다(철도표, 여관 수표, 운송, 식량, 객실 등에 대한 권리가 담긴 증기선 표처럼). 돈은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돈은 교환 가능합니다. 즉, 절차 없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습니다. 국가 채권, 철도 채권, 또는 "익명 협회" 채권처럼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신용"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믿고, 지불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질 때 신용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채"는 "신용"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실 신용은 종종 빚을 지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항상 이미 만들어진 빚의 반대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호한 용어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통적인 허위 주장의 반쪽짜리 진실 중 일부는 자연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에 기반합니다. 소위 인플레이션은 우선 진정한 인플레이션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인플레이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응하여" 또는 원하는 양을 초과하여 화폐가 발행될 때 발생합니다. 화폐는 전달되거나 조달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응하여"(즉, 유사 대응하여) 발행될 때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917년에 폭발한 포탄에 "대응하여"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며, 화폐 자체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도 포탄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효한 정의를 간략하게 나열하면 일반인은 거대 고리대금업자와 독점기업의 사기와 완전히 저주받고 부패한 배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돈 에 대한 정의, 혹은 오히려 진지하고 공정한 개념을 가지고 , Soddy는 많은 난해한 책(독자에게는 난해하지만, Soddy 교수에게는 매우 심오하고 소중한 책)을 출판한 후 Tomorrow's Money 에 이렇게 썼습니다 . "개인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은행이 모든 헌법적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속임수로 그 기능을 찬탈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의회의 허가 없이, 아무런 권한 없이 지역 사회의 재산에 강제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의 상황과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상황을 구분해 봅시다. 과다한 부가 위기를 초래하는 나라와 특정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나라를 구분해 봅시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지식이나 의식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신경제"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경제 사상에는 네 가지 생생한 흐름이 있습니다. (1) 더글러스주의 (2) 게젤주의 (3) S. 암브로시우스에서 유래하고 S. 안토니노와 함께 발전한 정식 경제 (4)
개선 정책(늪 배수 등), 곡물 전쟁, 저축, 가족 수표, 식량 수표, 근로자 수표, 국가 통제, 축적 등을 갖춘 기업 경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정설 경제학은 소위 정설에 의해 가려진 몇 가지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건의 내구성은 서로 다릅니다. 의자, 치즈, 페이디아스, 프락시텔레스, 보티첼리의 작품들은 각기 다른 내구성을 지닙니다. 원시인은 하나의 도구를 사용했지만, 문명인은 열두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경제학이라는 과학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 진지한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경험주의자라 할지라도, 활동에서 단 하나의 발견을 했을지라도, 그리고 그 발견을 역사와 조화시키지 않고, 다른 학파나 다른 시대, 다른 경제 종파의 정당하고 타당한 사상과 조화시키지 않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증기가 주전자 뚜껑을 들어 올리는 힘을 누구가 관찰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리자. 이는 발명가가 백과사전이나 방대한 물리학 논문을 출판하지 않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이다.

CH 더글러스가 산업 시스템(그리고 그 시스템 내부)에서 배분되는 구매력의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았다는 점을 인정해 봅시다. 그의 공장은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을 창출하는 것보다 구매력을 더 느리게 배분했습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배분된 구매력보다 더 많은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타인의 굶주림으로 연명하는 범죄자, 바보, 독점자는 사람을 겉옷에 따라 평가하고 싶어 한다. 더글러스는 대신 사람들이 공급하고 원하는 상품의 양에 상응하는 구매력을 부여할 가능성을 보았다. 새로운 것은 거의 없고 정직한 것이 많았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흄은 번영이 특정 국가의 화폐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증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증가는 느리고 일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자.

유용한 저술가들 가운데 맥네어 윌슨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불 약속만 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도록 교육했다. (지불 약속) 게젤은 자유로운 교환의 관점에서 중세 주교들의 브락테아테스를 다시금 환기시켰다 .

그는 체납금(매달 지폐에 부착해야 하는 인지세로, 지폐의 공표 가치를 유지함)을 통해 유통 속도를 촉진하고자 했으며, 뵈르글의 운터구겐베르거 시장은 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시연했습니다.

Gesell은 그의 보석 같은 문구로 Marx의 죽은 부분을 파괴했습니다. "Marx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돈." 즉, 마르크스는 돈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적도 없고, 분석한 적도 없습니다.

게젤 시스템의 장점은 적어도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즉 정부와 국민(고용주나 고용인을 포함한 모든 생산자 포함)을 은행과 고리대금업자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러나 순수한 행정가 중 누구도 국가와 기업의 관점에서 체납금을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지폐 가치의 1%에 비례하는 우표가 매달 추가되므로 8억 루피를 발행하면 국가는 연간 10억 루피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징수를 위한 지출은 사실상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관료의 간섭이나 조작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루즈벨트처럼 국채로 (천문학적 빚을) 쌓아 올리는 대신, 모든 국가 부채, 국가 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100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대신 탕감될 것입니다. (영국인들은 아직도 워털루 전투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채는 노후와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축 수단으로 계속 민간에서 보유될 수 있지만, 정부가 신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필수품이 아니라, 훌륭한 시민 계층에 대한 국가 배당금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가는 신용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거의 모든 나라에서 무지와 선입견으로 인해 거대한 전문적 고리대금업자에게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행한 제 나라에서,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처한 프랑스에서, 세계의 새로운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진 전통의 힘으로 영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험주의자와 발명가에 이어 두 번째 세대의 사회적 채권자는 부차트(Butchart)를 배출했는데, 그는 AR 오라지(A.R. Orage)의 영향을 받아 최초의 경제학 정본(正本) 『 화폐(Money)』를 출간했습니다. 두 번째 책 『 내일의 화폐(To-morrow's Money) 』에서는 부차트의 성공은 미미했습니다. 그는 의견이 다른 일곱 명의 저술가들을 모았는데, 모두 칭찬할 만한 인물들이었지만, 각 저자들이 서로의 글을 읽고 서로 연관시키도록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 책은 주로 더글러스의 저작 중 일부를 재수록하고, 이 글에서 이미 인용된 소디의 한 페이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인기 작가들 중에서는 어빙 피셔와 크리스토퍼 홀리스를 언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구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셔는 (공식적으로는 교수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자인) 저널리스트이며 글을 잘 쓴다는 것입니다.
그의 우표집 40페이지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진지한 사람들의 주의를 끌 만합니다.
피셔는 이 싸움에 그다지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미국의 거대 고리대금업자들이 마지막 한 조각과 그램을 샤일록으로 팔아 치우는 대신 반 파운드의 살로 만족하도록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홀리스는 매우 가치 있는 책인 《두 나라》를 썼고, 다양한 책에서 대중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왔으며, 그의 책들은 즐거운 터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그는 화폐 과학과 다양한 고리대금 문제를 다루는 데 성공하여 책이 팔리고 3판에까지 이르게 된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이러한 단계는 대중 교육에 속하며, 소위 "다수" 정부가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충분히 필요하다.

윈덤 루이스는 영국 정부를 가짜 골동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주로 문필가이자 풍자 작가였지만, 최근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높은 사회학적 가치를 지닌 책을 기고했습니다. 바로 『 카운트 유어 데드, 리 아 라이브 (Count Your Dead, They Are Alive)』(아무것도 아닌 또 다른 세계대전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책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현존하는 일류 작가들의 작품에 어떤 리듬으로 스며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날 미국 최고의 시인 네 명은 (더 이상 과거의 "핑크" 웹바이트, 페이비언, 맨체스터, 빌라르디안과 같은 시인들과는 달리) 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테, 셰익스피어, 아리스토텔레스, 흄, 버클리, 몽테스키외 등의 위대한 작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러한 사상을 지향하는 또 다른 사상의 흐름은 북미 공화국의 토대를 다진 사람들의 저서, 즉 제퍼슨, 잭슨, 밴 뷰런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퍼슨 과 무솔리니, 그리고 W.L. 우드워드의 저서 『새로운 미국사 』, 코플린 신부와 벅의 논문,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코플린의 저서 『 돈』 (211-213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영국 및 미국 평론을 읽어야 할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들 국가의 지적 활동은 2~3년(혹은 그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만 지속되다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일종의 문학적 또는 이념적 관료주의로 전락하여 보호색을 띠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상에 안주하는 덧없는 출판물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 파시스트들이 1년 전, 매우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적 정기 간행물인 『파시스트 분기별』(The Fascist Quarterly)을 창간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내가 다른 기고자들의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영어 평론으로, 풀러 장군, 조이스, 윈덤 루이스, A.K. 체스터턴, J. 젠크스가 그 예이다.

휴고 팩은 게셀리의 저서 '자연스러운 경제 질서'를 자신의 비용으로 텍사스에서 출판하는 큰 공로를 세웠 는데, 당시 대형 출판사들은 그런 출판이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뢰브의 '풍요의 차트'가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작은 신문 '출구'에 '희소성 경제학'에서 남은 아이디어를 담았습니다(오돈 포어의 '리비스타 델 라보로', 1936년 3월호 개정 참조).

이러한 자유주의 종파에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젤리스트들의 출판물이나 더글러스주의의 공식 출판물 모두 경제 사상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퇴폐적인 홍합잡이처럼 최면에 걸려 경직된 듯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더글러스는 체선료에 부과되는 인지세가 억압적인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모없고 영구적이지만, 더글러스 신용의 "취소"나 할인 및 발급된 신용을 취소하는 다른 수단보다는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게젤리스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의 업적과 과학적 발견으로부터 인류 전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의 가학적으로 격분합니다. (가치는 노동에서 나오지만, 그 열매를 먹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닌 우리 조상들이 엄청난 양의 노동을 해왔습니다.)

무화과 나무 (더글러스파)는 비더글러스파가 게젤파나 기업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뉴잉글리시 위클리는 영국 교외의 기질에 잠겨 있어 구체적이고 정의된 이념보다는 그 창백한 삶에 의해 변색되어 있습니다. 뉴욕의 신민주주의는 유용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코플린은 입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주간지를 통해 대중 교육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 하지만 15년 6월에 저는 그의 신문에서 다른 곳에서는 인쇄되지 않았거나 스캔들과 위장의 칼럼 사이에 몇 줄만 실린 뉴스를 발견했습니다.일반적인 성격의 정기 간행물 Press의 편집자로부터 저는 종종 다음과 같은 초대를 받습니다. 경제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 쓸 수 없습니까?

진지한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이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경제학자들에게 정확한 용어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거의 간청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러 필자의 작품 중에서 단편적이지만 진지한 내용을 간략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사전 편찬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된 기술자들로 구성된 핵심을 찾을 수 있다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건전한 윤리 없이는 건전하고 과학적인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말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경제학. 통화 정책의 목적과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역동성만 고려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의지의 방향은 경제학 연구의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돌리오는 "우리의 금은 우리 군인들의 의지와 무기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런던의 모든 교수들보다 더 경제학자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A. Raven Thomson 의 경기 침체의 원인

나 파시스트 쿼털리(Fascist Quarterly) 와 브리티시 유니언 쿼털리(British Union Quarterly) 에 다가올 대공황에 대해 여러 차례 기고했습니다 . 대공황은 구식 갱단 경제학자들이 부추긴 단기간의 회복 호황에 이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본주의가 건국된 이래 지난 100년 동안 호황과 불황의 경기 순환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평균 9년의 규칙적인 주기를 보이며 때로는 7년으로 줄거나 11년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다음 위기의 해는 1938년이었어야 했지만, 대공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1939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기가 평소보다 1년 일찍 촉발되었고, 다음 불황은 이미 193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번영"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신했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조차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기 별 마지막 호에서야 재무장과 저금리가 다가올 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과도한 투기가 조기 호황을 초래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재무장의 추진력이 1938년 가을까지는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축적된 군비를 소모하기 위한 전쟁만이 불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금융가들이 불황의 대안으로 고의로 전쟁을 모색하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사실 저는 금융 민주주의가 위축되는 세상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미국에 대규모 재무장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새로운 불황은 지난번 불황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재무장 이익을 아무리 부추겨도 스로그모튼 스트리트가 월가의 주가 폭락에 반응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1907년의 경우처럼 이번 조기 불황은 그 강도가 약하여 이후의 더 심각한 침체보다 자본주의 안정에 미치는 타격이 작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전적인 자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우리를 전쟁으로 몰아넣기 전에 불황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대중의 관심은 외교 문제에서 긴급한 국내 문제로 돌아올 것이고, 국제 분쟁의 위험은 줄어들 것입니다. 불황을 예방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의 위험은 이미 사라지고 있습니다.

월가의 공황

언론이 은폐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공황은 1929년 가을만큼이나 이번 가을에도 심각했습니다. 자본재 생산을 위한 철강 수요 감소가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며, US Steel을 비롯한 철강 기업들이 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올해 초 US Steel의 주가는 100달러에 129.25달러였습니다. 4월 금값 폭락 이후에도 주가는 1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9월의 꾸준한 하락세는 US Steel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철강 가격은 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불황이 찾아왔고, 가격은 연일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하락했습니다.
철강 가격은 70달러대에서 6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짧은 반등 후, "검은 화요일" 공황 매도로 가격이 5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 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US Steel 가격은 65달러대로 돌아왔지만, 11월에는 철강 생산량 감소에 대한 새로운 보고가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5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생산량은 생산 능력의 50% 미만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주식 시장의 "불안감"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월가의 침체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소비재 수요는 아직은 잘 유지되고 있을지 몰라도, 자본재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잉 생산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잠재적인 문제이며, 기업들은 공장 증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강이 점차 비중 있게 진입하고 있는 자본재 생산업체들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철강 주가 폭락은 단순한 시장 조작이 아니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루즈벨트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피츠버그와 같은 철강 도시에서는 실업률이 이미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소비재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는 더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번 불황에서 제대로 회복하기도 전에 다시 한번 고전적인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개입한다면, 그는 아직은 주저하는 듯 보이지만, 1929년부터 1932년까지 후버 대통령이 애썼던 것처럼, 그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1933년처럼 미국을 세계 전반의 회복 흐름에 편입시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대통령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통화 조작, 공공 사업 등은 위기를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루즈벨트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대한 국가 구매를 통해서만 도울 수 있는데, 이는 미국 산업의 대부분을 정부 소유로 만들 정도로 집약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산업 국가 통제라는 파시스트적 대안을 실행할 힘이 없고, 그의 뉴딜 정책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신뢰를 잃고 대부분 파괴되었기 때문에, 국가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공산주의적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유대인 고문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유대인의 통제가 최우선시되는 두 거대 유물주의 공화국으로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반응

증권거래소 붕괴의 온갖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당 정치인들은 다가올 "경기 침체"(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든 단어)의 조짐은 없으며, 영국은 미국과 같은 경제 위기에 시달리지 않고 있으며, 재무장이 우리를 이겨낼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금융 민주주의 국가는 국제 금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월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계의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1929년이나 1937년이나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3자 협정을 통한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구 패거리" 정당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미국과의 더욱 긴밀한 무역 관계를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책략은 마치 수영 선수가 물에 빠진 사람을 의도적으로 껴안는 것만큼이나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유대계 미국 금융을 구제하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겠지만, 영국이 새로운 대공황의 파도에 가라앉지 않도록 구하고 싶다면 나쁜 일입니다.

재무장은 우리를 불황에서 구해 주기는커녕,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투기꾼들은 재무장과 전쟁의 가능성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이익 기회를 포착했고, 매우 싼 돈을 이용하여 재무장하는 국가들이 필요로 하거나 전시에 부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온갖 종류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상품, 특히 금속의 가격은 18개월 이내에 100%에 달하는 금액으로 상승했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투기적 붐이 일어났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평화의 기간은 실제로 지난 전쟁의 가장 힘든 시기에만 능가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투기꾼들은 너무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좌파 호전주의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상했던 전쟁은 스페인과 중국으로 국한되었고, 상품을 매점하려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들은 더 수익성 있는 가격 수준에 매료되어 생산 재개에 곧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현대 산업의 엄청난 생산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고, 높은 가격 덕분에 생산된 상품의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현재 소비에 비해 과잉 생산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자극은 거의 없습니다. 전례 없는 가격 상승이라는 엄청난 자극은 투기꾼들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무역마저 완전히 마비시켰고, 재무장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황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생산량 감축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축이 실업과 그에 따른 구매력 부족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독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미 8월보다 실업자가 8만 명 더 늘었습니다.

근본 원인

재무장과 전쟁 공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외적인 증상의 이면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산업 생산과 일반 대중 소비 간의 만성적인 불균형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불균형이 존재하는 한, 우리 경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이는 금융 자본주의의 반복적인 호황과 불황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과학이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노동조합주의가 금융 기업들의 저항에 맞서 노동자 임금을 더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모슬리가 지적했듯이 자본주의가 쇠퇴함에 따라 호황은 점점 더 짧아지고 불황은 점점 더 길어집니다.

모든 불황과 마찬가지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대중의 구매력 부족이며, 이번 위기는 전례 없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일찍 촉발되었습니다. 이는 생산 과잉을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 상승에 발맞추지 못하는 임금으로 인해 대중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경기 침체는 "구세대"들이 믿는 것처럼 경제 성장과 임금 삭감이 아니라, 공공사업과 건설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서만 영구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와 국민이 현대 산업의 생산물을 서로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재무장을 통해 비정상적인 속도로 생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조차도 최근 상품 가격 상승으로 빈곤해진 대다수 국민의 구매력 부족을 결코 상쇄하지 못합니다.

치료법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해결책은 통화 개혁과 경제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논거를 잃었습니다. 1937년에도 화폐는 1929년에 비쌌던 것처럼 싸졌지만, 경기 침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통화 문제는 소비와 생산의 경제적 부조화라는 주요 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이며, 화폐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형태의 통화 이론도 소용없습니다. 사회 신용은 이러한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려할 가치가 있지만, 사회 신용 지지자들은 현재의 금융 독재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극도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앨버타 사회 신용 정부가 은행, 심지어 언론까지 통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경제 계획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다시 한번 권위가 요구되며, 이 권위가 어떻게 그 명칭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PEP의 이스라엘 모세스 시프처럼 산업과 유통의 결합을 지지하는 금융가들에 따르면, 계획 권위는 자본주의적 매수와 합병을 통해 획득됩니다. 사실상 매수를 통한 계획입니다 . 생산, 유통, 교환 수단의 국유화를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따르면, 계획 권위는 공무원에 의한 국가 몰수를 통해 획득됩니다. 이 경우에는 몰수를 통한 계획입니다 .

영국 연합은 계획 권한을 획득하는 덜 물질적인 수단을 선호합니다. 이는 매우 유사한 자본주의적 매수나 국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 몰수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민간 기업과 공공 기업 모두에 경제 계획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즉, 동의에 의한 계획입니다. 국가 권한과 사유재산이 대체로 자치적인 경제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방식은 이미 출판된 기업 국가에 관한 여러 저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국가는 산업 생산물을 국민에게 분배하기 위해 존재하며, 금융은 이러한 주요 목표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생산물의 공정한 몫을 생산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모든 투기와 자본에 대한 과도한 수익은 금지됩니다.

추가 침체로부터의 절연

기업 국가는 자본재와 소비재 생산의 균형을 이루어 투기적 투자의 불안정성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현대 과학의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 유입되는 값싼 외국 노동력에 의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절연 제국 정책'을 도입하여 제국 시장을 국내 시장과 제국 산업에 할당하고, 자치령과 식민지에 원자재에 대한 국내 시장 수요의 완전히 보호된 몫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만 우리 경제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실행될 수 있으며, 오직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현재 위협받고 있는 끔찍한 불황의 재발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월가의 공황이 다시는 영국 산업을 불황에 빠뜨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이 그랬듯이, 자본주의 세계의 광기 어린 변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요인도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갑자기 망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립된 제국 내의 기업 국가라는 영국 연방 정책만이 호황과 불황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대 과학 발명의 결실을 영국 국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에즈라 파운드에 의해 배신당한 혁명

The 배신당한 혁명은 기본적으로 1776년의 "우리" 미국 혁명이며, 지역적이고 특정한 단계에 따른 것이 아니며, 영국 인종의 전혀 불필요한 분열도 아닙니다.

그 분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든 그렇지 않든, 그 분리는 전적으로 불필요했고, 상당 부분 비자발적이었습니다. 영국에는 분명 아무런 이득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크롬웰이 들여보낸 전당포들이 당신 나라에 입힌 첫 번째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19세기는 라 투르 뒤 팽이 불렀던 바로 그 시대였고, 모라스와 프랑스 왕당파 광대들이 라 투르 뒤 팽이 불렀던 바로 그 시대였다. 그 시대는 고리대금의 세기였고, 부패의 세기였다. 용어의 배반, 단어의 의미를 망치고 더럽히는 시대라는 점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저속한 세기였다.

배신당한 혁명이란 조 스탈린이나 어떤 한 정부의 한두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1~2년 안에 배신당한 혁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혁명은 토스카나의 레오폴딘 개혁에서 태어난 혁명이었고, 앤디 잭슨과 마틴 밴 뷰런의 승리(너무나 덧없었지만)로 정점을 이룬 제퍼슨적 과정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 이전에 레오폴딘 개혁은 자급자족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했고, 국가의 곡물은 주로 국가(모든 시민)가 먹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혁명은 댄 웹스터, 비들, 모건, 바룩과 같은 여러 세대의 위장술사들, 트로츠키, 월리스, 퍼킨스와 같은 루즈벨트의 두 무리의 고문들, 모겐소와 같은 유기체들, 고리대금에 대한 선입견에 요람에서부터 젖어 있던 사람들, 푼푼이 아리오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명백히 배신당했습니다.

나는 이 용어를 고집한다. 셈족의 독은 셈족의 불안정성에 의해 완화된 셈족에 있다.
셈족은 과잉에서 과잉으로 흔들렸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그를 정체되고 마비된 사고방식을 가진 종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그러나 루즈벨트의 흉측하고 위험하며 파괴적인 모든 무리 가운데, 1년 에 2,500달러를 번 돈으로 풍요의 경제를 향해 가장 먼저 발걸음을 내딛은 사람은 유대인 M. 에제키엘이었습니다 .

이 책은 불쾌하고, 셈족 특유의 글처럼 회피적이며, 진짜 돈 문제는 회피합니다. 유대인의 타협으로, J. Simonic처럼 순조로운 거래와 전반적인 평화를 바라는 욕망이 가득하지만, 월리스나 퍼킨스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반유대주의자라면 모르드개 에제키엘이 타협하려 하는 사실들이 (헤밍웨이의 건방진) 스포츠맨 로브가 이끄는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인종 전체가 그 구성원의 죄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뉴욕에 있는 2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방하는 것은 유대인의 자금이 미국에서 영국 인종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윈덤 루이스 동지가 유대인이 영국을 잘 통치한다고 말했더라도, 유대인은 미국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대인 금융가가 우리의 최악의 악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악은 더러운 노선을 고수하고, 유대인들이 갖는 연민이나 흥분, 사치스러운 과시에 대한 욕구 없이, 일탈이나 변화의 그림자도 없이 그것을 고수하는 아리요-키케입니다.

한 민족이 최악의 개인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법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이야기에서, 사실로 받아들이든 허구로 받아들이든, 예수의 처형은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법 집행은 로마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반유대주의자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반유대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실을 수집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조직력 부족과 거부로 인해 반유대주의를 스스로 가져왔습니다.
책임을 맡다.

유대인이 계몽된 민족들 사이에서 이웃처럼 살고 싶다면, 유대교 율법을 어기는 덜 유쾌한 자들의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유대인은 2천 년 동안 이를 전혀 꺼려 왔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자기 나라가 통치하거나 정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구에서는 그렇습니다. 브라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더러운 검둥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하며, 유교가 아닌 일부 중국의 후예들도 그럴 것입니다.

루즈벨트 내각에는 두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뉴욕의 고리대금업이 런던의 모든 고리대금업과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바젤과 파리의 하수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퍼킨스 가문의 아리요-키케적인 비열함과 인색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둥근 머리"의 비열함이며, 둥근 머리의 고집, 즉 인색함이라는 거짓된 도덕관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시기심에서 비롯되었을 테지만, 어쨌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1937년 11월 뉴욕 트리뷴이 루즈벨트에게 경기 침체를 끝내라고 조언한 것으로 언급 한 "12명의 경제학자"는 무지에서 비롯된 조언이든 순전히 악의에서 비롯된 조언이든 인간의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라" 등등. 이들은 대중의 구매력을 필요한 재화와 동일시하는 문제를 다룰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고, 그들은 니마이어, 바룩, 또는 기업 고리대금업자의 사위만큼이나 동정심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보세요!

조직된 국가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법인 자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엄청난 조치는 사이비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에 거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훌쩍이는 공산당은 이를 사상의 승리로 치켜세우지 않았습니다. 차관보를 발행하는 신문들은 이를 마치 사유 재산에 대한 세금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력 일간지 중 어느 곳도 토지, 주택, 가구와 같은 재산권과 "이자 및 재산권"에 대한 청구권, 또는 "이자 및 이자가 즉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전액 점유"에 대한 청구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유산이며, 무덤에서 나온, 19세기의 공동 도랑에서 나온 썩고 죽은 손입니다.

그 세기는 언어를 배반했습니다. 이전 세기의 모든 빛나는 사상을 더럽혔습니다. 이신론자였던 볼테르는 무신론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자유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힐 권리.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제퍼슨의 표현대로 평등은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번스의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답다"라는 말이 떠올랐지만, 제퍼슨 시대에는 보통선거권조차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참정권은 공로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정당 가입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몰래 돼지에게 던져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정신이 욕먹고 더럽혀지기 전에, 고리대금업자 무리는 의사소통 수단 자체를 배신해야 했습니다. 언어는 파괴되어야 했습니다. 고상하게 치장되었던 단어 하나하나를 은행 발행 '라이흐카피탈'이라는 은밀한 깡패들을 가리기 위해 움푹 파내야 했습니다.

질서 없이는 자유가 불가능하고, 질서는 조직에서 나온다.

제퍼슨의 나라처럼 농업 국가는 중세 도시들이 필요로 했고 발전시켰던 길드 조직처럼 당장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회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실행에 옮기면, 지옥의 자식들이 끌질을 시작하고, 거머리가 피를 빨고, 해충이 방치된 구석구석을 감염시킬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앵글로색슨 독자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는지는 어제 도착했고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 편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편지는 결코 얼간이가 아닌 한 사람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인용하여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홀리스는 최근 저서에서 무솔리니가 민간 은행가들로부터 만년필 하나로 자의적으로 화폐나 신용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음으로써 이탈리아에 제대로 된 화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부가 이탈리아에서 화폐 발행을 통제하고 유발한다고 암시합니다.
은행가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해야 할 국가 경제의 혁명적 개혁에 대한 그의 말만 믿고 싶지는 않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 글은 1937년 11월, 즉 이탈리아 은행 개혁 2년 후의 일입니다.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젊은이는 라이히카피탈 언론에 너무 길들여져서 친구의 직접적인 증언 없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래 카페에서 방금 본 신사분은 영국에서 막 오셨는데, 세금이 법인 자본에 부과되는 건지, 민간 자본에 부과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런던 신문에 실린 짧고 굵은 공지를 읽었거든요.

러시아 혁명은 순환의 끝이었다. 19세기의 언어 배반을 이어받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처럼 일부 사람들의 독재를 의미하는 허위 표현을 사용했다. 볼시주의자들은 지금도 단어의 정의조차 내리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혁명을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가 인쇄물이나 그들이 답변을 요청했을 때 만난 사람들은 혁명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명확한 용어, 의미의 명확한 정의를 위한 싸움에 나서지 않는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어떤 것들이 아무리 싫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닻을 내리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아니 적어도 저는 지금 당장은 러시아로부터 스탈린이 금전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스탈린이 그 사실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주장을 본 적이 없고, 그의 상대인 브론슈타인 씨도 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핑크 인텔리겐차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단어를 정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로소니의 행동과 같은 이 반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술.

"곡물 암마소 에는 또한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빵은 터무니없는 가격 인상이나 부도덕한 투기 없이 모든 이탈리아인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로소니는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것은 새로운 경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의 말은 "우리는 새로운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당근을 코앞에 두고 행복을 추구하는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

어떤 면에서 이는 맹자가 칭송했던 구법 체계로의 회귀와 거의 같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화폐를 소비재의 덩어리와 직접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효과적입니다. 대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든 정직한 가격 통제는 존재하는 화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로소니만큼 유명했거나, 어쩌면 더 유명했을지 모르지만 내각에는 속하지 않은 한 이탈리아인이 제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현대 사회의 두 가지 질병은 은행을 통한 고리대금의 합법화와
유한책임회사법에서 절도의 합법화.”

그것은 사적인 편지였고, 제가 그것을 인용해도 될지 전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더 이상 경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지가 원래 사적인 의견이었든,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공개될 내용을 암시한 것이든, 그 근본적인 생각은 이탈리아에서 실행되었습니다.

파시스트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Consegna, anno XII에서: "경제적 힘을 규율하고 그것을 다음과 동일시하십시오.
   국가의 요구에 따라.”
2. 다음 가을 밀라노 연설: "생산은 해결되었고 경제학자들은 계속 촉구했습니다.
   국가는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자급자족. CH 더글러스의 독트린. 제퍼슨의 정책과 유사하다. 건전한 경제의 기반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분배할 대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국가가 적절하고 정직하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구매력을 분배하는 다양한 가능한 방법에는 전체 문제가 필요합니다.
이 일기를 통해 그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칭찬의 진실성을 유지하려면, 반민주주의자는 미국 헌법이 미국 정부에 자체 통화를 중앙집권적으로 사용할 완전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성에 대해 과장하는 루즈벨트식 헛소리이자 바루크식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미국 의회가 정직하고 수백 명의 유인원들 사이에 수십 명의 의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일 달러의 구매력을 밀 1부셸이나 최고급 소고기 스테이크 6파운드, 서지 2야드나 특정 등급의 양모 4파운드, 또는 국가 자원을 제대로 조사한 후 발견된 어떤 것이든 기준으로 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외에는 이를 흐리게 만들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의 언어적 표현의 결함이 아니라 의지의 근본적인 부패나 순전히 짐승 같은 무지입니다.

그러한 개혁이 파시즘이라면, 그것은 잭슨주의적 파시즘일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형태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내 시대의 아이들)이 훈련을 받던 시절, 스페인-미국 전쟁은 개방적 질서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했습니다. 어쩌면 궁극적인 섬나라들과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 대륙에 적응되지 않은 개방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과거에 존재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현실을 번컴과 웅컴 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그들의 논문에 실리도록 한 것과 분리해 보도록 합시다.

개방형 대형의 군대의 규율은 1776년 이전에 인디언과 싸우려고 했던 브래독이 지휘하는 군대의 규율과 다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군사적 비교라면 사과드립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제 요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자유", "질서", "책임", "변덕"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정하고 싶습니다.

무솔리니가 최근에 한 "자본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발언은 아담 스미스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언제나 대중에 대한 음모를 꾸미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대한 답이다.

언론과 고용된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저주스러운 점은, 그들이 존경한다고 공언하고 그들의 해로운 이론을 그들에게 돌리는 작가들의 진정한 위대함을 결코 조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미스의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19세기는 결코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과 균형을 찾는 데 백 년이 걸렸고, 로마냐 출신 대장장이의 아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지명과 신용"의 코포라치오네를 포함한 다양한 코포라치오니(corporazioni), 즉 고위 중앙 길드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신용은 생명선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나머지 부분은 정직한 작가들의 다양한 진술에 답변하는 데 적용됩니다.
누군가는 현재의 생각을 서로 연관시켜야 하고, 비록 그것들이 모두 주제의 같은 부분에 속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오해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탈리아가 자체 화폐를 발행하는지 문의한 편지에 대한 각주입니다. 이탈리아는 자체 화폐를 발행하지만, 신용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산물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한, 어떤 국가도 개인 신용의 작은 조각들이 자연적으로, 자비롭고 형제애적으로, 싹트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탈리아에는 국가 숭배가 없습니다. "국가 숭배"라는 표현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는 개인의 주도권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을 방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만큼 충분한 분별력이 없을 때 정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2명의 특파원과 20여 건의 대화 끝에 답하며, 네, 지금 이탈리아 기업 국가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함은 과거 독점 기업들의 미신, 잔재, 더러운 습관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에는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 돼지와 무기력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여전히 오래된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방해하고 속이며,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을 위해 최대한의 결과를 얻지 못하도록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결함들이 적절한 순서로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점 줄어드는 장애물, 즉 "풍차"에 맞서 혼자서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을 단념시키는 경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로마 기부금은 측정입니다." 이는 2,000에 대한 로마 천재를 의미합니다.
몇 년이 더 지나면 측정하는 데 천재적인 힘이 생깁니다.

국가 권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떤 이론에 따라 운영되든), 국가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격한 실험은 국가가 플림솔(Plimsoll)을 넘어서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데 바쁩니다.

19세기 국가는 짐 없이 살아가려 했습니다.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는 아마도 파멸의 씨앗이 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자유를 사유재산에 남겨둘 수 있을지 진지하게 자문한 최초의 국가일 것입니다.
다른 주에서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제퍼슨의 무리는 특권의 악과 중앙집중화된 금융의 부패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폭정.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시대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크게 나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건전한 사회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발전과 개인의 자유의 장(場)을 의미한다고 믿지 않았다면, 나는 이탈리아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핑크티 운동가들과 프랑스 사이비 문인들처럼 반파시스트였을 것이다. 질서를 통해 자유를 믿을 수 있다. 낙타 돌격에서 자신의 낙타를 쏘아 죽인 영웅처럼 겁먹거나 몰락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 자유를 얻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저는 지금 경제 및 정치 뉴스, 혹은 경제 사상의 현황에 대한 뉴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에 대해 25년 전처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에서 무슨 글이 쓰이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진지한 반파시스트는 자신이 무엇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현실과 일치하는지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칼 윈터는 Civilta Fascista 10월호에서 "민주주의 세계에는 정당한 입장과 악의에 기반한 반파시즘이 있습니다. 또한 무지하고 선의에 기반한 반파시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윈터의 글과 전체주의 국가에서 좌파를 건설적인 요소로 보는 그의 견해를 추천합니다. 베니아미노 데 리티스 또한 미국에서 남북 간 적대감이 사라진 것에 대한 글을 통해 "CF"라는 주제에 기여했는데, 이 글은 새롭고 치유된 유럽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이탈리아를 지적으로 사랑하거나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로소니의 ' 라 스티르페', '라 레비스타 델 라보로', '크리티카 파시스타', 또는 스피네디 교수, 베비오네 상원의원, 푸리오 렌지가 편집한 ' 라세냐 모네 아리아'와 같은 이탈리아 월간 잡지를 몇 권은 읽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BUQ에 실린 몬태규 포드햄의 훌륭한 기사에서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정의되었으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소비자에게 특별 화폐 발행의 가치를 의심한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독자들은 그러한 발행이 더글러스의 핵심 논지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 구매력을 원하는 재화의 양과 동일시하는 단순한 문제로서, 만약 차이가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새로운 돈(또는 신용)을 창출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의 시장에서 그 차이를 메울 수 있습니다.

많은 반더글러스주의자들은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출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빌어먹을) 실업수당은 분명히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즉 임시 비생산자에게 지급됩니다. "임시"라는 말은 8년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빈약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더글러스 배당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이저가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행한 노동(대부분 발명 노동이지만, 공장 건설 노동도 포함)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음식을 먹거나 집을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이룬 노동입니다.

포드햄 씨가 이탈리아에서 아동 수당이 미래의 생산자에게 지급되는지 아니면 임시 비생산자에게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현재의 소비자와 임시 비생산자에게 지급됩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신용 발행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측정된 청구권" 즉 주권(적어도 1816년 제퍼슨과 그 이후 모든 지식 있는 경제학자들이 이해했듯이)의 직접 발행이 아니라면 빌리고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며, 저는 F. 씨가 그러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 이자가 루즈벨트 씨가 오래된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대출된 신용의 문제는 부채로 기록됩니다.

대출되지 않은 신용의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포드햄 씨는 "특별한 금전 문제"라고 말했고 나는 이것을 부당하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한 종류의 화폐 발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체납료가 부과되는 아비글리아노 화폐 또는 선박 담보권은 100개월 후에는 소멸되어 부채가 남지 않는 측정된 청구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더글러스는 월간 우표를 세금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국가가 교환 가능한 청구권이기도 한 교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월간 우표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쨌든, 이는 유통 중인 지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연간 다른 세금 부과의 필요성을 없애줍니다.

더글러스의 어떤 취소 계획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제 말은, 그런 돈을 써 본 아주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경제학" 학생들보다 돈이 무엇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사용 구매력에 대한 체선료에 대한 대안 제도는 많지만, 그 어느 것도 전반적으로 교육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요 제도는 소수의 수출입업체와 그 직원들에게만 교육 효과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물품을 초과하는 신용이나 돈, 심지어 특수한 종류의 돈을 발행하면 인플레이션, 즉 질병이 발생하여 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오늘날 이탈리아의 더글러스와 요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정부가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평가절하는 사기일 뿐만 아니라, 구매력의 급격한 감소이기도 합니다. 평가절하 시점을 선택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의도가 아무리 선량하더라도, 그는 사기꾼들과 상업주의의 늪과 중상주의-고리대금의 지옥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투기를 유혹하고 거의 강요합니다.

금 소유자들은 일반 대중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교활하고, 흡혈귀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바보가 아니라면) 교훈적으로,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여 그들의 이익을 돌보았습니다.

노예란 누군가가 자신을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프랜시스 맥보이의 마르크스주의, 쇠퇴의 교리

중 마르크스주의(ARXISM)는 독일계 유대인인 카를 마르크스가 제창한 보편적 파괴의 이론으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사이비 과학적인 전문 용어와 얼간이들을 위한 횡설수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인류애 등을 벗겨낸 후자의 사기는 암살과 테러로 유지되는 전제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에 불과함을 드러낸다. 집단화 체제에서 집단적 흡혈귀주의는 지배적인 요소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탈국적 지식인의 유토피아적 평등주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나라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정치적인 소위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것이 최종적인 완성이겠지만, 동방 정치위원들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전에, 잠재적 희생자들의 정신은 그 사건에 대비해야 한다. 즉, 필요한 수용성 수준으로 왜곡되고 오염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문화적 마르크스주의, 즉 정신의 예비적 볼셰비즘화가 놓여 있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에 내재된 자유주의의 무차별적인 관용-정신병에 의해 촉진되며, 사회민주주의의 최종적인 불가피한 붕괴로 이어진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현재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모든 활동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부패한 영향력이 아직까지 사회 및 문화 생활에서 주로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한 교조주의적 정치 활동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근본적으로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삶에 교묘하게 침투한 파괴적 유물론의 신조는 모든 영성, 도덕적 가치, 그리고 민족 문화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몸젠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는 "세계주의와 민족적 부패의 활발한 발효"입니다. 정치 공산주의에 반대하거나 속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피상적인 대중의 상당수는 현대 사회를 오염시키는 여러 불건전한 흐름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문화적 볼셰비즘의 사라고사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감각을 추구하는 자들과 쾌락주의자들을 유혹하는 악의 꽃은 수없이 많습니다.
부패로 인해 무지개빛으로 빛나는 현대 도시들!

오늘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엘리자베스 시대나 그보다 덜 중요한 다른 시대, 심지어 금세기 초까지 이어진 시대의 황홀한 업적과 비교해 보십시오. 산업 혁명의 도래와 그에 따른 농민층의 몰락은 민속 정신의 둔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형태가 모호해진 농민층은 정신적 감염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19세기는 쇠퇴 속에서도 위대한 작가와 시인, 훌륭한 화가, 그리고 유능한 작곡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지적 양식, 우리의 축복받은 민주주의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초현실주의 회화와 조각, 병적이고 왜곡된 상상의 향연은 그 불협화음적인 대응물인 흥겨운 노랫소리와 뜨거운 리듬, 즉 나이트클럽의 신경증으로 얼룩진 정글 음악에서 발견된다. 자극, 세계주의, 그리고 선전으로 가득 찬 영화들. 선정적이거나 성적인, 혹은 둘 다를 담은 책과 잡지들. 거짓과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찬 신문들, 그리고 여성의 얼굴보다는 몸에 더 관심을 끌기 위해 고안된 사진들. 그렇게 많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아무개 양"들이 치마를 걷어 올려야 한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사진을 찍다.

경제 영역에서 모든 민주주의 정당의 철학적 핵심 동기(light-motiv)인 자유주의는 약탈적 본능과 강자에 의한 약자와 덜 교활한 자의 지배 또는 몰락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물리적 폭력에 대한 모든 의존을 분개하며 비난하는, 근거 없는 인도주의자들은 대량의 화폐 권력 행사나 부도덕한 "사업 능력"의 경제적 폭정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잡한 물리적 폭력보다 더 비열한 형태의 괴롭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예 제도와 예속은 항상 육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구원의 은총도, 단순한 상업적 교활함 외에는 아무런 재능도 없는 자들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재능 있는 다른 사람들을 비참한 경제적 종속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영역, 즉 맘몬의 법칙이 만연한 영역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폐 독재 체제에서는 이윤이 필연적으로 최우선이자 최종 목표이며, 삶의 모든 단계에서의 대량 표준화는 대중의 젖소를 착취하는 가장 합리화되고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금융 및 상업 사슬 시스템에 점점 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정신적, 문화적 이상은 "유익한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증권 거래소에서 "강요"되거나 "견딜"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표준화된 착취와 사기의 추종자가 되는 데 필요한 순종과 무관심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적 정신적 전복은 상업적 물질주의와 맞물려 어리석음과 타락을 '돈벌이'로 삼는다. 하나의 선례가 다른 선례로 확대되고 (현대 민주주의 정신의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방종은 또 다른 방종을 낳고, 결국 통제 불능의 남용으로 절정에 달한다. 쐐기의 고전적인 얇은 끝이 여기저기, 그리고 도처에 꽂혔고, 그 틈은 점점 벌어져 마침내 "진정한" 국가는 몰락으로 치닫는다.

부패의 사도들은 이를 "진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정한 게헨나로 가는 길에서의 진보일 뿐이다. 영적 볼셰비즘이라는 방탕한 진보, 국가의 중요 기관을 부식시키는 마르크스주의라는 부패한 내장. 마치 민주적 자유, 자기표현, 진보된 사상이라는 다양한 이름 아래 타락의 주술사들이 투여하는 사악한 최음제와 같다.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는 헛된 구호는 마치 현재의 사회적 무정부 상태가 "불가항력"의 결과이고, 세계주의적 타락의 소용돌이에 굴복하는 것이 영국 국민의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들린다.

도덕적, 문화적 부패와 함께 인종적 위축과 잡종화라는 교리가 현대 사회에 침투하고, 바로 그 독극물 제조자들이 인종 제한과 피부색 차별 철폐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문화의 원천인 농촌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본능적 저항의 장벽은 제거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어 인위적이고 비자연적인 환경을 만들어 뿌리 뽑힌 거대 도시 대중의 일부가 되고,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며, 국제적인 체인점과 영화관의 더 큰 이윤을 위해 금융 민주주의의 수동적이고 맹목적 희생자들의 수를 늘립니다.

주말마다 시골이나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나, 교외의 정원에 있는 반독립형 빌라에 사는 것조차 사람들의 뿌리 뽑힘과 영국 농민의 거의 완전한 몰락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위험 외에도 도덕적, 신체적, 문화적 영향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제의 완전한 재정비와 재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우리에게 "그린벨트"와 "국민 건강" 캠페인을 제공합니다. 유치한 완화책, 모래성, 그리고 허구. 주말 도피자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기계화된 문명에서 도시로 이주한 이들은 마음속으로 도시를 받아들이고 잠재의식적인 행동에 반영합니다. 도시는 그들의 말과 문학, 휴대용 축음기에 꽂는 재즈 레코드, 무선 수신기, 도시의 매끈함과 허식 속에 함께합니다.

똑똑한 알릭은 오랫동안 잊혀진 아민타스를 대체하고, 반바지를 입은 지방질 유대인 여자가 그의 아마릴리스입니다. ("오, 페르세포네의 노래하는 자여.") 아르카디아를 찾아 나선 그들은 길가 식당을 발견한다. 그들은 잎이 무성한 빈터에서 판의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개발"을 기다리는 황폐한 들판에서 흑인 재즈 노래나 인터내셔널가를 울린다. 요정들은 그로부터 도망쳐 왔다.

이러한 부패의 분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사해 과일처럼 번성하는 반면, 인간성, 나약함, 탐욕, 허영심, 그리고 악덕은 영합되고 착취당합니다. 불건전한 취향과 경향은 암시와 "주도권 행사"라는 선전으로 자극받고, 냉소적으로 "대중의 요구"라고 불립니다. 우리 소녀들 중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은 영화, 국제 무용단, 또는 온갖 색채의 인간 쓰레기들 앞에서 외국 카바레의 "스트립 티즈"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과시합니다.

국가적 타락의 극치는, 제지되지 않으면 정치적 볼셰비즘에 의한 통제로 귀결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계획은 집단적 부패라는 바이러스에 집단적 정신이 충분히 오염되었을 때, 사이비 이상주의적 사회주의라는 가면 아래 은밀하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앞잡이들은 마치 사향쥐 떼처럼 맹렬하게 국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모든 무책임한 쾌락 추구자, 모든 무관심한 이기주의자, 그리고 전통적이고 애국적이며 건전한 모든 것을 비난하는 것이 유행이거나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리석은 얼간이는 우리 국가적 쇠퇴의 기세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벽에 글씨가 쓰여 있다. 사람들은 주식 시장 보고서, 스포츠 경기 결과, 하찮은 쾌락을 위한 일일 프로그램, 잔혹 행위와 박해 선동, 그리고 반파시스트적 증오의 장황한 나열에만 관심이 있는가? 이 모든 하이에나 같은 으르렁거림이 바로 그 글씨의 전조를 보고 이해한 사람들을 향해 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어리석음과 약점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온전한 갑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고, 관용을 요구하고, 더 많은 관용을 요구하다가, 마침내 그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불관용을 강요할 때가 왔습니다.

비록 그 사악한 일이 반만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제단에 바치는 너무나 큰 희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JK 헤이든의 적은 자유주의
다

1부

티국가는 자연적 통일체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을 하나로 묶는 공동의 사랑 덕분에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기능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기도 하므로, 국가는 본성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정했듯이, 공동의 선은 개인의 선보다 더 숭고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어떤 면에서는 특정 순간에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삶을 초월하는 삶을 구성합니다.

"어떤 면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실은 항상 진실의 한 측면을 과장하고 다른 측면을 무시하는 오류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헤겔처럼 민족이 모든 면에서 개인을 초월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이며, 자유주의자처럼 민족이 개인들의 산술적 합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도 오류입니다. 진실은 이러한 오류들 사이에 있습니다. 민족은 부분들로 구성된 통일체이므로 부분들보다 더 큰 존재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구성된 것이 구성된 것보다 더 큰 존재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민족은 구성의 원리, 즉 현재의 경우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구성 요소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따라서 더 큰 존재를 구성합니다. 더욱이 민족의 더 큰 존재는 여러 면에서 명백합니다.

국가는 개인에게는 없는 어떤 자연적 불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 기본 단위인 가족에 부여된 어느 정도의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어떤 개인에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공동체인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을 초월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질서, 즉 국가가 존재하는 질서에서만 적용됩니다.
인간, 즉 개인은 국가와 달리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에게는 자연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목적만이 있으며, 그의 모든 자연적인 삶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목적에 종속됩니다. 따라서 자연 질서 속에만 존재하는 국가는 궁극성 측면에서 개인에게 종속됩니다. 국가는 본성적으로 존재하며, 바로 그 개인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존재하게 된 초자연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파시스트는 이 문제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의 핵심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단어는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제가 방금 언급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개인이 초자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 권력에 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엄격한 전체주의인 반면, 파시스트는 종교에 대해서는 마치 절대적인 전체주의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포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종교에 대해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데 만족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태도라면, 그들의 대의의 모든 강점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며, 파시즘이 본질적으로 공산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비난을 정당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 조직이 개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바를 정오처럼 분명히 밝혀두자. 다만 그것은 자연의 질서와 공동선을 위한 것일 뿐이며, 공동선이란 개인의 초자연적 운명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은 여전히 더 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오해입니다. 이는 통치자의 시민적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자연권을 상실할 만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부모의 통제에서 떼어내는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국가는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족을 파괴하는 것은 본성에 어긋나므로 공동선을 위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시스트는 이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동선을 위해 통치할 완전한 권한을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를 전체주의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 사용은 옹호될 수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고 심지어 악의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도된 강조는 전혀 불필요합니다. 시민 권력에 대한 건전한 교리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자연법에 따라 시민적 선을 위한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력도 완전함보다 더 완전할 수는 없으며, 시민적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하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미루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유기체가 내적 구조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가 유기체는 전체에 걸쳐 유기적입니다. 사랑은 가족 내에서의 부부애와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국가 전체에 개성을 부여하는 애국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생명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적인 표현들 사이에서 국가는 국가의 필요, 또는 다양한 사회적이지만 국가적이지 않은 역량을 가진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중간적 농도를 형성합니다. 한 남자는 남편, 국가 및 국가적이지 않은 정치의 유권자, 의사, 여러 회사의 주주, 골프 선수, 자연주의자, 예술 애호가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는 공통된 사랑의 유대로 다른 개인들과 하나가 됩니다.

국가 내 유기물 농도 중 일부는 너무나 중요해서 인간의 주요 장기에 비유할 수밖에 없는 반면, 다른 일부는 장식적인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분명히 국가의 수장이며, 농업과 산업은 국가의 손, 교통은 국가의 붉은 피입니다. 홍보는 국가의 귀, 군대는 보호 피부, 경찰은 아마도 식세포에 해당합니다. 반면 왕립 아카데미는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바람직한 목적을 지닌 아름다운 보조개이지만, 그보다 덜 시급합니다.

국가 유기체의 삶이 그러하듯, 자유란 각 개인이 자신의 일반적 및 특수적 본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고유한 삶의 모든 측면, 즉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기회를 갖는 데에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회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회생활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조정을 하기 위한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 사회는 사람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편의와 격려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의 사랑의 부족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기회, 즉 적극적인 예방의 부재라는 다른 의미에서 기회는 아마도 자유라고 불릴 수 있겠지만, 자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 윤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이 얼마인지, 적어도 대략적으로는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임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과 그 가족이 검소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며, 개인의 노동으로 생산된 부가 그 부의 생산에 참여한 모든 인간 행위자에게 최소한의 보상만 지불할 만큼 충분하다면 그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이론은 윤리의 정당한 임금을 무시하고 노동을 노동 시장에서 가능한 한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자유주의 이론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임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것이 오늘날 영국의 자유주의 조직 전체에 구현된 임금 이론입니다. 비록 사회 입법에 의해 절대적 자유방임이 상당히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시장 임금을 거부하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자유가 있으며, 고용주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시장 임금을 무시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순전히 터무니없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임금 계약을 자유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마치 내가 달에 올라갈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부당한 임금을 받거나 실업자의 대열에 합류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유로운 나라에서 실업은 처벌받을 만한 범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부당한 임금을 지불하거나 경쟁자들의 자유 경쟁에 굴복하여 고용주로서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중단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나 고용주 모두 정의를 요구하거나 베풀면서 오랫동안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둘 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의가 실현될 것을 최소한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사랑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사회 유기체의 생명 원리이고, 그 사랑이 순수한 사회 정의로 드러날 수 없다면, 분명 사회 유기체는 병들고 자유는 훼손될 것입니다. 자유는 사회적 건강, 즉 개인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든 편의와 격려를 제공하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 이론이며, 앵글로색슨 문명이 여전히 용감하고 비참하게도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번영을 시도하고 있는 거짓 자유주의 이론과 비교해 보자. 최상의 자유주의 이론은 자유를 자유방임 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일시는 원래 명백하게 거짓이었던 이론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된 것이다. 최상의, 그리고 가장 잘 드러난 자유주의 이론은 자유를 개인의 행동의 자유와 시민들이 질서를 위해 서로 맺었다고 여겨지는 사회 계약에 따른 의무 사이의 균형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조건은 여론을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중의 목소리는 곧 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기심만이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유일한 힘입니다. 즉, 개인의 자유를 고려할 때는 일반적인 이기심,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제약을 고려할 때는 계몽된 이기심이 작용합니다. 사랑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서를 위해 필요한 모든 개인적 자유의 희생은 계몽된 이기심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완벽하다면 이 이론은 매우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론은 인위적이고 그 표현 방식이 완전히 틀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론이 참된 이론과 동일한 결과를 낳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익은 그 완벽함 속에서 사랑과 같은 목적, 즉 최고선의 선택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하고 진실을 사랑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기심이라는 이기심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사랑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러한 왜곡은 우리를 본성상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오점입니다. 기독교의 타락 교리를 고수하든, 우리가 유인원에서 초인으로 진화했다고 생각하든, 그 누구도 이러한 오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이론은 인류가 자기 이익을 평가할 때 완벽한 계몽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크게는 벗어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작동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더 나은 작동 가설을 기대하거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의 생명 원리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 이론의 작동 방식도 계몽된 자기 이익 이론만큼이나 우리의 이기심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에, 한 이론을 다른 이론으로 대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추론은 허황된 것일 수 있지만, 사랑 이론은 사실이지만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계몽된 이기심 이론, 거짓 이론이 단순히 거짓 이론보다 더 잘 작동한다는 사실에서 내가 무엇을 얻는가? 왜냐하면 사랑은 여전히 그 이론을 돕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된 이론은 사랑이 이기심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이론이 거짓 이론이라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리고 인간사에 있어서 거짓 이론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추상적인 원리에서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추상적인 추론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주의 이론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 왔기에 실제로 작동하는 파괴적인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공식화되었을 때, 그 작동 방식의 불완전성은 아마도 인류의 불완전성보다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작동 방식은 그다지 눈에 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론이 경제 교리와 그에 기반한 정치적 행동으로 표현되면서, 그 작동 방식이 자유주의 사회 조직으로 발전했고, 이제 우리는 그 지배 아래 거의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이론적인 자유주의 가설을 경제학과 그 기반 정치에 적용하는 것은 추론의 문제였으며, 그 추론은 퇴보적인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이 거짓 이론을 무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한, 인류의 비열함보다 더 비열한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이론에 기반한 추론은 한계 없이 비열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개인의 행동의 자유와 질서를 위한 희생 사이의 가정된 균형이 개인의 자유 쪽으로 약간만 기울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거짓 균형에 익숙해지고 이 문제에 대해 추론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이기심은 쉽게 개인의 자유를 위해 균형을 조금 더 기울일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가 가장 높은 경제적, 정치적 지혜로 엄숙하게 선언된 적나라한 자유방임주의 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무렵 우리는 적어도 개인으로서는 거짓 이론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소용없었습니다. 무제한 경쟁이 시대의 흐름이었고, 국가의 법과 사회 전체의 조직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한숨을 쉬며 사업은 사업일 뿐이라고, 경제 법칙은 정글의 냉혹한 법칙이라고, 먹히지 않으면 먹히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은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웠으며, 자유방임주의 의 결과는 공공연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은 그 본성을 바꿀 수 없었지만, 공동체 전체는 정글의 법칙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정치적 행동으로 눈을 돌렸고, 이전에는 산업을 그대로 두라고 요구하며 사회 입법을 통해 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토마스 칼라일 - 윌리엄 조이스의 국가 사회주의자

토마스 칼라일은 그 이전의 영국 사상가들 중 단연 으뜸가는 인물로, 파시스트 철학의 주요 경향을 저술에 반영했으며, 그중에서도 셰익스피어와 골드스미스는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라일의 방대한 저작들을 살펴보면 국가사회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고밖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는 국가사회주의라는 명칭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그 정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애국자의 말입니다. 그의 열렬한 애국심은 그의 시대에는 애국심의 시험에 부응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옛 애국심과 새 애국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옛 애국심은 사상과 외형에 관심을 두는 반면, 새 애국심은 국민의 현실에 관심을 두며,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라는 용어에 부여될 수 있는 유일하게 명예로운 의미에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애국심입니다.

이 짧은 글의 목적은 칼라일에 대해 쓰거나, 그를 비판하거나, 위대한 작가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엮어낼 수밖에 없는 방대한 일반화의 덩어리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주의한 사람들이 "칼라일의 정치"라고 부를 만한 것을 논하려는 의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 위대한 작가가 휘그당원이나 토리당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구에 착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둘 중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외에도, 이러한 고대 용어들은 오늘날 영국 정치에 존재하는 어떤 의미도 함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을 증명하려는 시도 대신, 토머스 칼라일을 다시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를 오랫동안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그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의 말은 국가사회주의자에게 파시스트 이론에 대한 영감과 확신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다. 파시스트 국가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운동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난, 즉 그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비난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국가사회주의 신조에 대해 이보다 더 자주 제기되는 비난은 없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 의 페이지를 훑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옳은 길을 찾아내거나, 찾도록 강요받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배우거나 배우고, 허락이나 설득, 심지어 강요를 통해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자 명예이며, '자유'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만약 자유가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자유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규율 없이는 자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한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행동할 권리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봅니다. 오스월드 모슬리 경이 말했듯이, "자유의 시작은 경제적 혼란의 끝입니다. 그러나 행동할 힘 없이 어떻게 경제적 혼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적 자유는 보존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는 국민이 의회와 정부를 선출하고, 따라서 원하는 지도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으로 표현됩니다. 그 이상은 갈 수 없습니다." 또는 공식 선언문을 인용하자면,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영국 연합: 파시즘은 국가의 지도력입니다.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정부를 의미하는 옛 의미의 독재가 아닙니다. 현대적 의미의 독재는 국민이 국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완전한 행동력을 갖춘 정부를 의미합니다.

칼라일의 지도력과 권위에 대한 교리는 기존 정당들이 계급에 대해 취했던 태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속물근성과 계급 투쟁 또한 마찬가지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긴 인용문은 예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당화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우리 언어로 쓰인 가장 위대한 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긴 구절을 인용하는 대담을 부립니다.

>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두 명뿐, 세 번째는 아니다. 첫째, 땅에서 만든 도구로 땅을 힘겹게 정복하고 땅을 사람의 것으로 만드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장인. 내가 존경하는 것은 굽고 거칠지만, 그 안에는 이 행성의 홀처럼 교활하고 고귀한 미덕이 담겨 있다. 또한 거칠고 비바람에 그을린 얼굴, 더럽혀진 얼굴, 그리고 그 거친 지성도 존경스럽다. 그것은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
> 오, 하지만 당신의 무례함이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동시에 동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님, 정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등은 우리를 위해 굽었고, 당신의 곧은 팔다리와 손가락은 우리를 위해 기형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징집병이었고, 제비는 당신에게 떨어졌으며, 우리의 전투는 너무나 손상되었습니다. 당신 안에도 신이 창조한 형상이 있었지만, 그것은 펼쳐질 수 없었습니다. 노동이라는 두꺼운 유착과 훼손으로 뒤덮여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몸은 영혼처럼 자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십시오, 계속 노력하십시오. 당신은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의무에서 벗어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두 번째 사람을 존경하며, 그보다 더 높이 존경합니다. 영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이 보이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도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외적인 노력을 통해 행동과 말로 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그의 외적인 노력과 내적인 노력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그를 예술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세상의 장인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받은 사상가, 하늘에서 만든 도구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정복하는 분이라고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한 수고를 통해 양식을 얻는다면, 그를 위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수고를 통해 그에게 빛, 인도, 자유, 불멸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그 모든 면에서 존경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겨와 먼지일 뿐이며, 바람은 그것을 원하는 대로 흩날립니다.

노동의 존엄성은 이 구절만큼 충실하게 표현된 적이 없으며, 이 구절들만으로도 칼라일을 위대한 국가사회주의 사상가로 칭송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주의 저술가들이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글을 썼지만, 그 누구도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기껏해야 고난으로, 최악의 경우 저주로 묘사되며, 그들의 일반적인 태도는 노동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편의적이고 불가피한 불의이며, 인간은 자신의 노고에 대한 최고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불명예에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가격을 받더라도 사회주의 철학에서는 그는 단지 "임금 노예"일 뿐입니다. 따라서 칼라일이 영웅심과 성취의 동기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읽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편안함, 쾌락에 대한 희망, 보상, 즉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어떤 달콤한 자두 때문에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중상입니다. 가장 비천한 인간에게도 그보다 더 고귀한 것이 있습니다. 총살당하도록 고용된 불쌍하고 욕설을 일삼는 군인은 훈련 규정이나 하루 1실링과는 다른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얻습니다. 아담의 가장 가난한 아들이 희미하게 바라는 것은 달콤한 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고귀하고 진실한 일을 하고 신의 하늘 아래 신이 만든 인간으로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면, 가장 따분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영웅으로 불타오른다. 안일함에 현혹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큰 오산이다. 어려움, 희생, 순교, 죽음은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유혹이다. 그의 내면에 있는 천재적인 삶에 불을 붙여라. 그러면 모든 저급한 생각들을 불태우는 불꽃이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결코 금융 민주주의나 그 추종자들에게서 비롯될 수 없습니다. 칼라일은 여기서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영웅심의 동기를 논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는 노동가치론으로 알려진 오래된 마르크스주의 독단의 뿌리를 파헤쳐 파괴합니다. 그는 마르크스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적 지성과 영웅적 행동은 일반적인 노동 과정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으며,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업적조차도 결코 단순한 기계적 노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칼라일은 단지 인간을 비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칼라일의 주장은 옳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영웅주의가 가장 비열한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오늘날 금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대인 금융가들이 영웅주의를 무시하고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영웅주의가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자부심을 국민적 품성에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웅적 동기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파시스트 체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선하는 것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질적 이득이 아니라 자신이 신성시하는 원칙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매우 인상적인 한 구절에서 노동과 제국의 진정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토머스 칼라일이 단순한 사회주의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 우리는 국제 사회주의가 오랫동안 제국주의에 맞서 벌여 온 선전 활동을 떠올려야 하며, 사르토르 레사르투스(Sartor Resartus)의 가장 인상적인 구절 중 하나를 인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골드호프라스여." 교수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외쳤다. "정말 너무 붐비네요." 그동안 당신들은 이 보잘것없는 육지의 어느 부분을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까지 실제로 경작하고 파냈습니까? 아메리카의 팜파스와 사바나, 고대 카르타고 주변, 아프리카 내륙, 알타이 산맥의 양쪽 기슭, 아시아의 중앙 지역, 스페인, 그리스, 터키, 음침한 타타르, 킬데어의 커라흐에 당신들의 인구는 얼마나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신들이 일 년 동안 한 사람에게 땅을 빌려준다면, 그 사람은 자신과 아홉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아아, 아직도 불타고 계속 확장하는 우리 유럽의 헹기스트와 알라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터전이 너무 좁아지면, 불기둥처럼 불굴의 용맹을 가진 과잉된 대중을 모집하여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전투 도끼와 전차가 아니라 증기 기관과 쟁기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냥감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칼라일이 거의 모든 경우에 반복하는 귀족제에 대한 태도의 한 예를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너무나 깊은 사상가였고, 너무나 정직해서 귀족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저술 전반에 걸쳐, 어떤 국민도 지도자 계층의 지휘 아래서만 공동체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계층에게 기대하는 바 또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며, 당시 사람들이 받았던 것과 우리 시대 사람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여전히 받게 될 것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는 진정한 대영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고, 이러한 바람은 그의 말 속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잉글랜드여, 머지않아 우리의 이 섬은 영국인의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 아메리카, 뉴홀랜드, 동서양, 그리고 정반대까지, 지구의 광활한 지역을 아우르는 색슨족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를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묶어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형제처럼 교류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질적인 문제이며, 온갖 종류의 주권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 무엇이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의회의 법률도, 행정부 총리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의회가 갈라놓을 수 있는 한 우리와 갈라져 있습니다. 환상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많은 현실이 담겨 있으니까요. 여기, 어떤 시간이나 우연의 의회, 혹은 의회들의 연합도 폐위시킬 수 없는 영국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 셰익스피어, 그는 우리 모두에게 왕관을 쓴 주권으로 빛나지 않습니까? 가장 고귀하고, 온화하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결집의 상징으로, 불멸의 존재로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파시스트 황제로 모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유대감은 지구상 어느 지역에 있든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에서 진정으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명제는 민족의 행실과 운명이 그들이 지닌 철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가장 고귀한 철학을 철저히 아는 것은 고귀한 행위를 하는 것이며, 흑인과 셈족 문화의 사생아적 타락으로 타락하는 것은 백인이 파멸하는 것입니다.

칼라일은 조약이나 회의만으로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세계적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통합은 오직 영적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회에 썼듯이, "집단 정신이 없으면 집단 안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 힘의 원천, 즉 문화와 철학은 금융 민주주의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계급적 관습에 기반하지 않는 진정한 귀족주의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칼라일은 토지 소유와 국가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 사이의 연관성을 올바르게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에서 "토지는 귀족 정치의 정당한 기반이다. 누구든 토지를 소유한 자는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통치자이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리는 부왕(vicking)이다. 오늘날도 헨리 플랜태저넷과 샘슨 수도원장 시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토지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다. 우리 모두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기쁘게 하고, 사랑으로 풍요롭게 한다. 우리가 처음 깨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잠에 들 때까지, 축복받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토지는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가."

그러나 칼라일은 산업혁명의 여파를 완전히 예견하지는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농부, 농민, 지주가 유대인 고리대금업의 족쇄에 얽매여 비참한 무력감에 빠지는 날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지주가 자애로운 귀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귀족은 권력이었고, 권력은 책임과 봉사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의무 없는 상류 계급은 마치 절벽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 뿌리에서 온 땅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자연은 순교자가 아닌 사람을 소유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고귀하다면, 고귀함이란 무슨 의미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고통받는 데에,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고귀함이란 본래 존재했던 것이다."

칼라일의 글에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 당시의 상황을 다룬 구절들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때면 지난 100년 동안 의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판에 박힌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자유방임주의보다 더 교훈적인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의회가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의회는 어떻게 될까요? 영국 국민 수백만 명이 그들의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에 묻습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무엇보다도 영국 의회는, "네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 못하느냐?" 특권을 가진 의회는 강력하다. 하지만 필연과 자연법은 의회보다 더 강력하다. 의회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의회가 다른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리고 그 일들은 가장 이상하고 가장 행복하지 않은 방식으로 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도 의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의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아돌프 히틀러가 말했듯이, "Etwas muss geschehen." 또는 오스왈드 모슬리가 지적했듯이, "국가의 두 거대 정당의 두 체제는 결국 같은 결과를 낳는다. 안정은 반동과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진보는 방해적인 토론과 위원회의 무책임으로 뒤섞여 결국 혼돈으로 끝난다. 둘 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는 도구이며, 현대 사회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영 제국》에 나오는 이 구절은 칼라일과의 합의가 신념을 넘어 표현 방식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추악한 것에 대한 그의 증오심을 보여주기 위해 무작위로 어떤 구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학파의 유물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복잡한 시대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금이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 고리인 이 시대에, 인류의 노동 계급은 혼란스럽지만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노동하지 않는 계층에게 자신들이 통치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헌장 운동, 폭력, 릭 화형, 그리고 현금 지불이라는 유일한 연결 고리보다 더 악랄한 것들의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금은 위대한 기적이지만, 하늘에서도;·심지어 땅에서도 모든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칼라일이 쓴 모든 글과 그에 대해 쓰여진 모든 내용을 고려할 때, 이렇게 짧은 글에서 그의 저작을 완벽하게 분석하려는 것은 헛되고 주제넘은 짓일 것이다. 그의 저작에서 구절을 발췌하여 단순한 정치적 신념의 고백으로 취급하는 것조차 경솔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의 방대한 저작에서 단순한 정치 교리의 용어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과 이성 면에서 국가사회주의 사상의 표현인 구절들을 무작위로 선택하는 다른, 더 직접적인 방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구절들은 어떤 파시스트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정신과 이성 면에서 국가사회주의 사상의 표현이다.

편파적인 선택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유일한 답은 책임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칼라일의 일관성 부족을 비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에서 발견되는 철학은 다른 페이지에서 발견되고, 결국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초기 명제가 독자를 만족시킬 만큼 증명되었다고 가정하는 대신, 독자는 토머스 칼라일을 더 깊이 연구하여 스스로 그 증거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의 강인함과 순수한 사고는 모슬리의 말처럼 "환상의 장황함을 뚫고 새로운 현실을 성취하는" 철기 시대의 강철 신조를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윌리엄 모리스 - 아서 리드의 국가사회주의자

윌리엄 모리스에 대한 영국 사회주의자들의 태도는 오랫동안 그의 추종자들에게 놀라움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전성기 시절에 자신의 많은 관심사를 등한시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와 동등한 역량을 가진 영국인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에서 늘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고, 동료 사회주의자들도 그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때때로 그들에게 불안하게 인식되었고, 그의 업적과 업적에 대해 입으로만 칭찬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고, 그를 그들과 같은 편으로, 그리고 그들의 영감 어린 지도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독일계 유대인인 카를 마르크스에게만 맡겨졌습니다.

이는 모리스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한 당혹감을 상당히 드러냅니다. 그는 실제로 비참한 빈곤과 그에 따른 악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사회주의가 어떤 형태로든 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 데 있어 사회주의자들과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관과 사회주의에 대한 비전은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동지들"의 그것과 달랐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세우는 사회는 자신에게는 감옥과 다름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와 성실하게 씨름했고, 그를 깊이 흡수하려 애썼습니다. 심지어 "자본론"에 열광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내면에서, 그의 표면적 자아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반발했습니다. 그는 혁명을 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크스주의 사회는 그의 비전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는 그에게 너무나 기계적이고,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도시적이며, 너무나 세계주의적이고, 너무나 비영국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와 모리스의 인생관 사이에는 실제로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국제적인 유대인이었고, 모리스는 남부 영국인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서재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모리스는 야외와 작업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도시를 껴안았고, 모리스는 항상 "숨 막히는 증기와 피스톤 행정"이 사라진 시골과 "작고, 하얗고, 깨끗한" 런던을 꿈꿨습니다. 마르크스는 기계 애호가였고, 모리스는 영국을 아름답게 만든 개인의 장인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기계화된 사회 조직에 대한 비전을 가진 유물론자였고, 모리스는 시인이었기에 약간의 무정부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계급 증오와 내전을 설파했습니다. 모리스의 가슴은 동료애를 갈망했습니다. “교제는 천국이고, 교제가 없으면 지옥이다. 교제는 삶이고, 교제가 없으면 죽음이다! 너희가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교제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리스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으로는 결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었다. 국제 사회주의든 국제 금융이든 세계주의는 그에게 혐오감을 주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로서도 마땅한 시대에 태어났다. 사회주의자로서 그는 아직 시간의 모태에 있는 무언가의 선구자였다. 그의 정신적 동질감은 그가 죽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생겨나고 결집된 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그의 진정한 자리는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였다.

모리스는 강렬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의 평생 동안 영국에 대한 열정보다 더 강렬하고 변함없는 열정은 없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외모에 대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해심 있게 묘사하는지.

''그 땅은 좁은 바다에 너무 많이 갇혀 있어서 거대하게 부풀어 오를 공간이 많지 않은 작은 땅입니다. 황량함에 압도되는 큰 황무지도 없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숲의 광활한 고독, 무섭고 밟히지 않은 산의 벽도 없다. 모든 것이 측정되고, 섞이고, 다양하며,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쉽게 미끄러져 들어간다. 작은 강, 작은 평야가 빠르게 변하는 고원을 부풀리고, 모두 아름답고 질서 있는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작은 언덕, 작은 산이 양 떼의 산책로로 둘러싸인다. 감옥도 궁전도 아닌, 괜찮은 집이다.''

"지상낙원" 이야기 서문에 매달 등장하는 아름다운 영국 풍경 묘사에도 이와 같은 애정 어린 감상이 담겨 있으며, "뉴스 프롬 노웨어"의 주제인 쇄신되고 깨어난 영국에 대한 꿈과 끊임없이 함께하며, "존 볼의 꿈"에 그토록 강렬한 색채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모리스의 사회주의는 실제로 옛 영국적 가치, 건축의 영광, 아름다운 풍경, 가장 비천한 사람들조차 장인으로 만들었던 개성적인 장인 정신, 그리고 "실제로는 시골스럽고 편협하지만 진지하고 진실하며 소박한 습관을 가진" 영국인들의 성격을 보존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때 버밍엄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퍼 템스 강변의 외딴곳에 작은 마을 교회 여섯 채가 있는데, 하나하나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이것들은 템스 강변의 시골뜨기, 즉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보다 더 웅장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 같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들을 설계하고 짓는다면, 새로운 동네 곳곳에 흩어져 있는 평범하고 작은 비국교도 예배당보다 더 나은 교회는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런 교회들이 바로 그런 교회들과 어울립니다..." 웨스트민스터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위대한 서사시의 작가들은 그 자체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남동부 잉글랜드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일했던, 달리 할 수 없었기에 "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성취, 더 행복했던 초기 영국의 정신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모리스의 사회주의를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진정한 자리는 세계주의적이기를 멈추고 민족주의적이 된 사회주의에 있다. 중세에 젖어 있던 그는 중세 수공업 길드를 떠올리게 하는 민족사회주의의 모든 측면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법인 국가가 시민권을 단순히 영토적 토대뿐 아니라 거대한 노동자 길드의 적극적인 가입 여부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상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는 중세 시대의 개별 장인이 엔지니어와 기술자에게 크게 밀려난 것을 참으로 후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업 국가가 조직된 노동자의 중요성을 그 자체로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생각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정치는 일반 시민의 필요와 욕망에서 분리되어, "존 볼의 꿈"에서 분노한 대중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 하는, 악랄하게 방해받고 비난받는 변호사들의 전문화된 손에 맡겨져 왔습니다. "뉴스 프롬 노웨어"에서 의회는 단지 흥미로운 유물일 뿐입니다. 영국은 영국인에 의해, 영국인을 위해 통치되며, 더 이상 오늘날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당 정치를 조종하는 재정적 이익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습니다.

모리스가 진심으로 동의했을 국가사회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농업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리스는 오늘날의 국가사회주의자들처럼 대도시가 아닌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로 생각했습니다. 땅은 그에게 열정이었습니다. "땅과 그 성장, 그리고 땅의 생명! 내가 얼마나 땅을 사랑하는지 말하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지만 단순히 시를 쓸 소재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한 종족을 키우고 가꾸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모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는 "증식이 시작되고 푸른 땅이 펼쳐지는" 것이었고, 그의 편지 중 하나에서는 황금빛 수확을 맞이한 8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들판은 영국 시골 풍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로 손꼽힙니다. "뉴스 프롬 노웨어(News from Nowhere)"에는 템스 밸리에서 건초를 만드는 사람들의 유쾌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들 화려한 옷을 입고 초원을 거대한 튤립 화단처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모든 손이 의도적으로, 하지만 잘, 그리고 꾸준히 일하고 있었지만, 가을 찌르레기 숲처럼 즐거운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시골은 오래전부터 멸시받거나, 소외되거나, 따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마을이 시골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기를, 시골이 마을의 지성과 생생한 삶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모리스는 실제로 경제적 자급자족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모든 교리에 열광적으로 동의했을 것이다. 그는 무역의 낭만과 유용성을 이해했고, 옛 런던 다리 아래 푸른 파도가 찰랑거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 ''불타버린 언덕 위의 주목나무로 만든 레반트 지팡이 몇 개가 놓여 있고, 그리스인들이 애써 채운 뾰족한 항아리도 있고, 먼 바다에서 가져온 귀중한 향신료도 있고, 피렌체의 금색 천과 이프르의 태피스트리와 브뤼헤의 천과 기엔의 통도 있습니다.''

아름답고 희귀한 것들은 반드시 무역을 통해 조달해야 했습니다. 수출로 먹고살고 "유리한 무역 수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현대 경제 교리가 없었다면, 그는 경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행복한 삶의 기반과 비결은 바로 자신의 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고전적인 표현은 고귀한 로맨스 소설 "산의 뿌리"에서 버그데일 사람들의 삶을 묘사한 그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소식"에서 영국은 막대한 외국 무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원에서 행복과 풍요로움을 찾았습니다.

국가사회주의와 모리스 사이의 또 다른 연결 고리는 국가사회주의의 ' 기쁨을 통한 힘(Kraft durch Freude)'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의 기쁨에 대한 모리스의 가르침과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선전의 상당 부분은 일을 저주로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모리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만약 평범한 일상의 일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과 피로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즐거움으로 할 수 없는 일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사회주의를 통해 모든 동료 노동자들이 자신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템스 강변 시골뜨기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무언가를 만드는 모든 사람이 유용한 물건 외에도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언급하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하게 질서 있는 사회에서는 일할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째, 명예롭고 합당한 일, 둘째, 건강하고 아름다운 집, 셋째, 마음과 몸의 휴식을 위한 충분한 여가."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것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해머스미스의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는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영광스러운 언어에 던져지는 고함, 비명, 그리고 모든 모욕"을 듣고 "잔혹하고 무모한 인물과 얼굴들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제 감정과 욕망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장 깊은 야만성에서 그들을 구해 줄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존감을 키우고 동료들의 칭찬과 동정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즐겁게 살 수 있는 집, 그들을 위로하고 고양시켜 줄 환경, 적당한 노동, 적당한 휴식." 그는 과도한 전문화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더욱 섬세하고 세련된 작업뿐만 아니라 긴장과 노력에도 있습니다. "News from Nowhere"에는 활기찬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열심히 도로를 수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그 일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유토피아적인 시대에 거친 작업이 점점 더 드물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리스와 국가사회주의의 또 다른 접점은 한 민족이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의 열렬한 열망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한 북유럽인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인종 차별 고집이 지나치다며 이의를 제기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고집을 낳은 세계주의는 혐오했고, 마음속 깊이 북유럽적이었습니다. 영국적 성격과 이야기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북방적 요소에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꾼으로서 그는 우리가 피와 힘을 얻는 고전과 켈트족의 뿌리를 온전히 살리고, 그 뿌리의 이야기를 애정 어린 열정으로 재해석했지만, 그의 가장 강렬한 열정이 솟구치는 곳은 바로 북방의 이야기, 특히 그가 "길 위의 시들(Poems by the Way)"에서 그토록 강렬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했던 아이슬란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두려움의 안개를 녹이는 마법"을 발견했고, 모리스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고, 돌아켜보며 "잘됐군, 당신들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었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에게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는 자신의 시구르드 볼숭에서 이 이야기들을 다시 쓰면서 온 힘을 다해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는 아이슬란드를 두 번이나 방문했고, 그곳을 우리 민족의 성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허약한 영국은 그 고무적인 강장 공기를 유익하게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훑어보기만으로도 모리스가 국가사회주의에 매우 현저하게 호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비판을 할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시인이었고, 시인의 내면에는 언제나 무정부주의자적인 면모가 배어 있습니다. 그에게 국가사회주의에 대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점은 국가에 가해지는 과도한 압박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고 시험되는 중대한 위기와 전환기에 강력한 통합 지휘 체계가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조직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사회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더 큰 자유가 요구되는 시기에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버릴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국가사회주의는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윌리엄 모리스처럼 강인한 선구자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가사회주의는 일단 새로운 형태가 확립되고 공고화되면 국가의 간섭을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스케프티쿠스”의 유대인 신화

에이 1936년 9월 노팅엄에서 열린 영국 협회 연례 회의에서, H.G. 웰스는 유대인들이 종교 사상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말했는데, 그는 그 부분이 매우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웰스가 연설하자 모든 계층의 유대인들이 반박하기 위해 나섰고, 많은 이방인 유명 인사들이 웰스의 견해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박에서 유대인들이 내세운 주요 주장은—처음부터 그래왔듯이—히브리 예언자들이 인류에게 유일신교를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히브리어 주장이 설형 문자 문서와 고전 작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히브리어 기원 시대와 팔레스타인의 유대 왕국과 일치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출처가 이러한 주장과 정반대의 내용을 증명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 아멘호텝 왕조 치하의 중제국(기원전 1750-1350년) 에 대한 이집트 문서는 기원전 1400 년경 아크나텐과 그의 궁정이 일신교를 국교로 도입함으로써 종교 혁명을 일으켰음을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케임브리지 고대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원이 다마스쿠스라는 라틴 역사가 유스티누스의 증거는 이제 텔아마르나 서신을 통해 충분히 확증되었습니다. 이 서신들은 수 세기 동안 가나안이 이집트 국경 지역에 불과했으며, 히타이트족이 자주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었음을 보여줍니다. 서신에 사용된 언어는 바빌로니아어였습니다.

텔아마르나의 이 편지들은 보가즈-케이우이의 히타이트 기록 보관소를 통해 더욱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두 서신 모두 하비루 라는 이름의 노예 계층을 언급합니다 . 모든 나라의 유대인 학자들은 하비루가 히브리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텔 아마르나 서신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낸 여섯 통의 서신은 우루살림(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압디히바가 쓴 것입니다 . 저는 이 압디히바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이집트식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는 시리아 출신이지만, 구약성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묘사합니다. 압디히바는 하비루(기원전 1400년경)에게 곤경을 겪습니다. 그는 서신을 통해 이집트에 군사 지원을 요청합니다. "나의 주, 나의 태양이신 왕께, 당신의 종 압디히바에게, 나의 주 왕의 발 앞에 일곱 번이나 엎드립니다. 그들이 저를 향해 주장하는 것은 중상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왕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이곳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왕의 팔이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

그는 파라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비루족이 왕의 요새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멸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라에 도움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서는 이러한 사실이나 그 이후의 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람세스 2세(기원전 1292-1225년)와 카데시의 히타이트족 사이에 벌어진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시 모든 조직된 국가들이 두 교전국 중 하나에 가담했던 전쟁입니다.

구전 전통을 제외하고는 어떤 출처에서도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구약성서는 아마도 바빌론 유수 기간인 기원전 585년 이후에 여러 세기 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출처에도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그 존재 가능성과 이야기의 대략적인 진실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나라인 아시리아가 그 당시 즉 기원전 1000년경에 몰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설형 문자 증거는 Jahur-Jehovah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이름의 유대인 기원에 대한 구약성서 전통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Zinjirli(유프라테스 강 중류 계곡)에서 발견된 아람어 비문은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기원전 740년)가 사말 땅을 침략했을 당시 실제로 Yaudi인 Y'di라는 작은 독립 왕국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Y'di 왕조는 기원전 8세기에 KrL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그의 뒤를 이어 Parra I.가 그의 신 Hadad에게 비문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 아람어 비문이 발견되기 전까지 유다의 Azariah(열왕기하 15장)와 동일시되었던 Yaudi의 Azrian 왕은 중기 유프라테스 왕조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계시는 또한 구약성서 이야기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군사 강국 시대, 즉 아수르나치르팔 2세(기원전 884-860년)부터 아시리아 멸망(기원전 612년)까지 아시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왕 한 명과 유다 왕 한 명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상합니다. 이 두 나라는 항상 아시리아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왕국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공국들이었습니다. 샤부아나사르 3세(기원전 859-824년)는 35년간 재위하는 동안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14차례 침략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간 침략을 최소 다섯 차례 언급했습니다. 티글라트-필레세르 4세(기원전 745-728년), 사르곤 2세(기원전 722-705년), 산헤립(기원전 705-682년), 아자르하돈 등은 차례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침략하고 유린했으며, 각각 여러 차례 침략과 유린을 자행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이집트의 아멘호테프 4세처럼, 조로아스터는 기원전 8세기 초부터 태양과 아후라마즈다에게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일신교였다.

선과 순수의 원천인 유일신 아후라마즈다는 조로아스터의 순교 이후에도, 그리고 아마도 그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증거는 아케메네스 왕조(기원전 548년 이후)가 아후라마즈다를 유일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로아스터가 기원전 8세기 전반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이주로 아시리아 제국 전역에 흩어진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조로아스터의 유일신 교리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성서는 바빌론 왕 나부쿠두르우추리(나부케드네제르)가 기원전 555년경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문헌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사색에 잠겼을 것입니다. 조로아스터교가 그곳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기원전 612-606년)의 완전한 몰락과 조로아스터를 다소나마 숭배했던 아리아 인종의 부상이 서아시아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유일신 사상은 바빌로니아인처럼 보수적인 민족 사이에도 깊이 뿌리내렸을 것입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 나부나이드(기원전 553-538년)는 밀려오는 파도를 의식하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구실로 여러 바빌로니아 도시들의 우상과 지역 신들의 형상을 모두 수도로 모았습니다. 이 조치는 지역 사제들과 그들의 추종자들 사이에 엄청난 불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키루스가 조용히 도시에 입성하여(기원전 538년) 바빌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켰을 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저항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구약 전승에 따르면 키루스는 유대인 포로들을 석방했습니다. 저는 태평한 페르시아인이 조공만 받으면 도시 주민들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유대의 유일신교가 바빌론 포로들을 통해 팔레스타인으로 전파되었다고 봅니다. 에스라 1장과 역대기의 다른 장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그러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의 결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종 의식이 성장했는데, 이는 기원후 71년의 대이산 이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 경험은 너무 많은 신들이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능하신 한 분의 신을 경배함으로써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내내 유대인들 사이의 공통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그리스어였다는 사실은 학자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물론 산헤드린과 사제단도 있었습니다. 셈족 원주민들의 주된 언어는 아람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 사제들이 서로 히브리어를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키케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 공화정에서 가장 총명하고 공정한 정치가입니다. 극심한 부패와 방탕이 만연한 세상에서, 그는 카토와 함께하며, 카토에게는 뇌물 수수나 부정 행위 혐의가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그의 지적 능력과 추론의 폭을 증명합니다. 수백 명의 집정관과 법무관들 중에서, 그는 킬리키아에서 명예로운 기록을 남기고 돌아온 유일한 집정관입니다. 키케로는 공정하고 정직한, 존경받는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는 외국에 대해 매우 객관적입니다. 그는 그리스인들의 경박함과 리디아인들의 노예근성에 대해 글을 썼지만, 그들 중 누구도 보르네오의 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의 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뿐입니다. Sequitur auri ilia invidia Iudaici.

다음은 유대인의 금에 대한 혐의입니다... Cum aurum Iudaeorum nomine quotannis ex Italia et ex omnibus nostris provinciis Hierosolymexexportarisoleret. - 이탈리아와 우리 모든 지방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금을 수출하는 것에 관하여. . . . Huic autem barbarae superstitioni resistance severibatis, multitudineum Iudaeorum flag-rantem non numquam in contionibus prae re publica contemnere gravitatis summae fuit. - 그러나 이 야만적인 미신에 저항하는 것은 존엄한 행동이었고, 다수의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

. . Non enim credo faithem et Iudaeorum et hostium impedimenta. - 우리의 적인 유대인들의 종교적 신조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 . 기타 등등

키케로의 이 연설은 아마도 라틴어로 쓰인 가장 아름답고 애국적인 작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이 나라의 공립학교와 대학을 위한 이 연설의 학교판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이유에서였습니다. 타키투스의 『역사』 도 같은 이유로 판본이 없었습니다. 타키투스(Annalium.il.85)는 티베리우스 황제 치하에서 원로원이 이집트인과 유대인의 예배를 금지하고 4,000명의 유대인 해방 노예를 로마에서 사르데냐로 추방하고, 나머지는 즉시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다고 언급합니다.

타키투스는 유대 왕국의 가장 성공적인 시기(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까지)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귀 머리를 숭배했다고 한 구절에서 언급합니다.(타키투스: Historiarum V. 2-5)

호라티우스와 유베날리스는 그들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소위 대제 콘스탄티누스는 서기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구약성경의 정경화를 허용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두 세대 동안 유대인들은 기독교 세계 전역에서 예언자의 아들로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5세기 초)가 지나자 유대인들은 콘스탄티노플과 알렉산드리아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국'에 대한 복수를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슬람 운동을 조직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여준 헌신에도 불구하고, 초대 칼리프들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광신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입니다.
"성서의 민족"으로서 아랍인들은 공식적인 초대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바스 왕조(서기 850년) 이전까지 이슬람은 유대인을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 전체가 개종을 강요당했고, 남자들은 이슬람 군대의 최전선으로 쫓겨났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A. 유수프 알리의 무슬림 세계와 팔레스타인

POST-WAR 팔레스타인에 대한 영국의 정책은 영국과 무슬림 세계 간의 관계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1920년대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오해는 충분히 심각했고, 1930년대에는 그 열기가 폭발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그리고 1938년, 세계 정세는 너무나 급속도로 악화되어 누구도 미래 세계 평화의 중요한 요소로서 팔레스타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 당국은 막연히 자신들의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2년 만에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두 개의 위원회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무슬림들의 강한 감정과 그 감정의 기반이 되는 확고한 근거입니다.

아랍 국가들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신문들은 매주 인도 각지에서 아랍인들에 대한 동정을 표하고 영국의 팔레스타인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무슬림뿐만 아니라 힌두교도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날을 여러 차례 기념하며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히즈라트(자발적 망명)와 정부에 대한 비협조가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네덜란드령 자바 무슬림들도 이와 같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정부에 큰 난관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 무슬림 식민지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감정은 프랑스 식민 정책이 직면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더욱 심화시킵니다. 아랍 국가들에서도 아랍 형제들에 대한 동정심과 팔레스타인에서 자행되는 억압과 불의에 대한 분노가 강하게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멘의 사이풀 이슬람 왕자는 1937년 대관식 대표단과 함께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자신과 국민의 깊은 애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여러 외교단이 참석한 리셉션에서 그는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공감하며, 아랍인의 시민권을 침해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멘은 그 이후로 침묵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라크는 더욱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현 이라크 총리는 일각에서 "엄중한 경솔함"으로 비판받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경솔한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영국 여론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오류로 오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최근(1938년 가을) 런던 방문은 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바그다드 자국민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강한 감정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웃 국가이자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지리적 영역에 속하는 트란스요르단은 물론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 국왕은 지금까지 외교적 침묵을 지켜왔지만, 그의 신하인 열렬한 이크완은 팔레스타인 사태를 플라토닉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아랍 집단 중 가장 중요한 집단에 속할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시리아는 주권 아랍 국가로서 새로운 자유를 향한 탄생의 고비를 맞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아랍의 시각은 다마스쿠스보다 더 중요한 현안은 없습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의 일부이며, 팔레스타인 반란은 신생 시리아 공화국에서 가장 열렬한 동정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무프티는 시리아 구성국 중 하나인 다마스쿠스에 피난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는 팔레스타인 아랍의 대의를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블루단(다마스쿠스 인근)에서는 여러 차례 국제 무슬림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회는 1938년 10월 카이로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는 여러 국가의 의회 소속 무슬림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회는 팔레스타인을 수호하고, 국가 정부를 수립하며, 실현 불가능한 팔레스타인 유대인 민족 본거지 건설이라는 구상을 폐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아랍의 대의를 지지하는 여성들의 국제 회의가 의회 총회 직후, 샤라위 부인의 주재로 카이로에서 열렸습니다. 이집트 국민과 종교 및 의회 지도자들 모두 이 대의에 전폭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아랍어권 세계의 지적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의 야망에 저항하는 데 있어 사실상 무슬림 세계의 만장일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의 기독교인들 또한 이 문제에 있어 무슬림 형제들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근동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으며, 무슬림 세계 전체가 이에 공감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국가들은 점차 세력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단단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란과 터키는 이러한 조약 중 일부에 가입했습니다. 아랍인들에게 한 약속과 상충되는 발푸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인구의 중요한 구성원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입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의 요구가 충족되려면 발푸어 선언 자체의 핵심 내용을 침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푸어 씨가 1917년 11월 2일에 로스차일드 경에게 보낸 편지에는 아래와 같이 이탤릭체로 표시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 본거지를 건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있는 기존 비유대인 공동체의 시민적,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 선언은 모호하고 아랍인들에 대한 영국의 선의와 모순되었습니다. 실제로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무슬림 세계에서 영국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 선언은 현재 세계 정치의 고질적인 골칫거리이며, 앞으로 많은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의 적들은 그곳에서 선전 활동을 위한 유망한 장을 찾고 있으며, 위기나 위험의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지적이고 현명한 여론이라면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적인 문제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정의의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신성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과 무슬림에게는 더욱 신성한 곳입니다. 기독교 건국의 핵심 사건은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 라스지드 알 아크사는 꾸란(17장 1절, 5절, 7절)에 성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기 70년 티투스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이후 1,868년 동안 유대인 들은 이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빌론 유수 이후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서 최고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약 6세기 동안(기원전 1254년 여호수아 시대부터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그들은 혼합된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인구는 많았지만, 서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권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간(기원전 1055년~977년) 두 세대 동안만 지속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됨)과 에돔, 아말렉, 모압 등 다양한 아랍 부족으로 구성된 인구에서 그들이 다수를 차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간헐적으로, 그리고 소수로만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 오히려 지중해, 홍해, 아라비아해, 페르시아만, 그리고 유프라테스-티그리스 강 유역으로 거의 둘러싸인 아랍 섬, 자지라트-우트 아랍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경제적으로 아라비아가 독립을 하더라도 모래 사막을 둘러싼 비옥한 해안 지대에 의존해야 자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영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행사하는 위임통치는 팔레스타인을 영국의 영토로 만들거나 영국이 원하는 대로 땅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은 "독립 국가"의 수탁자이며, 그 기능은 "행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지, 영토의 일부를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자국 영토로 점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연맹 규약(제22조)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터키 제국에 속했던 일부 공동체는 독립 국가로서의 존재가 임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발전 단계에 도달했으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위임통치국의 행정적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희망은 위임통치국 선정에 있어 주요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원주민 대다수, 즉 최근 유입된 이주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만장일치한 바람은 자신들이 주권 독립 국가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목표를 위해 싸우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기꺼이 피를 흘렸습니다. 따라서 영국에게 남은 유일한 명예로운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무를 포기하다;

주권국가로서 국민에게 영토를 넘겨주고 헌법을 제정한다.
사람들 자신들;

미래의 유대인 이민을 금지합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구성원으로 남고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기로 선택한 유대인 소수 민족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지방 자치에 대한 보장 조치를 취하되, factum vale quod fieri non debuit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국가에 편입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철회 선택을 허용합니다.

그러한 합의는 미래의 평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고통받는 아랍인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형평성, 양심의 가책, 그리고 실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양보라는 원칙에 따라 시정될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저질러진 마지막 악랄한 불의 행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A. 레이븐 톰슨의 파시즘과 변증법

E| 유럽에서 파시즘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적 과정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자 칼로부터 역사적 진보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듯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전략적 계획을 엉망으로 만든 이 예상치 못한 좌절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존 스트래치 씨처럼 파시즘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겠다는 자본가들의 결의의 조직적 표현"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파시스트 지도자들이 거대 자본가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방식이나 재정적 자유를 국가 복지에 완전히 종속시키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체계인 "유물론적 역사 해석"을 살펴보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헤겔로 돌아가야 합니다. 레닌이 말했듯이 "마르크스는 헤겔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헤겔은 분명히 유물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관념론자였습니다. 그는 우주가 모두 정신, 더 정확히 말하면 모두 "이념"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 카를 마르크스는 이러한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겔은 현상을 설명하면서 "변증법"이라는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미묘한 정신에 엄청난 매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헤겔의 "우주" 개념은 인간 지성의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며,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적 업적일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념"이 끝없는 자기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경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의 존재 자체를 포함한 모든 현상은 광활하고 복잡한 "변증법" 또는 논쟁의 조각들이었으며, 이를 통해 "이념"은 궁극적인 진리, 더 정확하게는 "자기 인식"을 추구하며 스스로와 논쟁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과학자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가정하는 것처럼 어떤 "명제" 또는 진리의 측면을 반복적으로 가정하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명제는 사실상 완전한 진실을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반명제" 또는 반대 개념을 강요하게 되고, 이는 "명제"의 불완전한 가정과 "변증법적"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마치 과학 이론의 반대자들이 그 이론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변증법에서 다음이 나올 것입니다. "합성"은 진리에 대한 더욱 면밀한 이해 속에서 정립과 반정립의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합성은 새로운,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정립을 형성할 것이므로, 궁극적인 지식을 향한 점진적인 추구 속에서 추가적인 변증법적 투쟁, 추가적인 합성 등을 촉발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 연구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헤겔은 매우 자연스럽게 인간, 특히 조직되고 문명화된 국가를 이념의 변증법적 완성에 있어 가장 진보된 도구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헤겔이 국가 숭배를 옹호했다는 다소 오해된 의견의 기원입니다. 사실 헤겔은 범신론자였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열렬한 일신론자였을 것입니다.

마르크스와 변증법

마르크스는 헤겔의 지적 능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헤겔의 체계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위에서 언급했지만, 그는 계급 전쟁에 대한 설명과 정당화로서 변증법적 과정에 집착했습니다. 인간과 조직된 국가에 대한 헤겔의 존중을 공유하며,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과정 하에서의 사회 발전에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회를 헤겔처럼 지식의 도구가 아닌 생산의 도구로 보았고, "노동자"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의 유일한 계층으로 여겼으며, 기생충과 비생산자에게 권력과 명예를 부여하는 사회의 불완전성을 비난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역사 해석"은 계급 없는 사회의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진 사회 계급 간의 변증법적 투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적 계획은 헤겔 철학의 숭고한 보편 개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관념론과 유물론을 완전한 존재 철학으로 거부하는 모든 실재론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적 생산자를 선호하는 마르크스주의적 편견을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술, 과학, 종교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예로운 자리를 여전히 유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계층, 특히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부의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계층에 의한 사회의 지배에 반기를 듭니다.

펼쳐지는 문명

헤겔 철학의 궁극적 진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어떠하든, 헤겔의 정립, 반정립, 그리고 종합이라는 "삼원론"이 자연과 사회 모두에서 존재의 근본적인 리듬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는 것부터 남자와 아내가 결합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것까지, 동일한 근본적인 삼원론적 토대가 존재합니다. 사회에서도 동일한 법칙이 지속적인 역동적 과정에서 적용되며, 마르크스는 의심할 여지없이 옳게도 이러한 과정이 완벽한 무계급 사회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유럽 문명의 발전을 통해 이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대 유럽은 로마 제국에 대한 야만인 무리의 영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변증법적 과정의 사례가 또 있을까요? 인위적이고 유물론적이며 퇴폐적인 로마 문명의 명제는 자연적이고 관념적이며 남성적인 독일 야만주의라는 반명제에 의해 도전받았습니다. 정복, 재정복, 노예화, 그리고 파괴 행위라는 치열한 변증법적 투쟁 끝에, 로마의 폐허 위에 봉건 제도가 등장하면서 거의 완벽한 종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야만인 지도자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칭호인 '둑스(dux, 공작)', '카메스(comes, 백작)', '임페라토르(imperator, 황제)' 등을 사용하며 농민들을 지배했지만, 얼마 전 로마 궁정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봉건 제도는 전적으로 군주에 대한 군사적 복무의 대가로 무력으로 보호하는 군사력에 의존했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마르크스가 완전히 무시했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군사력은 완전한 반정제적-정신적 권력을 촉발했습니다. 봉건 영주의 권력은 사제의 권력에 도전받았고, 중세는 교회와 국가 간의 치열한 투쟁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교황과 황제의 경쟁은 카노사에서 교황청의 승리로 끝났고, 십자군 전쟁에서 군사력과 정신력의 놀라운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집중된 교황의 수위권은 지역 귀족들에게 용납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종교 개혁으로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유럽의 독립 국가를 건국하면서 기독교 세계의 기존 통일성은 깨졌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들이 절대 군주제에 헌신하기 위해 연합하면서 또 다른 통합이 뒤따랐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이것은 헨리 8세의 무자비한 방법이나 추기경을 국가 원수로 삼은 루이 14세의 교묘한 수완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국가 모두에서 군주제의 통합은 세속적 권력과 영적 권력의 변증법적 투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러나 군주제는 출생과 성직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방패이자 정당화에 불과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봉건적"이라고 잘못 부른 귀족적 특권 말입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유일한 관심사인 짧은 역사의 시기, 즉 유물론적 동기가 관념론적 동기를 압도하고 계급 지배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필연적으로 평민들은 귀족적 허세에 반발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대반란, 프랑스 혁명, 1848년의 "광년"은 귀족제의 전복으로 끝난 거대한 변증법적 투쟁의 단순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한 종합의 논리는 하나의 특권을 끝내고 이전보다 더 나쁜 또 다른 특권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돈에 눈이 먼 시민들이 토지 귀족제를 대체했습니다. 출생의 특권은 부의 특권으로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귀족정은 금권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특권적인 재산 소유자와 노동자와 농민으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낫과 망치를 휘두르는 강탈당한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이의 계급 투쟁이라는 새로운 변증법이 등장했습니다. 봉건 지주처럼 산업 자본가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순전히 힘에 의지했고, 봉건 지주처럼 그의 긍정적 권력에 대한 부정적 저항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권리 호소에 직면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파업과 노동 거부권을 강력한 방어 무기로 발전시켰습니다.

조직은 이 작전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서구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광범위한 노동조합 운동이 형성되었습니다.

산업 자본가들은 그들만의 거대한 트러스트와 콤바인을 건설함으로써 대응했고, 이는 곧 국경을 훨씬 넘어 국제 금융의 궁극적인 자본주의적 지배자들에 의해 연결된 국제 연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편 노동자들 또한 노동조합을 더욱 큰 조직으로 확장하고 국제적 제휴를 모색했으며, 결국 모스크바와 스탈린이 세계 혁명의 주도권을 잡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제 금융과 국제 사회주의라는 경쟁 조직들이 성장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적 천년왕국을 위한 최후의 투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을 위해 결집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유사성으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천년왕국을 꿈꾸었던 황제와 교황 치하의 봉건 유럽의 국제 조직과 유사했습니다.

왜 이 천년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었는가? 최근 몇 년간의 과학적 발명과 기술 발전으로 생산력은 엄청나게 확장되었지만, 대중의 생활 수준은 여전히 낮고 사회 여건은 비참하다.

한편, 생산 효율을 높이는 것은 단지 엄청난 수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사회 혁명은 실패로 끝날까요?

권력의 특권

권력을 위한 조직은 그 자체로 부패를 초래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거대 노동조합 조직의 발전은 그 조직의 지도자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계급 전쟁의 정점에서 자신들의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고 계급 없는 국가를 만드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러한 조직들은 주된 정당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무역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지휘하는 노조 지도자는 수백만 달러의 돈을 지휘하는 독점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막대한 개인적 권력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 부패한 종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가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은 휴전을 맺고, 나중에는 양측 모두에게 매우 이로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동맹까지 맺습니다. 첫 번째 배신은 노동조합 지도자 벤 터너가 국제 유대인 금융가 알프레드 몬드(후에 멜첫 경)를 만나 파업 무기를 거부하는 악명 높은 몬드-터너 협정에 서명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심각한 배신은 최근 노동조합주의의 수뇌들과 세계 자본주의의 금융가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쳤을 때 발생했습니다. 계급 전쟁을 위한 확장된 조직 수단으로 처음 추구되었던 국제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노동자들은 이를 위해 임금, 노동조건, 그리고 생명 자체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비시니아와 체코슬로바키아, 중국과 스페인을 향한 호소가 이어지고, 국내에서는 실업과 빈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특권을 지키려는, 이번에는 권력의 특권을 지키려는 익숙한 투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서구 세계에서 벌어진 마르크스주의 계급 전쟁의 비참한 결말이다. 출생의 특권은 부의 특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둘 다 인간의 주인과 돈의 주인이 소유한 권력의 특권에 굴복한다.

계급 없는 혁명

그러나 변증법적 과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해 "멈춰라"라고 외칠 수 없듯이, 조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 특권이라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그 반명제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반명제는 금융 및 노동조합의 폭정 아래 고통받는 모든 계급의 대중적 운동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계급 없는" 국가에 대한 희망이 등장합니다. "사장 통치"의 반명제는 "계급 없는"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급적 특권은 이제 청산되었습니다. 소수만이 수백만 명의 노동자나 수백만 개의 주식으로 부여된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늘날 그 권력을 행사하여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맞서 계급 없는 혁명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 새로운 혁명 세력이 국가적 형태를 띠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애국심만이 공동체의 모든 계층을 공동의 행동으로 하나로 묶는 감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층이 외국인(대부분 유대인)이나 국제적 시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행사하는 폭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국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파시즘은 사회의 변증법적 발전에 그 역할을 합니다. 20세기 혁명 운동은 18세기 민주주의 운동이나 19세기 프롤레타리아 운동처럼 역사적 과정의 진정한 일부입니다. 실제로 다음 종합은 이미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권력 행사는 대중의 반란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반란은 개인 권력에 대한 분노에 찬 거부라는 무정부적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종합의 법칙에 따라 대중의 반란은 폭정을 타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파시즘의 원칙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이름으로 행동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중의 국가 지도자가 권력을 책임감 있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국민 반란에 의해 도전받는 무책임한 권력은 국가를 위해 권력을 행사할 책임을 지는 진정한 국가 권위의 종합을 만들어냅니다.

투쟁의 종말?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파시즘의 무계급 혁명이 사회 과정을 종식시키고 무계급 국가를 완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만이 남았습니다. 이는 대체로 미래의 문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변증법이 이제 민족을 넘어 세계 질서의 완성으로 나아가거나, 정치를 넘어 문화 영역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급 없는 혁명이 공산주의와 같은 의도적인 계급 혁명보다 무계급 국가를 창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예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공산주의는 소련에서 계급 경쟁에 여전히 맹렬히 집착하며, 이미 숙청된 소수 공산주의자들의 관료적 폭정을 빠르게 구축하는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파시스트 국가가 사회의 유기적 구조를 확립하고 모든 인위적인 계급 구분을 국가 봉사에 종속시키는 데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계급 없는 혁명이 계급 없는 국가의 건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마르크스가 비난했던 계급 특권을 위한 투쟁의 종식을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하는 듯합니다. 마르크스주의 국제 혁명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국민 혁명이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파시스트는 투쟁이 멈추고 정체가 이어지는 유대교의 "천년왕국"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시대의 악에 맞서 싸우고, 추악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역사적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계급 투쟁은 물질적 이기심의 징후입니다. 중세 유럽은 다른 목표와 더 높은 이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구인이 더 고귀한 것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계급 투쟁을 종식시키자. 우리는 미래의 투쟁,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갈등을 환영한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프랜시스 맥보이의 토지를 물려 받지 못한 사람들

여기 여러분처럼 영국의 농민들처럼 광활한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의 파괴적인 폭정에 쫓겨 척박한 도시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전에는, 매일 아침 맑은 공기 속에서 새들의 노랫소리, 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 따스한 햇살, 서리의 따가움, 풀밭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기분과 모든 계절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 따라서 가장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 즉 튼튼한 건강과 마음의 평화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법이든 신의 법이든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 아주 적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저 적당한 보상을 위해 일해서 조상의 땅에서 살아갈 만큼의 돈을 벌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에는 암울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국민을 사무실과 공장에 몰아넣고 농업은 외국인에게 맡겨두는 체제 때문에 우리는 파괴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 식품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신체적, 지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든 간에
전쟁 시에는 기근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수익성 있는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도시로, 경제적 노예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점원, 공장 노동자, 체인점 직원이 되었고, 얼굴에 묻은 햇볕을 버렸고, 임금 노예처럼 불안하고 영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쏟아준 축복에 감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싸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탐욕, 물질주의, 하찮음,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욕구와 본능에 대한 상업적 착취를 구현하는 민주주의 말입니다. 소련을 제외하고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인간성의 멍청함입니다. 대량 생산된 자동차처럼 표준화된 "작은 인간", 서비스 아파트와 교외에서 온 "배빗" 무리가 "우리의 영국"에서 선전되고 착취되고 잔혹하게 만들어지기를, 만세!

아직 모두가 땅을 떠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통받는 남은 자들은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경제 질서, 즉 공장과 농장의 내전을 벌이는 경제 질서에 맞서 얼마나 더 싸워야 할까요? 영국의 자작농, 농민 여러분, 우리 땅은 도시에 모든 중점을 두고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구하는 수출 자본주의의 노예입니다.

줄어드는 당원 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현혹된 표의 찬사를 얻기 위한 일시적인 완화책 외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을 위해 무언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영웅에게 어울리는 집"이라는 경멸스러운 기억의 슬로건만큼이나 가치 있는 보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영국인으로서의 남성성과 전통을 걸고 마지막으로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영국 연합은 당신과 영국을 구원할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들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당신도, 우리도, 대중의 이익에도 어긋나는 이해관계에 도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방 캠페인이 그토록 무관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당신의 정치적 견해가 "옛날 갱단"의 허튼소리에 마구잡이로 국한되어 있어도, 당신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말해줄 건가요? 저희 정책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판단하세요. 푼돈을 쥐어짜는 언론사의 기만적인 유혹 없이 말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여러분은 우리가 열렬한 민족주의자이며, 영국 국토의 안녕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산업 또한 번영할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농업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편향된 반사회적 경제 대신 정의롭고 건강한 균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골에서 온 우리 망명자들은 여러분 중 누구와 마찬가지로 땅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폭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더라도 영국 국민을 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골의 죽음은 국가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흙에서 모든 생명, 육체적, 정신적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당신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깃발에 새기고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A. Raven Thomson 의 기업 경제학

에이 현대 경제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현대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풍요 속에서도 우리 대부분을 빈곤에 빠뜨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박탈하며, 세계 시장 축소를 위한 국제적 투쟁에서 전쟁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의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조직 사회의 세 가지 본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 중앙 정부는 국가 생활을 계획하고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양한 목적과 관심사를 가진 여러 사회 집단.
- 주도성과 진취성을 갖춘 개인들의 집단.

19세기 고전 경제 이론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의 세 번째이자 가장 조직화되지 않은 측면에 집중하며, 국가나 집단의 경제 문제 개입을 반대했습니다. 비교적 빈곤했던 초기 시대에는 이러한 관점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개인의 주도성과 진취성은 잠재적 생산력을 개발하고 기술 발명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자신의 주도성과 진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며, 이는 바로 맨체스터 학파 경제학자들이 "자유 방임주의"와 자유 무역을 옹호했을 때 요구했던 바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희소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이점을 가져다주든, 풍요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회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고전 경제 이론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 조직과 무관한 절대적인 경제 "법칙"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주의 체제가 희소성 시대에 매우 필요했던 것은 분명하며, 생산 문제를 해결한 맨체스터 학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완전한 착취의 자유에 의해 장려되는 개인 기업은 희소성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풍요를 전체 국민에게 분배하는 데는 전혀 실패했습니다. 생산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거나 기껏해야 집단적 과정입니다. 반면 분배는 전체 공동체의 필요에 기반하며, 상당한 수준의 의식적인 사회 계획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와 계급 전쟁

개인주의가 이제 그 유용성을 잃고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기에, 경제적 이익의 초점을 사회 집단, 아니 국가 전체로 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현 체제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집단적 용어를 채택해 온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집단적 고려를 초월했다.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겠다는 그들의 거창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매력은 계급 분화를 과장하고 "계급 전쟁"을 고집하는 데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계급 의식적 교리는 분명 사회 집단의 영역에 속하며, 전체 공동체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는 데는 실패한다. 실제로 사회주의자가 국제주의를 강조하고 애국심을 부정하는 것은 계급적 고려를 훨씬 뛰어넘어 민족적 목적의 실현에 이르러야 하는 사회 조직의 완전한 함의를 파악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러시아 소비에트 정권이 스스로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주장할 때, 궁극적인 "귀류법(reductio ad absurdum)"에 도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는 한 집단이 민족적 삶에 대해 영구적이고 의식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계급 전쟁은 풍요의 시대에 순전히 터무니없는 일이 됩니다. 모두에게 풍요가 가득한 시대에 계급 간의 투쟁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계급 전쟁은 희소성의 시대에 남은 끔찍한 유물에 불과하며, 오늘날 우리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 때문에 이 시대까지만 지속될 뿐입니다. 분배 문제를 해결하면 계급 전쟁은 종식됩니다. 어쨌든 사회를 전쟁하는 계급으로 분리하는 것은 대체로 칼 마르크스의 인위적인 발명품입니다. 현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소유 계급과 피착취 계급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대형 주식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대 산업의 발전으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많은 수의 조직자와 엔지니어, 전문가와 기술자가 개입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회를 고용주와 근로자로 구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이익이 상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적대 세력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양측 모두에게 집단적 조직이 주는 이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든 기업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근로자가 너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고용주에게는 남는 이윤이 없고, 반대로 고용주가 임금을 강제로 낮출 수 있다면 고용주는 더 높은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용주와 근로자 전체가 상대방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계급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이익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대 산업의 필요성은 분명 크고 확장되는 시장입니다. 허황된 국제 무역에서 이러한 시장을 찾으려는 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처참하게 실패했고, 그 결과 이제 산업가들은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의 구매력은 임금률에 따라 크게 결정되므로, 근로자들이 현대 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실제로 고용주의 이익이 됩니다.

사회주의 노동자들이 계급 투쟁에 대한 신념을 임금 인상을 거부할 정도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용주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 개념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개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교리 역시 사회 전체의 희생으로 사회 집단을 찬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잘못되었습니다. 파시즘은 세 번째 대안으로 눈을 돌려, 공동체를 충분한 권한을 가진 중앙 정부의 통제와 계획에 따라 조직된 단일 기업 국가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전체의 복지를 보호하고 국가적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개인과 집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를 더 높은 차원의 유기체로 보는 공동 개념이지만, 본질적으로 인체와 유사하며, 기관과 기능이 집단적 목적을 위해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 조직의 필수적 기반이며, 유명한 노동 헌장의 규칙에 따라 공동 이익에 따라 이탈리아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제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목적 개념에 기반한 이러한 시스템은 사회적 필요에 따른 경제적 조정이라는 새로운 과학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경제 과학이 오랫동안 세계의 상업 중심지였던 이 나라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시스트 정치 헌법을 최초로 채택한 나라인 이탈리아와 독일이 세계 대공황의 압력에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잘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경제적 측면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이 프랑스와 유럽 대륙에 먼저 도입되었지만, 자유주의의 경제적 함의를 맨체스터 학파의 개인주의자들이 구체화한 것은 영국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험하고 거의 재앙에 가까운 경제 이론을 세계에 전파한 것은 영국이었으므로, 파시즘의 새로운 원칙을 경제 분야에 적용하고, 불신받는 자유주의 자유 무역의 잔재를 대체할 미래의 상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영국의 의무임이 분명합니다.

기업 원칙

그러한 과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논의의 일부가 될 수 없지만, 기업 경제학의 특정 원리들은 현재의 개인주의와 상반되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구시대의 본질적인 기반이었던 개인적 이기심에 사로잡힌 "경제인" 대신, 개인이 애국심에 봉사하는 "경제 공동체"가 등장할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하는 계층 대신, 전체 공동체에 기능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단결하는 직업 집단이 등장할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 투쟁하는 개인들의 경쟁, 모두가 모두를 상대로 싸우고 악마가 가장 먼저 패배하는 상황 대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개인들이 협력하는 상황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의 혼란 속에서 규율과 통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계급 투쟁의 불길을 부채질하고 사회주의 선동가에게 "자본주의"를 공격할 근거를 제공하는 현 체제의 공포는, 상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증진할 만큼 충분한 재산이나 자본을 축적한 권력자가 경제적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서 주로 기인합니다. 파시즘 하에서는 어떤 개인도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력 행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정부의 독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적 자본의 폐지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사회주의자에게 완전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적 자본가가 과거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적 소유의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사회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 소유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진실은 사회주의자가 자본가의 부와 권력을 시기하는 불만에 찬 부르주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암묵적으로 소유주가 무엇을 하든 할 수 있다는 부르주아적 원칙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그는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착취에 대한 대안은 선한 자본가를 악한 자본가로 압도하는 대대적인 몰수 외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파시즘은 자본과 돈이 개인에게 과거에 남용했던 권력을 부여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권자에게 토지의 가장 강력한 기득권자들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행동 수단을 요구합니다. 오스왈드 모슬리가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듯이,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은 국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파시즘 하에서 국가는 자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경제 문제를 세부적으로 계획하려 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이는 건강한 정치 체제의 필수적인 부분인 모든 집단 조직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 나라를 급속히 사회화하고 있는 관료주의의 현재 위협을 영속시키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회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화이트홀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이는 휴어트 대법원장이 예언했던 "새로운 전제주의"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파시즘 하에서 이러한 관료적 통제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기능적 조직 체계를 따라 국가의 주요 산업과 산업 집단을 통제하는 기업으로 다시 이양될 것입니다. 농업, 어업, 운송, 광업, 의료 분야의 기업이 화이트홀의 각 부처를 대체하게 될 것이며, 각 산업과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온 사람들이 상임 정부 관료보다 화이트홀을 통제하는 데 훨씬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 자치 제도는 현대 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공공시설의 광범위한 계획으로 인해 빠르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지방 자치 제도를 대체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단 조직은 과거의 경직된 구조적 기반에서 미래의 보다 유연한 기능적 기반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산업과 관련된 모든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을 것이며, 고용주, 근로자, 소비자 모두 기업 이사회에 대표될 것입니다. 고용주는 고용주 연합을 통해,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대표될 것이며, 정부는 일반 대중과 해당 제품에 특히 관심이 있는 다른 기업들의 이익을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 대표를 임명할 것입니다. 기업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임금 및 근로 조건 기준을, 그리고 고용주와 소비자 간의 가격 및 경쟁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모든 합의는 산업 전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실상 기업의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나 근로자는 법원에 회부될 수 있는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용주 연합과 노동조합은 해당 산업의 100%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의 규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적절한 중재 수단이 마련되면 파업과 직장폐쇄는 당연히 금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용주, 근로자, 또는 소비자는 모든 산업계 기업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기업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산업 관행과 국가 복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러한 권한 이양과 자치권을 통해 중앙 의회는 현재 의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세부적인 법률 제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조직의 사용

지금까지 새로운 경제학은 흥미로운 새로운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용성은 의심스럽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상당한 복잡성을 보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단순히 지적인 연습으로 고안된 것이 아니라, 현 시스템이 특히 취약한 부분에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보수당이 "과잉 생산"이라고 부르던, 하지만 "과소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수 있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최악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스템의 이러한 결함은 사람들이 현대 과학과 기술의 막대한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달성함으로써만 시정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주의 시스템은 이미 과잉 재고된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풍요로운 시기에 임금이나 이윤의 형태로 구매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가격 인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시즘 하에서는 가격과 경쟁 조건이 통제될 것이며, 어떤 제조업체도 경쟁업체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기업의 규정에 반하여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구매력 감소를 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공동 행동을 통해 임금 체계 전체를 영구적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매우 타당하며 최근 몇 년간 여러 공직자들이 옹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고용주라도 국가 부흥을 위해 노동자 임금을 인상하려 할 만큼 어리석다면, 곧 수많은 비애국적인 경쟁자들이 나타나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주를 시장에서 몰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조직화된 파시스트 정권의 규율과 통제 하에서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실업이라는 큰 재앙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실업은 현재 우리 국가 경제의 완전한 조직 부재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언제나 일정량의 작업이 인력 시간으로 계산되어 수행되어야 하며, 이 작업을 기꺼이 하고 싶어하는 일정 수의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탈리아처럼, 노동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전체 근로자 수에 걸쳐 노동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라의 파시스트 정부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 이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실업 문제는 계획된 기업 국가 조직을 통해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금융의 기능

현 체제의 주요 결함 중 하나는 사회의 다양한 직종과 전문직에 전체에 봉사하는 기능적 목적 의식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융 분야에서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는데, 은행가와 금융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폐 권력을 부끄럽게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국민의 복지보다는 외국 채권 시장의 수익성 있는 수익에 훨씬 더 관심을 두는 고급 금융 독재 정권에 지배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시스트 정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러한 국제 금융 독재를 무너뜨리고, 국가가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의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에게도 기능적, 사회적 목적을 강요할 수 있는 권위적인 정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자주 잊히고 있는 화폐의 기능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화 교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오늘날의 금융과 서비스는 금융이 사회에 대한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술자와 발명가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화폐와 기타 교환 수단이 유통되지 않는 한 국민의 삶의 질은 결코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명과 산업 합리화의 유일한 결과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에서 내쫓는 것뿐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심각한 화폐 제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은행들이 디플레이션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물교환 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금본위제 통화에 여전히 집착하는 선천적인 보수주의가 있습니다.

둘째, 금융가들은 거래하는 상품의 양을 제한하면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신들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유통되는 화폐량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국가의 잠재 생산량에 맞춰 조정되지 않고, 중앙은행 금고에 있는 특정 귀금속, 즉 금의 공급량의 일정 비율로 제한됩니다. 이 귀금속의 가용 공급량은 금융이 해결해야 할 분배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며, 사실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은 현대 산업의 막대한 생산력을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 거물들은 산업 발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화와 신용을 확대하는 대신, 세계 금 공급량에 따라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금본위제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국제 금융가들은 세계 정세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고 있지만, 이는 풍요 속에서도 세계 대부분을 빈곤에 빠뜨리는 대가일 뿐입니다.

파시스트 정부는 산업에 대한 금융의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지배를 뒤집을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금융은 산업에 봉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이 찬탈한 산업 정부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런던 시티의 외국인 주식 상장을 통해 국내 생산과 경쟁하는 외국 생산을 장려하는 행위는 종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금융가와 은행가들은 과거에 그토록 꾸준히 소홀히 해 온 유통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무역의 미래가 국내 시장의 부활에 달려 있음을 지적했으며, 금융은 이제 국민의 구매력을 높여 이러한 부활을 가져올 수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은행업의 가장 신성한 모든 전통과의 엄청나고 혁명적인 단절을 수반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적인 특징은 소비 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은행가들은 상업 분야에서 생산 자금 조달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할부 금융은 당장의 매출을 위해 미래의 구매력을 담보로 제공할 뿐, 실질적인 소비 자금 조달에는 기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산력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규모의 임금과 급여를 조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현재처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개인주의 체제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불가능하며,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당좌 대월을 요청하는 고용주는 마땅히 미치광이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같은 행동을 하거나 임금을 낮춰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 인상을 자주 주장해 온 비버브룩 경도 이 근본적인 어려움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경제학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임금률과 노동 조건을 통제하고 규제해야 하므로 파시스트가
정부가 더 높은 임금 정책을 시행하면 비애국적이거나 외국인이 통제하는 회사가 경쟁자를 이용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동일한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은행에 가서 자신의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당좌 대월을 요청한다면, 은행가는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 전체의 구매력 증가가 자신이 거래하는 특정 회사의 주문량 증가와 번영으로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파시즘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필요한 더 많은 양의 통화와 신용을 유통시킬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통화 확대 정책은 금본위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수반할 것이고, 보수적인 비평가들은 그 결과로 통화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시즘은 화폐가 사실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권리이며,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은행에 가서 금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로 교환할 수만 있다면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는 분명히 풍부한 재화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창고에는 재화가 비축되어 있고, 2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헛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용 재화와 서비스로 보장되지 않는 지폐를 발행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파시즘은 영국은행의 협소하고 불안정한 금 기반 대신, 국가의 전체 생산 자원이라는 광범위한 토대를 바탕으로 통화를 발행할 것입니다.

제국의 자급자족

이러한 기업적 산업 조직 정책에 대한 유일하게 타당한 비판은, 이 나라가 대외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들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를 생산하면서도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했던 헨리 포드의 사례를 참고하면 반박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거대한 국내 시장 덕분에 대량 생산 방식을 도입하고 생활 수준이 훨씬 낮은 국가들의 시장과 유리하게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해외 시장을 잃고 있는데, 이는 우리 상품이 경쟁국 상품보다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극복할 수 없는 관세 장벽으로 인해 시장이 폐쇄되고 그 장벽 뒤에서 토착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품이 아무리 저렴해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자국 산업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내어 그 상품을 구매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인과 같은 동양인은 임금률 문제를 고려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수출 무역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복지에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내에 상품을 보관하여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신, 외국인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런던 시티의 금융 거물들만이 장기적으로 과도한 수출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흑자를 바탕으로 막대한 해외 차관을 발행하여 막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필수적인 수입품 구매에만 실질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수입품을 배제함으로써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제조품이 수입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며, 단지 우리 자원이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농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ebook converter DEMO Watermarks*******에 가기 전에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나머지는 해외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최대한 다양한 상품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 필요한 상품 중 영국 제국의 어딘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파시즘은 편협한 소잉글랜드 정책이 아니라, 제국 전체에 제공할 수 있는 자급자족적 발전이라는 거대한 제국주의적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오타와에서 제공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몫의 국내 시장이 자치령에 제공될 것이며, 외국 경쟁은 완전히 배제될 것입니다. 제국 전체가 그러한 경제 체제에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체제는 세계 경제 위기와 세계 공황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제국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구축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시즘의 기업 원칙이 국제 무역에 적용된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수입업자는 더 이상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외국무역위원회(Foreign Trade Board)를 통해 거래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무역위원회는 해당 국가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파시즘은 처음부터 영국이 영국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나라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이며, 외국이 우리에게 부족한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그 대가로 우리 상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결국 우리는 국가 간 조직적인 물물교환이라는 일반적인 시스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제 금융의 책략이나 국제 고리대금의 채권에서 자유로운, 계획된 국제 무역의 유일한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기업 세계 질서

파시즘이 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자기중심적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파시스트 철학의 본질적인 특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시즘이 국가적 경쟁을 함축하고 경제적 이유로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입니다. 오히려 현 체제의 매우 심각한 위험은 세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극동 지역에서는 이미 시장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고, 유럽 열강들이 그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간신히 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화된 경제 계획 시스템은 전쟁의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전쟁의 경제적 원인을 인간의 의식적인 통제 하에 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각국이 이웃 국가에 최대한 많은 수출품을 쏟아붓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완전히 기업적으로 통제하는 권위 있는 정부들이 모여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를 공유하고 교환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재 생산물이 부족하지 않고, 실제로 시장 범람을 막기 위해 생산량을 대폭 줄였으므로, 국가들이 서로를 해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린 후에는 비교적 간단한 이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 세계에는 분명 경쟁이 있겠지만, 경쟁이 아니라 성취를 향한 경쟁입니다. 질서 있는 세상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회와 경제생활의 기업 조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의 국정을 정비하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다합시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제임스 드레넌의 나치 운동에 대한 관점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은 히틀러가 "드리테 라이히(Dritte Reich)"의 지적 영감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이탈리아 민족주의에 엄청난 인종적 배경을 부여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과거 역사의 주장에 현대 정책을 기반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로마의 지배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솔리니는 로마의 영토적 영광을 문자 그대로 되살리는 것보다는 파시즘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궁극적인 범유럽 연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히틀러는 독일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둔 독일(또는 아리아) 인종적 배타성이라는 이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적 개념은 제대로 이해된다면 서구 사회 재건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할 신조로서의 파시즘에 대한 이탈리아의 이해와 어떤 식으로도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파시즘을 촉발한 대영 제국이라는 고상한 개념과도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해 충돌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계 파시즘 이론에 대한 다양한 기여는 파괴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일 수 있다.

나치가 역사에 대한 인종적 해석을 채택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기 프랑스인 고비노와 영국인 휴스턴 스튜어트 체임벌린과 같은 비독일 작가들이 처음 정립하고 나치 지도자들이 독일 대중이 수용한 혁명적 이상의 기초이자 독일 제국의 현 국가 정책의 원동력으로 채택한 인종적 해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천 년 동안 독일 역사의 특정 조건과 추세를 고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현대 독일 국민의 신념의 토대를 파악하고, 독일의 지배자들이 자신의 신념의 타당성을 굳게 믿는 국민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큰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세기에 고대 로마의 제국 개념을 진정으로 계승한 것은 게르만족이었습니다. 서방 황제라 칭해진 샤를마뉴 제국은 프랑스인보다 민족적으로 더 독일적이었고, 프랑코-골리스트적 요소가 독일인과 구별되게 된 것은 그의 사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의 영토 내 여러 지역의 상속인들이 각각 프랑스어와 독일어 방언으로 선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13세기까지 호엔슈타우펜 황제들은 이탈리아 전역과 현재 프랑스의 상당 부분을 독일 제국의 속주로 간주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독일이 엘베 강 동쪽으로 거의 뻗어 있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부르고뉴, 사보이와 프랑슈콩테의 일부 지역은 서로 다른 정도로, 그리고 서로 다른 시기에 제국의 영토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 교육의 단점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역사를 유럽의 다른 지역 역사와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825년 루트비히 1세의 즉위와 1250년 프리드리히 2세의 죽음 사이의 4세기 동안, 즉 우리 역사에서 알프레드 대왕과 하인리히 3세의 통치 기간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유럽의 역사는 대체로 독일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역사가 극도로 지방적이었던 시기, 즉 현대 노르웨이의 개별 역사가 현대 유럽의 역사와 다른 것처럼 유럽 역사의 주요 흐름과 동떨어져 있었던 시기에, 독일은 유럽의 탄생을 목격한 위대한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중세 유럽 문화와 하인리히 파울러, 오토 대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와 같은 황제들은 서유럽의 중재자이자 유틀란트 반도에서 시칠리아, 부르고뉴에서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주도자가 되었습니다. 현대 독일인들의 마음속에 이 시기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역사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꼈는지, 그리고 전후 유럽의 영토적 상황에 대한 좌절감과 같힌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거의 천 년 전인 973년에 사망한 오토 대제는 지난 몇 년 동안 나치 판테온의 최고 인물이 되었고, 그의 초상화는 히틀러나 괴링의 초상화만큼이나 자주 독일 서점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독일 역사의 전체 과정은 "발전 정지" 현상의 한 예이며, 우리가 현대 독일 국민 심리와 연관 짓는 독특한 현상들은 그 필연적인 파생물인 "좌절 콤플렉스"에서 비롯됩니다. 호엔슈타우펜 왕조의 권력의 범위와 변동 자체가 독일 국민의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이 계통의 훌륭한 황제들은 샤를마뉴의 범유럽 제국이라는 꿈에 매료되었고, 한 세기가 넘도록 이탈리아의 야망을 추구하는 데 독일인의 힘을 낭비했습니다. 오토 대제의 초기 정책은 위대한 독일 국가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엔슈타우펜 왕조는 합스부르크 왕조가 계승하게 된 범유럽적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호엔슈타우펜 가문의 몰락은 독일을 약화시키고 중앙 세력을 잃게 했는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튜더 왕조와 발루아 왕조 시대에 궁극적으로 달성된 민족 국가로 발전해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호엔슈타우펜 정책의 오류는 독일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비극적으로 여겨집니다. 프리드리히 2세 치세 때 튜턴 기사단이 엘베 강을 건너 발트해 연안을 따라 독일인들을 대규모로 "Drang nach Osten(동부 유럽으로의 도약)"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추진력은 결국 독일 중앙의 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더 넓은 가능성에서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1250년 프리드리히 2세의 서거와 1546년 마르틴 루터의 서거 사이에는 거의 정확히 3세기가 있습니다. 비록 이는 다소 임의적인 구분이지만, 일반화의 목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3세기 동안 독일 국민의 전망과 성격 모두에서 완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 독일 역사 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주요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독일과 북이탈리아 도시들은 모두 중세 시대에 유럽과 비잔틴-사라센 동방을 잇는 주요 동서 무역로를 따라 성장하며 누렸던 경제적 우위를 잃었습니다. 투르크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이 경로를 따라 있던 모든 지역의 번영을 크게 파괴했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케이프 항로의 개통은 경제력의 중심을 대서양 연안 국가들, 즉 스페인과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실, 독일의 종교 개혁과 17세기 30년 전쟁 모두 주요 무역 중심지의 이동에 뒤따른 엄청난 경제적 혼란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두 번째 중요한 역사적 흐름은 호엔슈타우펜 가문을 대신하여 합스부르크 가문이 부상한 것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독일 영토에서 광범위한 개인 영토를 소유한 독일 군주였지만, 독일 동부 변경백성인 오스트리아(외스터마르크)에 대한 그들의 위치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독일적인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통적인 정책은 범게르만주의자들과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특히 나치는 "오스트리아 이론" 전체를 관철해 왔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전의 호엔슈타우펜 가문처럼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후계자로 여겼고, 세계 지배권, 또는 적어도 실질적인 정치에서는 범유럽적 패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가문은 역사의 여러 시기에 이탈리아 강국, 스페인과 남미 강국, 슬라브 강국,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포부를 품은 강국이었지만, 결코 순수한 독일의 이익만을 의식적으로 내세운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1] 합스부르크 가문은 튀르크족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후 4세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튀르크족의 서쪽으로의 군사적 진격을 저지했고, 비잔틴 황제의 뒤를 이어 동남유럽 전역의 주요 문명화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유럽에 귀중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민족주의라는 개념 자체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지중해 지역에 대한 그들의 집착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무기한 연기시켰고, 그들의 왕조 정책은 실제로 독일어권 지역의 분할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역사 발전에 세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1250년에서 1550년 사이에 진행된 독일어권 지역의 분할과 스스로를 독일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인종적 특징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이 현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특히 영국, 프랑스, 스페인, 심지어 헝가리, 체코, 폴란드와 같은 민족들이 등장하여 통합되고 유럽이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점을 기억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샤를마뉴 시대에는 튜턴족과 프랑크족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작센족의 패권 아래 영국은 대부분 독일 왕국이었고, 롬바르드족의 지배 아래 북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국, 동부 프랑스, 북부 이탈리아의 독일적 요소가 흡수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1250년 프리드리히 2세가 사망하기 훨씬 전에 실제로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300년 동안 독일의 서쪽 국경은 라인 강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부르고뉴와 프랑슈콩테 같은 지역은 점점 더 프랑스화되고 독일적 색채는 약해졌습니다. 네덜란드는 확실히 비독일화되었습니다. 스위스가 형성되었고,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스위스 사상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중요한 독일 변경백국은 대부분 비독일계였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리의 결과는 현대 유럽 역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알자스-로렌 문제, 즉 독일의 영토임을 완전히 벗어난 적도, 완전히 프랑스 영토가 된 적도 없는 지역을 둘러싼 불화를 설명합니다. 또한 나치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뿐 아니라 네덜란드와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에서도 범독일주의 의식을 되살리려 했던 시도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독일어의 경계가 라인 강 쪽으로 밀려나고, 가장 정통적인 독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어로 변모하는 동시에, 독일어와 독일 문화는 동쪽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고, 북동부 유럽의 원시적인 비독일계 주민들은 스스로를 독일인이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의 독일 식민지 개척은 엘베 강 동쪽, 그리고 나중에는 오데르 강 너머의 슬라브족과 핀란드족을 정복하고 개종시킨 튜턴 기사단과 발트해 연안 전역에 무역 중심지를 건설한 독일 한자 도시들의 업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독일의 진전은 폴란드의 군사력,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쟁, 그리고 물론 이후 러시아가 1차 세계 대전 초기에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저지되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18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대한 업적이었으며, 특히 이러한 추진력이 중부 독일의 영향력이 약하고 때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발트해에서 한자 도시들과 튜턴 기사단의 역할은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공화국들과 라틴 기사단의 역할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들은 중부 이탈리아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동부에서 공격적인 이탈리아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중세 "Drang nach Osten"의 반쯤 실패한 사건에서 현대 독일인의 조국 역사 해석의 근간을 이루는 "좌절 콤플렉스"의 두 번째 요소가 발견됩니다. 나치, 특히 괴링 장군과 로젠베르크 씨가 속한 "프로이센 학파"라고 부를 만한 나치는 독일의 발트해 지역 침투와 식민지화가 부활하기를 끊임없이 기대하며, 이는 독일의 열망이 서방에 갇힌 데 대한 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Drang nach Osten"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프로이센 국가의 건국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의 토착민은 대부분 북유럽에서 가장 원시적인 슬라브족과 핀란드족 출신이었고, 독일 문화의 옛 터전에서 동쪽으로 이주한 호전적이고 궁핍한 계층과 섞여 있었습니다. 프로이센인들은 중세 시대 가장 피비린내 나는 두 세기 동안의 전쟁을 통해 하나의 민족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일 종교 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범독일주의적 로마 가톨릭적 개념에 맞선 좌절된 독일 민족주의의 무의식적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은 30년 전쟁으로 절정에 달했고, 이 전쟁은 이후 거의 한 세기 동안 독일을 황폐화시켰으며, 합스부르크 왕가의 권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1683년 빈 포위전에서 입증된 투르크의 권력 회복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약화로 인한 결과였으며, 30년 전쟁은 아마도 남동부 유럽에서 투르크의 지배를 2세기 이상 연장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프랑스 군주제의 부상은 독일 통일의 어떤 형태든 공고화하는 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프랑수아 1세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맞서 투르크와 협력했고, 동부에서 독일에 맞서 폴란드의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기 위해 처음으로 움직인 것도 발루아 가문이었습니다. 그 후 30년 전쟁 동안 독일의 앞잡이들을 진정으로 움직인 것은 리슐리외였습니다. 그의 정책은 프리드리히 대왕 휘하의 프로이센이 등장하여 독일 정치에 완전히 새로운 세력을 도입할 때까지 한 세기 동안 독일을 부르봉 왕가의 자비에 맡겨 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독일 역사의 현대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호엔촐레른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 사이의 투쟁, 독일을 지향하는 개신교 반독일 프로이센과 비독일을 지향하며 왕조의 경계 내에서 범유럽을 지향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사이의 투쟁이 그 예입니다. 이는 지난 전쟁의 간접적이지만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종교 개혁은 특정 독일의 경계 내에서 범독일 운동으로 진행되었으며, 15세기 무역로의 변화로 인해 독일이 처한 경제적 후진성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대 최고의 독일인이었던 발렌슈타인은 범독일 통일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합스부르크 왕가의 이익에 반하여 북독일 군주들과 음모를 꾸몄다가 사망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중부 유럽 합스부르크 왕조의 패권에 심각하게 도전했고, 혁명 이전 프랑스의 약세를 이용하여 동부에서 프로이센에 맞서 폴란드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경쟁 관계에서 불쾌한 막간에 불과했습니다. ******ebook converter DEMO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두 게르만족 사이의 갈등. 그 결과 프로이센의 입지는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독일의 독립적인 군주 가문을 약화시켰고, 19세기 전반에 프로이센이 소규모 국가들을 관세 동맹에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대왕은 슐레지엔을 정복했다. 나폴레옹 전쟁 중 그의 후계자들이 대륙 봉쇄에 강제로 참여하면서, 영국 상품의 배제로 인해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설립된 독일 제조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관세 동맹은 옛 한자 도시들을 프로이센과 통합했고, 근대화된 북독일은 사실상 르네상스의 잔재였던 오스트리아 제국과 맞섰다.

1866년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에서 쫓겨나 더 이상 독일의 강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오스트리아는 19세기 전반기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이탈리아에서도 쫓겨났고, 이제는 더 이상 이탈리아의 강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합스부르크 왕조의 놀라운 정치적 유연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는 급속도로 슬라브족 국가로 변모하여 오스트리아와 보헤미아에 살고 있던 소수의 독일 신민들을 지배했습니다. 만약 프란츠 요제프 1세가 일찍 죽고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더 오래 살았다면 오스트리아는 마자르-슬라브 연방으로 존속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황제는 에드워드 1세에게 "자신이 독일 왕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전 20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는 인기 있는 빈 시장 카를 로이거가 이끄는 강력한 범독일주의 운동이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합스부르크 제국과 군주정의 종식과 대독일 제국 내 독일 지역 통합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만약 범독일주의적 해결책이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연방"(슬라브주의적) 해결책 중 하나가 실현되었다면 유럽 역사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엔촐레른 가문은 사실상 호엔슈타우펜 가문과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할을 계승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사실상 속국으로 전락했고, 삼국 동맹 정책의 발전과 함께 호엔촐레른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범유럽 정책에 새로운 힘과 방향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 전 비엔나의 범독일주의 선전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으며, 전후 저술에서 호엔촐레른 가문이 주도한 반독일적이고 순전히 왕조적이며 자본주의적 독점주의적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호엔촐레른 가문이 주도했고 후겐부르크와 샤흐트 같은 고참 국민당 정치인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식민지 확장 정책에도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사회주의 정책의 실제적 흐름을 지배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나치 정책은 합스부르크와 호엔촐레른 가문의 재앙적인 범유럽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국가적입니다. "동방 문제 전체는 단 한 명의 포메라니아 척탄병의 뼈 값어치도 못 한다"라고 선언한 비스마르크의 정신에 따라, 나치 정책은 비독일 영토를 독일의 지배 하에 두려는 모든 야망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이 정책은 독일어 사용 인구가 거주하는 모든 영토를 "Drittes Reich" 구조로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유럽의 기존 국가 체제에 도전장을 던진다.

표면적으로 볼 때, 나치 이상주의자들의 범독일주의적 주장은 유럽의 지속적인 평화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틀러 씨가 근본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독일이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서 동등한 존재로 간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 역시 독일의 합법적인 확장을 허용하고, 필요하다면 독일이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야심찬 독일의 영토 정책이 특별히 부도덕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프랑스 민주주의의 배타적이고 완강한 대륙 정책을 용인해 왔고, 국제 연맹은 동유럽에서 새로운 슬라브 민족의 발전을 지지하는 데 크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유럽의 국경은 항상 매우 유동적이었으며, 현재 유럽 역사에서 그 국경이 특별히 영구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만한 역사적 근거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유럽에서 슬라브족(폴란드, 체코, 발칸 슬라브족은 러시아인과는 별개로)은 유럽 역사에서 상당히 영구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폴란드와 보헤미아는 프로이센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국가였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현상으로, 18세기 초에야 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두 위대한 통치자,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대제의 업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으로 예카테리나 대제의 업적은 무너졌고, 러시아 국경은 프리페트 습지 뒤로 밀려났습니다. 볼셰비키는 이전 러시아 제국의 문화적, 민족적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안정적인 제도와 사상은 파괴되었고, 소련을 구성하는 많은 민족들은 일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속도로 붕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 무인지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극동 지역의 일본군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인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폴란드 조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발트해 정치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독일과 폴란드 모두 "농민 확장"을 위한 여지를 필요로 합니다. 히틀러 씨와 다레, 로젠베르크와 같은 나치 이념의 다른 주창자들은 나치 독일의 목표는 독일 농민이 자신의 땅을 경작하고 독일 공동체가 독일의 필수적인 구성원으로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빈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호엔촐레른 왕가의 "식민지 제국주의"나 샤흐트, 후겐부르크와 같은 현대 보수 민족주의자들의 "식민지 제국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독일의 "농민 확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폴란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동독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17~18세기 스웨덴의 개입과 로마노프 제국의 부상으로 저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 전쟁 중에 발트해 지역을 점령하고, 1920년에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을 때 이러한 야망의 가능성을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분리를 원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베를린과 바르샤바와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극동" 유럽에서 독일-폴란드 공동 정책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의 가능성은 당연히 불안하지만, 서유럽에서 미래의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독일의 열망뿐만 아니라 독일의 필요까지 무시하는 것임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라인강과 오스트리아를 따라 "봉쇄"하는 것보다는 독일의 에너지를 동쪽으로 방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궁극적인 대안입니다.

나치 독일에서는 영국에 대한 적대감이 거의 없었고, 나치 집권 이후 이 나라 언론 일부와 일부 정치 집단이 극도로 도발적인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대한 공식 선전을 지시하려는 경향도 없는 듯합니다. 물론 아프리카 식민지를 독일로 반환해야 한다는 선동 운동이 있지만, 이러한 선동의 원동력은 주로 지금은 중요성이 사라진 보수 민족주의 세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특정 식민지가 우리 자신에게나 독일인에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히틀러 본인은 민족주의 세력을 고무하는 "식민지 제국주의"에 대한 경멸을 표명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수출 자본주의"에 기반한 정책, 그리고 식민지를 요구하는 정책은 확실히 "자급자족 국가"라는 경제 이론에 위배되며, 나치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에 재진입할 의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전은 전적으로 자급자족 국가의 기반으로서 농민 생활을 회복하는 것과, 독일 농민 공동체가 스스로를 확장하고 나치가 만물의 시작과 끝을 보는 독일식 기업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독일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더 많은 땅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그들을 영국의 이익이 아닌 다른 세력이나 이익과 갈등하게 만든다면, 인류 역사를 더럽혀 온 가장 부패한 폭정에 대한 면책권을 유지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벌이는 것은 영국이 할 일이 아닙니다.

---

[1] 아마도 요제프 2세 황제의 짧은 통치 기간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존 베켓의 쇠퇴하는 사회민주주의

에이N이 지난 총선거 이후 보궐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노동당은 1929년보다 평균 지지율이 약 15% 상승했습니다. 1929년에 노동당은 289석을 확보했고, 5명의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받아 294석의 로비 세력을 확보했습니다. 13석만 더 승리했다면 권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1929년 수치를 보면 보궐선거와 같은 지지율 증가율이면 당이 의회에서 확실한 다수당을 확보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첫 선거에서 파시즘 쪽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건의 순서를 피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다고 결론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진자의 규칙적인 흔들림이 일어나고 하원의 양당은 하프타임에 축구팀이 바뀌듯이 바뀔 것입니다.

노동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예상되는 진로에 대해 우리의 "국민 지도자"와 언론이 표명하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태퍼드 경을 앞세워 영국이 완전히 붉은 길로 나아간다는 환상부터, 그린우드 씨와 달튼 박사의 부드러운 위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번영을 제외하고는 변함없는 영국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사적인' 슈퍼맨들로 구성된 최전방 벤치가 메이페어의 임대료를 꾸준히 인상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빈민가를 매끄럽게 가꿔나가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엄청난 비극, 붉은 폐허, 그리고 자비로운 효율성이 차례로 예측됩니다. 놀랍게도 그 어떤 예언자도 노동당의 기반이 되는 사회민주주의의 원칙과, 그 원칙들이 시도되었던 모든 나라에서 그 원칙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혹은 그 원칙들이 부재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당의 과거 역사에 대한 고찰과 그 지도자들의 인품과 업적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이 연구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미 고찰했던 어떤 결론보다 덜 극적이지만 훨씬 더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노동당 정부는 혁명도 진화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당 정부는 아무런 지침도 없는 무능한 자들이 펼치는 줏대 없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뻔뻔한 허튼소리에 방향도 없이 표류하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과민하고 경험이 부족한 장관들이 심화시킨 경제적 불안과 금융 공황 속에서 slurp(명료하지 못한)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약자에게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다면, 노동당은 강자에게 짖어대고 위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국가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쇠퇴를 가속화하여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노동당이 1933년에 발표한 공식 변명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는 무능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현대 기계와 과학으로 인해 생산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파시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세 가지 기본 사상은 1918년 이래로 문명 세계의 정신 속에서 패권을 놓고 경쟁해 왔습니다.

언뜻 보기에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공산주의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혼란과 희생을 통해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파시즘은 인간의 고상하고 자기희생적인 면을 강력하게 부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게으르고 방종합니다. 그들은 일하고 규율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고통 없는 쾌락, 노력 없는 이상주의, 계획 없는 번영과 정의를 약속합니다. 대중을 위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마약은 발명될 수 없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눈보라의 위력이 강력했던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에서 이 나라들이 구원을 위해 사회민주당에 의지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실패한 이유를 인용하며 장황하게 논할 지면이 부족합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약속했던 대로 약탈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독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신속하고 굳건한 동맹을 맺었던 약탈자에게 아무런 견제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에서 노동자들은 사회민주주의가 집권하기 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세 나라 모두에서 그러한 민주주의 형태에 등을 돌리고 국가적 지도 아래 위신과 효율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덜 발전된 나라인 러시아는 현재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형태의 공산주의를 채택했고,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진 이탈리아와 독일은 구원을 위해 파시즘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조사만으로도 다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불가피한 일이고, 이 나라의 정책이 시행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선동을 합리화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당은 언제나 간부들로 가득 차 있고, 고위직은 유창한 연설 능력 외에는 추천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최고위직은 선동가에게만 열려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원칙은 모호하고 반대자들의 원칙은 명확하듯이,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에게는 공산주의자의 광신도, 파시스트의 엄격함도 없습니다. 투표로 권력을 얻으십시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권력을 말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빈민가를 폐지하고 빈민가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임금을 인상하되, 악덕 고용주에게 직함을 부여하십시오.

은행을 국유화하되 은행가의 명령에 복종하라. 국제 자본을 환영의 표시로 물리쳐라.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면서 군비를 축소하라. 이는 노동당 후보들에게 더 적합한 몇 가지 슬로건입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기회주의, 이상주의, 그리고 순전히 나약한 인격이 뒤섞인 이러한 구호들이 책임을 묻기만 하면 언제든 무너져 내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당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충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대륙 국가들의 쇠퇴가 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최근 역사를 우리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 구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쉬운 사회민주주의의 길이 시도되었지만, 혼란과 부패가 뒤따랐고, 독재라고 잘못 불린 지도부가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노동당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사회민주당과 정확히 동일한 경향을 보여줍니다. 가장 낙관적인 지지자가 당의 신념과 정책 전반에 걸쳐 두 가지 일관된 주장이 있다고 정말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설령 이전 임기 기록이 없더라도, 지도자들의 연설과 데일리 헤럴드 기고문 에는 온갖 모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동맹과 가장 온건한 노동조합 지도자는 선거 승리를 향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단 하나의 ******ebook converter DEMO Watermarks*******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승리 후 정부 운영 계획에서 단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 있습니다. 연설자가 두 명 이상인 노동당 집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연설자들이 허황된 포부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갈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곧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최초로 규모가 큰 의회 노동당은 1922년에 당선되었습니다. 1906년의 "잡다한 의회"에서도 이처럼 기이한 기행들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적은 없었습니다. 스캔런이 저서 『 노동당 의 쇠퇴와 몰락』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잘 묘사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마찬가지로 정치는 이상한 동반자가 되지만, 최악의 역경이 1922년 의회에서 노동당의 침대에 나란히 끼어 있던 이상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데 성공한 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만이 있는 모든 사람이 노동당에 가입한 것은 노동당이 오로지 개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당에 가 · · · 입했을 때, 그는 즉시 불만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자신을 입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후보자를 배치하는 일을 맡았던 노동당 전국 조직자 에거튼 웨이크 씨가 당의 가장 큰 고통은 불만을 품은 장군들이 너무 많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전체적으로 몇몇 기이한 표본들이 노동당에 들어왔습니다... 각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친 말에 집중했고, 어떤 이들은 억압받는 소수 민족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소수 민족이 너무 가까이 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간과되었던 장군들은 승진 제도 전체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이들(장군은 아니었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시간과 정력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실업자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조건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도, 단 하나의 노동자 클럽이라도 목록에 추가하려 했다면 당을 기꺼이 파괴했을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중보기도를 위한 모임이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확고한 견해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06년, 노동당 의원들 중 일부가 의회 생활을 바칠 중대한 문제들을 세상에 알렸을 때, 버나드 쇼는 그들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온 세상에 사과했습니다. 그가 1922년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잡다한 의회가 국가의 공식 정부가 되었습니다.
몇 달 임기를 마치고 국가로부터 즉시 해임되었습니다. 5년 동안
볼드윈은 모든 대안에 대비해 국민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1929년에 노동당 정부는 과반수 의석에 약간 못 미치는 의석을 확보했고, 하원 선거구 내에서는 거의 항상 물리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며 1931년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할 때까지 2년 반 동안 불편하고 치욕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케렌스키는 분개하고 실망한 국민들 앞에 도피하기 직전까지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국민들은 볼셰비키에게 의지했고, 케렌스키는 그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민주당이 공장을 점거했지만, 공장 운영 계획이 없었기에 파시스트들의 추격을 받고 파괴되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연설 대신 계획을, 음모 대신 행동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사회당이 1919년 모든 권력을 장악했지만, 공포에 질려 융커(Junkers)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2년 동안 바이마르 헌법을 옹호하며 움츠러들었고, 1933년에는 거의 항의하지 않고 히틀러와 돌격대의 규율 있는 지도부에 길을 내주었습니다.

영국의 전직 사회주의 의원이 사회민주주의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는 데 존속한다고 쓴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경고로 시작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보궐선거 수치가 중요하다면 노동당은 다음 선거에서 다시 집권해야 합니다.

독자는 앞서 언급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어떻게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다시 노동당에 투표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모든 노동당 강령에서 제시되는 허황된 변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대다수 유권자들은 1929년에 만약 20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나 중산층 지식인이 더 선출되었더라면 노동당 정부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내세웠던 다양하고 유토피아적인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듯합니다. 과반 의석이 없다는 사실이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하원에서 (자유당과 보수당의 일부 표결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반노동계급적인 법률, 예를 들어 '변칙법'이나 '석탄광산법'이 도입되고 통과된 이유를 설명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307명이 아닌 294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급적 증오를 설교하고 자본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대중의 결집이 어떻게 만연한 속물근성과 런던 시티에 대한 점진적인 복종으로 변질되었는지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입니다.

노동당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든, 그들은 난처한 질문들에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노동당은 그 질문들에 등을 돌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명은 비난으로, 설명은 맹렬한 비난으로 대체되며,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권자들의 눈에는 미래를 위한 약속을 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로 가려지는 듯합니다.

노동당이 통치할 수 없다는 주된 증거는 과거 노동당의 실패가 경멸스럽기는 했지만, 그 실패에서가 아니라 지도부의 심리와 일반 당원들의 속기 쉬운 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흔히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항상 보이는 이례적인 관대함은, 진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당 지도자들의 비범한 정의의 기준에 대한 교활한 주장을 아무런 반론 없이 묵인하는 기이한 방식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국민정부의 지도자인 맥도널드 씨는 오늘날 노동당 정부 시절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지도자였을 때와 똑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 정책이 비효율적인 사람들보다 유능한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성공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931년 이전에는 그를 자랑스럽게 추종했던 노동당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가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비난했던 바로 그 방식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직성의 기준이 너무 낮아서 과거와 현재의 노동당 의원들은 그의 집무실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 "굿모닝"이라고 인사할 기회를 노렸지만, 이제는 과거의 모든 범죄를 맥도널드, 토마스, 스노든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들은 한숨에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다가도, 다음 한숨에 거의 300명에 달하는 의원 모임에서 세 사람이 악랄한 행위라고 비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직한 선전의 전형적인 사례는 노동당 정강에서 어김없이 제기되는, 자신들이 대차대조표를 공개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는 발언과, 명예를 팔아넘기고 비밀 수입원을 은폐하는 부패한 기존 정당들을 비난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당원들은 이러한 발언을 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믿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당원들은 수년간 지도부가 거액의 개인 기부금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어떤 성명서에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노동당은 항상 명예직이라는 허울뿐인 칭호를 비난해 왔지만, 집권 당시 명예직 명단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명단을 작성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노동당 지도부의 상당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의식적으로 위선적이며, 일반 당원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속기 쉬워서 그들이 지금의 지도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의 종말은 무엇일까? 다른 지역의 사회민주주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영국 노동당을 살펴보면, 유럽 대륙 운동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는 것처럼 노동당의 발전 또한 필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결코 희망적인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국민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신을 차리고 활력 넘치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받지 않는 한, 재정에 찌든 보수당의 부정적인 미덕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노동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를 최소 12개월 동안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그 기간 동안 노동당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리고 보수주의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파시즘이 더 이상 지체 없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비극적인 역사가 여기서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비건설적인 반동과 소심한 사회주의로 인해 파국 직전까지 몰리자, 그들은 건설적인 계획과 권위적인 지도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대중의 처지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한 노동당 정부는 집권 후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잉여 자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 노동자들을 매수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동당 정부의 지원 실패에 분노하고, 그들의 무모한 선전에 격분한 노동자들은 폭동과 공산주의를 해결책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집권 달성을 위한 엉뚱한 연설에 경악한 투자 계층은 뿔을 곤두세워 우리의 경제적 지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회민주당은 역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 세력을 공격하지 않고 지지 세력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사회주의 신조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3년도 채 안 되어 우리는 1931년의 위기를 매우 사소한 일로 여길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 끊임없는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파시즘은 재앙이 닥친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납득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노동계는 통치할 수 없으며, 사회민주주의가 혼란의 수확을 거둘 때까지 기업 국가의 수립이 지연된다면, 국가의 구원은 여전히 사람들의 정신이 준비되었고 검은셔츠 운동이 통합되었다는 사실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소장 JFC 풀러의 파시즘

과 전쟁

E| 파시즘의 전쟁에 대한 관점은 상식적인데, 파시스트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전쟁 문제를 말과 저주로 덮어두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마치 전쟁을 성공적으로 피한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말이다. 감정주의는 현실주의의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 열려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광",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에 현혹되기를 거부한다.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면 과학적으로, 즉 진실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공평한 사고방식과 질서 있는 업무 처리. 히스테리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역사적,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파시스트는 어떤 상황에서는 전쟁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그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전쟁을 낳고, 결과적으로 전쟁 자체는 질병이 아니라 평화로운 병적인 상태의 절정이라고 결론짓습니다. 문제는 세균이 아니라 세균이 유발하는 열입니다. 이 열이 없다면 환자는 내독소로 쉽게 사망할 수 있지만, 체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쓰러질 것입니다. 어쨌든 병이 다하면 신체적으로 쇠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열 자체가 아니라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파시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인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수술 도구와 약품, 해군, 육군, 공군 함대를 비축해 둘 것입니다. 신앙 치료나 다른 엉터리 치료법에 의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문, 주문, 계약에 의지하는 평화주의적 마법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는 군축이나 그와 비슷한 엉터리 주장으로 진실 추구의 실마리를 놓치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무기 자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집게와 메스 자체가 질병을 유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검토해 보자. 평화에 대한 불만 속에서 전쟁의 원인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나는 내 수술 도구를 버릴 생각이 없다. 사실, 평화 옹호자들이 더욱 히스테릭해질수록 나는 전쟁이 재발할 것이라고 더욱 확신한다. 따라서 나는 내 수술 도구와 약이 가장 좋은 조달 수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파시스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이 시대에서 다음 전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공정하게 연구한 후, 오늘날 전쟁의 두 가지 주요 원인, 즉 인구 과잉과 재정·경제적 무정부 상태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들이 군사적 원인, 즉 정복하고, 공포에 떨게 하고, 공격할 수 없는 국경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낳습니다.

이 두 가지 주요 원인 중 첫 번째를 그는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짜증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굶주린 사람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음식을 훔쳐 법을 어기는 쪽을 택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명국이든 미개국이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도둑질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왜 굶어 죽어야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한 나라가 인구 과잉 상태가 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내전으로 자살하거나, 이웃 영토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협정에 취한 평화주의자들에 의해.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인구 과잉 상태이므로, 국제 연맹이 일본의 확장에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은 매년 수천 톤의 피임약을 그 나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백서가 있든 없든, 인도인들이 지금처럼 인구 증가를 계속한다면, 확장이 가능하지 않다면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인도는 폭발할 것입니다. 1921년 인도의 인구는 3억 2천만 명이었고, 1931년에는 3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이 증가율로라면 2001년에는 약 7억 명에 이를 것입니다. 마리 스톱스가 바쁘게 움직이거나 모든 옥수수 줄기에서 이삭이 두 개씩 자라지 않는다면, 대격변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펜과 잉크, 경건한 말로도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파시스트는 사실에 기반하여 행동합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두 가지 주요 원인 중 두 번째 원인으로 눈을 돌리면, 파시스트는 곧바로 "경제적 민족주의"라고 공표되는 것에 직면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속에 파업이라는 악마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나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파시스트를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의미는 무정부적인 거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속삭이는 것조차 이단으로 여겨지는 행위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속이고, 뇌물을 주고, 경쟁하면 악마가 가장 뒤처지게 됩니다. 이 피 흘릴 틈 없는 전쟁에서 시장과 해외 차관은 엄청난 규모로 불어납니다. 간략하게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가 기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생산량은 세계 수요를 초과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상품뿐 아니라 불만도 투기되는 곳이 됩니다. 모든 국가가 구매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은 각국 정부를 개입시키고, 정부는 서로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며, 그들의 칼 휘두르기는 일간지의 모욕으로 이어집니다. 탐욕은 시기, 시기, 열정, 증오를 낳고, 그러다가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원자재 경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욱 강력한 원인은 금융 통제를 위한 주요 중앙은행들 간의 갈등입니다. 상품 대금을 상품으로 지불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즉시 재정적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한 작가가 국제 금융가들에 대해 말했듯이, "현대 세계의 혼돈 속에서 풀려난 다른 어떤 세력보다도 그들은 전쟁을 야기했다." 일단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파산과 싸움입니다. 전자는 파산과 불명예를 의미하므로, 후자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대중 민주주의에 내재된 탐욕과 감정주의 때문에 무기는 외과 수술 도구가 아니라 국내 및 국제적 불만을 억제하는 구속복으로 여겨진다. 무기는 국내 혁명을 제약하고 적대적인 이웃 국가를 공포에 떨게 하는데, 이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관세 장벽에서 요새화된 국경까지는 한 걸음밖에 걸리지 않으며, 기존 국경이 약하면 더 강력한 다른 국경을 모색할 유인이 충분하다. 예전에는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방어 국경을 모색했지만, 이제는 국제 고리대금업을 확보하기 위해 모색한다.

1933년 7월 11일, 체임벌린 씨는 하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전부터 고수해 온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주요 문제들은 그 근원이 국제적이며, 국제적인 행동과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임벌린 씨의 주장은 옳지만, 사탄은 사탄을 내쫓는 것을 특히 싫어하는 것처럼, 파시스트는 자신의 치료법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는 국제 연맹 회원국이나 그 지지자들이 내부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군축 조약, 평화 협정, 국제 경찰력을 믿지 않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국제연맹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상징합니다. 현실의 변화가 아니라 신화와 관성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움직이고 우리도 세상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부패 없이는 멈출 수 없으며, 부패는 전쟁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부패는 문명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럽의 부패의 중심지인 오스트리아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에 거대한 제국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작은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즉, 백만장자의 지위에서 빈의 집세, 즉 백만장자의 임대료를 아직 내지 못한 빈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1931년 독일은 관세 동맹을 제안했고, 프랑스는 곧 어뢰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직감하고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파괴의 무기인 국제연맹 이사회를 통해 이 연합을 즉시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였던 이 문제는 상설 국제사법재판소(PCI)에 회부되어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되었고, 당시 공공연한 무정부 상태였던 엘살바도르, 쿠바, 콜롬비아, 중국 등이 윈치를 조작하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만약 쿠바나 엘살바도르가 반대 투표를 했다면, 연합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반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연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정신인가, 미친 짓인가? 이게 세상을 통합하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길인가?
국제연맹이 "오스트리아는 불가능한 나라이며 유럽의 빈민이다. 오스트리아가 이 연합에 가입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스트리아를 보호하고 매년 수백만 파운드의 구호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언했다면 더 현명하고 정직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연맹이 오스트리아인(자랑스러운 민족)이 구빈원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할 권리가 무엇이었겠는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결권뿐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정부가 아니라 부패한 전제정치 아래에서 살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스트리아는 은밀한 국제 경찰력, 즉 외국 용병을 살 필요가 없는 돈의 국제 경찰력을 강요함으로써 정당한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언제든 국내 용병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연맹, 신영연방운동, 그리고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세계에 강요하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세력, 오직 돈만을 추구하는 탈국적 살인마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조만간 전 세계적인 볼셰비즘으로 귀결되는 대격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일까요?

그러나 이 노골적인 정치적 사기에도 불구하고, 파시스트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경건한 상투적인 말과 히스테리적인 위선이라는 연기 구름 아래, 인간 내면의 모든 강인함과 정신적인 것에 대한 음흉한 도덕적 공격입니다. 명예, 미덕, 그리고 단순한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에 대한 믿음은 국제법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평화, 혹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 유지가 삶의 목적일까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까요? 인간은 그저 동물일 뿐일까요? 파시스트는 제임스 마티노와 함께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생명을 정의와 올바름보다 더 신성하게 여기고, 피의 광경이 황폐한 폭정과 승리한 위선의 광경보다 더 끔찍해질 때, 인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 부도덕한 우상숭배로 치닫게 됩니다. 한 국가의 시민인 사람들이 정의보다 생명을 더 중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더 나약하고 자살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가들이 어떤 이유로든 모든 분쟁을 법정의 판결에 맡기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세상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비열하고 저속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의 충동입니다. 하지만 정의롭게 사는 것, 즉 우리의 가장 깊은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은 분명 모든 도덕과 종교의 기초입니다. 자신이 신의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경찰 법정에 제출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위험하게 살아라"는 삶의 모토보다 더 고귀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안전 제일"이라는 말이 인간의 마음에 적용될 때, 영성이 없는 거세된 종족을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시즘 철학에서는 삶이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개인은 필멸의 존재이지만, 국가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고귀하고 영감을 주고 영감을 주는 것, 즉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민족적 영성은 불멸이며 무한히 위대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각 개인은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투쟁이지, 단순히 성취된 것에 시간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신 속에 야생 멧돼지의 활동이 아직 남아 있다면, 하늘이여, 농장 돼지의 무기력함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동성, 이 본질적인 활력 때문에 파시즘은 평화를 표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시즘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기력한 삶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와 전쟁에 대한 파시스트의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의 합법적 목적은 더욱 완벽한 평화입니다. 전쟁은 외과 수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합법적 대상은 더욱 완벽한 인간입니다. 평화는 창조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합법적인 목표는 더욱 완벽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 신조를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활동 없이는 재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조사해 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쟁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혁명과 해외 전쟁입니다. 전자는 후자를, 후자는 전자를 부추겼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시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적 불만은 무수한 국가적 불만의 총합일 뿐입니다. 세계를 집에 비유한다면, 벽돌과 모르타르가 썩었기 때문에 기초는 항상 가라앉고 벽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과제는 각 국가가 스스로의 집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는 한, 위기가 임박하면 각국의 정치인들은 불만을 외부로, 즉 국내에서 벗어나 외교 문제로 돌려 권위를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으로 가는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예가 전후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정치 시스템은 철저히 부패했는데, 정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프랑스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소리 높여 외치며 "안보"라는 단어로 국민을 최면에 걸리게 합니다.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프랑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프랑스 정치인들은 감사할까요? 아니, 오히려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국민들이 외국의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국내 개혁과 혁명에 관심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는 사실 독일을 향한 방패가 아니라, 스타비스키가 기어 다니는 방탄 등딱지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만의 원인은 경제적 기원에서 비롯되지만, 그 표현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도덕적입니다. 가난은 결핍을 낳을 뿐만 아니라 불의에 대한 감정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잠재적 풍요의 시대에도 여전히 실질적이고 과도한 가난이 존재한다는 것은 범죄처럼 보이며, 정부가 깡패들의 집합체로 여겨질 때, 고통받고 생각하는 인간은 정부를 전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회 혁명의 근본 원인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분배 시스템 때문에 생산에서 정당한 몫을 얻지 못하는 것은 강도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도둑이 당신의 집에 침입하여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당신은 집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심지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말입니다. 절박한 사람은 정치적 암살을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과 자신이 마땅히 나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의 분배 사이에서 정치인을 몰래 조종하는 자가 바로 금융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은행가 역사상 최초의 불황을 예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파시스트는 이렇게 말한다. 왜 이 재정적 무정부 상태를 사회적 무정부 상태로 해결해야 하는가? 왜 경제적 재편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가? 빈곤과 그에 따른 혁명은 부의 불균형, 부패한 금융 시스템, 임금 삭감, 물가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 저하로 인해 발생한다. 그렇다면 왜 국가 산업을 조직하여 스스로를 통제하고, 표현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국가가 노동을 통제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산업 통제는 노동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자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결코 실현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협동 민주주의이다. 파시스트는 기업 국가를 통해 이러한 통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산업은 고용주, 노동자, 소비자로 구성된 산업 법인을 각각 선출하는 자치 단체로 나뉜다. 그러한 조직에서는 계급 투쟁, 파업, 직장 폐쇄가 용납될 수 없다. 임금 인상을 위해 싸우는 대신, 과학과 산업이 생산력을 강화함에 따라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착취가 조직으로 대체되고 새로운 사회 체제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번영이 확립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경제의 먼지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분적으로는 육체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이며, 부분적으로는 지적인 존재이듯이, 인간 사회 역시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부분적으로는 문화적, 부분적으로는 정치적입니다. 따라서 인간 자신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소들도 기관과 지체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적 요소들은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야 하고, 정치적 요소들은 전체에 대한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정치의 주요 활동은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그들만이 통제할 수 있는 기관과 지체, 즉 국가적 서비스를 지휘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은 최대한 자유로울 것이며, 노동자 집단의 번영은 직능에 따른 조직에 달려 있을 것이며, 전체의 통치는 높은 지성, 지식, 경험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수행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화 생활은 개인적, 경제 생활은 집단적, 정치 생활은 지시적이고 권위적입니다. 자기 표현, 집단 표현, 그리고 국가적 표현이라는 이 세 가지 활동 집단이 함께 작용할 때, 문화, 경제, 정치 생활의 최고 수준의 경제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 경제는 진정한 자유이며, 불만으로부터의 자유는 국가 평화의 토대입니다.

이제 전쟁 문제의 후반부, 즉 국가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외국의 전쟁,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진정한 평화는 경제적 기반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날 그 기반은 무엇일까요? 현존하는 국제 및 국가 통화 시스템의 핵심인 금의 무정부 상태입니다. 금을 획득하거나 금 통화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는 적극적으로 "유리한" 무역 수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는 국가는 "불리한" 무역 수지 균형을 가진 국가로부터 금을 추출하거나 차입의 형태로 차입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이익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대신, 국가들은 '유리한' 균형, 즉 금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며, 그 대가로 성공적인 경쟁자들의 볼모가 되는 비참하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이미 지적했듯이, 거부를 제외하고는 전쟁만이 이러한 예속 상태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분명히 이 문제의 해결책은 부의 척도로서 금을 폐기하고, 매점될 수 있는 단일 상품이 아닌 시장 가치를 지닌 모든 상품에 기반하여 실질적 부를 기준으로 통화를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은 수입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출은 그것을 받는 국가에 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저자가 말했듯이,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관세가 수입을 배제하는 한, 그 만큼 수출도 배제될 것입니다. 환율은 불변하게 고정되어 투기꾼을 제거하고,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현존하는 금융 무정부 상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본위제 금융의 이익과 편견에 권력을 의존하는 민주 정부에서는 해결책이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개혁을 수행해야 할 이 나라에 존재하는 기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는 이 문제를 내각에 회부해야 하고, 내각은 다시 의회당에 회부해야 하며,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 의회당은 이 문제를 노동조합 대회와 노동당 대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의의 배후에는 특정 이해관계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파시스트 정부 하에서는 전문가들이 문제를 검토한 후 총리가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라고 답하면 해당 조치는 법으로 발효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인다면, 파시스트의 지시를 받는 나라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정 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신속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논쟁을 위해, 전쟁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었다는 데 동의한다면, 생물학적 원인, 즉 경제적 재조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과잉 인구가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잉 인구는 정부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생활 수준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이 낮은 국가, 즉 산업 문명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수년간 출산율 증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세계 통계를 살펴보면, 서유럽에서는 인구 증가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에는 수억 명의 인구가 더 유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확립되고 있는 방식대로 아시아가 산업화된다면, 이 수억 명의 인구가 탄생할 것이고, 인구 과잉으로 인해 서쪽으로의 확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시아와 유럽 간의 대륙 간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내부 갈등을 멈추고 단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재정적 불만으로 분열되는 한 결코 단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국경 내에서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악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작은 선택은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장은 인구 저항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진행될 뿐만 아니라, 서구 문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전쟁 위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그 위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이 간략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전쟁 문제가 평화 협정이나 장황한 협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전쟁 문제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문제이며, 일부는 조직을 통해 해결될 수 있고, 일부는 단결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유럽을 통해서만 예방될 수 있습니다.

파시즘이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장악하더라도, 단독으로 유럽의 운명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군사적 문제는 우리 제국의 안보와 방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영토 안에서, 그리고 특정한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정해진 한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십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문명국에서 모든 군사력의 물질적 기반은 경제적 부이기 때문에, 제국 안보의 첫 번째 문제는 제국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치령들이 자치권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파시스트든 다른 어떤 정부든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가 예상된다면 파시스트는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강제는 전혀 불필요합니다. 현실주의자인 그는 발전이 협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협력은 결국 자기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혈족의 형제애와 전통적인 유대감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는 이미 널리 인정된 사실이고 아무도 그 구속력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유대감은 물질적 영역 밖에 위치하므로 경제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진정으로 유용한 것은 자급자족하는 제국이 단순히 번영하는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안전한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매우 강력한 평화의 도구를 형성하여 사실상 전쟁을 금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급자족하는 제국에게 인구 과잉으로 인한 전쟁을 제외하고 정치적 통제 밖에 있는 전쟁은 해롭습니다. 따라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제국에 이롭습니다. 따라서 제국의 모든 부분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제국에 이롭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손실을 의미할 수 있지만, 머지않아 이러한 손실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번영으로 완전히 보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번영을 수호하려면 방위 문제가 직결됩니다. 방위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영국 해군에 있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자치령들은 강력한 전쟁 함대를 건조하고 유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군과 육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어 수단, 즉 현대식, 즉 기계화된 군대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군대입니다. 따라서 자치령들은 현대 함대 건조 시 직면하는 것과 동일한 비용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어 수단인 공군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활한 영토를 아우르는 자치령은 민간 항공기의 자연적 번식지이며, 민간 항공기는 군사 항공력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됩니다. 영국은 우선 자국 방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다음에는 모든 해상 통신과 전시에는 제국 소방대의 역할을 수행할 작지만 강력한 기계화 군대의 유지에 대한 제국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치령들은 차례로 자체 방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결과적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군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한 병력이 허용된다면 문제는 협력으로 해결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기존의 방어형 석탄 보급소 네트워크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방어형 착륙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제국의 국가들에게 항공 방위와 항공 전력 개발에 관해 조언할 수 있는 제국 항공 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국이 존속하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며, 전투 부대를 재편하고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쟁 종전 이후, 무릎을 꿇은 정권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전투 부대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양대 강대국 해군은 버려졌고, 오늘날 우리는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 무기에 관해서는 이제 프랑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우리 군대는 규모와 효율성이 감소했고, 말의 살이 부족해 부분적으로는 기계화에 의존해야 했지만, 과잉된 고지식한 두뇌 때문에 그토록 쓸모없는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보병은 엄청나게 비싼 경찰 병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영국 공군은 세계 공군 순위 1위에서 6위로 추락했습니다.

파시스트는 이런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의 기준이나 감정적 제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처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골드러시 시대의 광산 캠프에서 살게 된다면, 나는 허리에 총을 차고 다닐 겁니다."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호해야 할 수십만 마일의 해상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공격뿐만 아니라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격으로부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목적에 적합한 모든 면에서 해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19세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세기 군대를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살덩어리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기계의 공격력으로 측정되는 군대입니다. 적은 병력에 더 많은 기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근육질의 시대가 아니라 기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공군을 원하며 가질 것입니다.
효과적인 사정거리 안에 있는 적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치 하나의 통합된 군이 된 것처럼 세 군의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전략적 국방부를 원합니다. 즉, 우리는 평시에도 국방 독재 체제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전시에는 독재 체제만이 단일한 방식으로 전략을 지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전쟁 방지책이자 전쟁에서의 승리 보장이 군국주의적이라고 선언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군비 경쟁을 갈망하지 않지만, 다음번에 공격을 받을 때 적의 군비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눈을 감는 대신, 사실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직시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이제 전쟁과 그 준비에 관해 우리가 직면한 더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었으며, 파시스트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쟁을 불가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평화 상황에서는 전쟁을 필수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차이는 연금술사와 과학자를 구분하는 바로 그 차이와 같습니다.

전쟁은 현실이며, 그에 따라 다뤄져야 합니다. 지난 전쟁 이후 국민들이 단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이상주의로 돌아선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또한 여론에 편승하는 모든 정부는 그 본성상 혼란스러운 상황에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파시스트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평화에 대한 불만의 척도이며, 따라서 정부의 실패를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치닫지 않고 정치적 허튼소리와 요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지금이 호전적인 시대라고 믿지 않으며, 정부가 전쟁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실이 이러한 믿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국가 생활에는 두 가지 큰 문제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국내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문제, 즉 내정과 외무 문제입니다. 국민이 전자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면 후자에 주의를 집중시키십시오. 모든 마술사에게 공통적인 이 수법은 민주 정치의 원동력입니다.

그는 전쟁 문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문제라고 믿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밝히고,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재버와 죠를 대신할 항독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앞으로 한동안은 보편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인구 과잉으로 인한 전쟁을 없앨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파시스트는 군대가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효율적인 군대가 쓸모없고 쓸모없는 군대보다 더 유용하고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전통의 영향을 받고, 남성적인 전통은 전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니지만, 무기는 분명히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시스트는 감정과 포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통일된 유럽은 위대한 이상이며, 파시스트는 파시스트의 통제 하에서 모든 정부가 조직적인 시스템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지만, 오늘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정한 국제 연맹은 대영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적 평화를 향한 우리의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지구 면적의 약 4분의 1을 포괄하고 인구의 4분의 1을 아우르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손에 쥐기만 한다면 평화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의 노고 끝에 우리는 이제 진군에서 이탈하여 낙오자의 무리가 되려는 것입니까? 파시스트는 "아니요"라고 답합니다. 따라서 그의 좌우명은 "전진"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오스월드 모슬리의 파시즘으로 나아가다

에프 ASCIST 선전은 우리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년간의 노고와 희생은 그 보상으로 국민들에게 이 운동을 애국적이고 혁명적이며 본질적으로 영국적인 세력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영국 노동자는 마침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을 다음과 같이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당하고도 필요한 열망.

이전에는 수백만 명의 자국민을 억압하는 비참함과 빈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제국주의자가 현대 과학 시대에는 실업과 빈곤에 대한 변명이나 완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운동이 시작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선전 분야에서 전례 없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업적은 과학적이고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창설한 것입니다. 이 조직이 없다면 어떠한 선전도 지속적인 가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운동 전체의 유기적 구조는 현재 의회 구역에 따라 조직되는 거의 500개의 지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블랙셔츠당 활동에 기반한 조직으로 상호 연관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기구의 구축은 운동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흡수하지 않아 선전 활동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오히려 현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선전 활동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해진 "Mind Britain's Business" 캠페인은 무의미한 전쟁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우리의 선전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분쟁에 군사력과 해군력을 처음 사용하려 했을 때 취했던 환상적이고 과장된 태도에서 벗어나면서 날이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됩니다.

두 번째 대작전은 "다음에는 파시즘이 온다"라는 모토로 기억될 것입니다.
최근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우리 운동은 기존 정당들이 주최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많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회의는 대체로 만석이었지만, 그들의 회의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회의는 거의 예외 없이 평화롭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반면 그들의 회의는 어떤 파시스트 회의에서도 허용되지 않을 폭력과 난동 장면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지켜냈지만, 그들은 이를 부정하려다 스스로 그 자유를 잃었습니다.

선거 투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 회의에는 많은 신입 회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동양의 하급 인간들에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보자 지명을 거부한 바로 그 시기에 대중이 우리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것은 적의 파괴되고 분열된 전선 전체에 걸쳐 필요한 고도로 기술적인 장비를 갖추고 적을 공격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 경쟁을 기권한 지혜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따라서 1935년이 저물어감에 따라, 우리는 선전과 조직 활동 모두에서 동등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쏟은 모든 시간과 대의를 위해 치른 모든 작은 희생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의는
******ebook converter DEMO Watermarks*******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민족주의의 고귀한 면과 사회주의의 실용적인 면을 모두 통합하여 우리 국민을 구하자.

돌이켜보면, 유대인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필요했던 만큼 승리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국 운동이 영국만을 위해 일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유럽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한 지도자를 가진 위대한 국민과의 파국적인 갈등에 우리를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국에서 반유대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켰고, 그 책임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만약 우리 운동이 유대인 국제 금융과 유대인 볼셰비즘의 위협에 맞설 용기를 가지지 못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 속에서도 단련된 강철처럼 굳건히 자리 잡은 결정적인 시련을 피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련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 회원들이 확고부동하고 진실하며 파시스트 투쟁에서 불러일으키는 높은 인간적 자질인 "견딜 수 있는 힘"을 훌륭하게 구현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한 해에는 모든 노력을 배가하고 모든 성공 기록을 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선거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은 수백 개의 선거구에 기존 정당보다 우수한 선거 조직을 구성하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 완수될 것입니다. 이 과제는 쉽지 않지만, 우리의 활동 회원 수는 기존 정당의 회원 수를 훨씬 능가합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마무리된 3주간의 순회는 영국 어느 세력도 따라올 수 없는 인사와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지구의 장교들은 매일 저녁과 여러 차례 오후에 지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이끄는 영국적 남성성의 훌륭한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여성 장교들 또한 진정한 영국 여성성을 위한 우리 운동의 끊임없이 성장하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조직 및 정책 문제들은 과거 당들의 짧고 모호하며 빈약한 연례 회의에서는 불가능했던 세부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내년도 국가 계획은 충분하고 솔직하게 논의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고무적인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긴밀한 개인적 접촉과 관계는 파시스트 형제애의 초기를 생생하게 특징지었던 운동의 현재 큰 성장 속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파시스트의 강력한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유대 국제 금융의 결집된 힘과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선전 자원을 비웃을 만큼 대담했던 이 운동, "기득권, 적색 전선, 그리고 대규모 반동 세력"에 성공적으로 저항했던 이 운동은 더 이상 방어적인 자세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장애물들을 극복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정복의 규모와 속도는 모든 구성원의 부단하고 단호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로버트 레이 박사의 기쁨을 통한 힘

T국가사회주의 ' 기쁨을 통한 힘' 조직은 우리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어느 날 히틀러는 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과 휴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의 정신이 건전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정치가라 할지라도 국민의 정신이 파괴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도자의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고, 1933년 11월 ' 기쁨을 통한 힘'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지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노동자들의 눈에 먼지를 뿌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정당한 열망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사무실을 만드는 새로운 활동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독일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이 엄청난 사업을 인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고, 반대자에게는 모욕과 욕설을 퍼붓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불안과 걱정으로만 여겼던 아이디어가 2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 스스로 실천에 옮긴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그 이름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바로 ' 기쁨을 통한 국가사회주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각 단어의 의미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사회주의 공동체'. 공동체는 그 토대이며, 여기서 다시 한번 공동체만이 기쁨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문화와 예술이 국가와 인종의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진공 상태에서 고립된 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습니다. '기쁨을 통한 힘 '이라는 제목을 "퇴근 후"라고 지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방을 지지해 온 적이 없으며,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젊은 이탈리아의 "도폴라보로"는 분명 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바람이나 지도자의 지시를 전달하지 않는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강한 국가를 원합니다. 합리화와 모든 사건의 흐름이 어쨌든 무의미하게 만든 업무 속도를 이 사람들이 누리는 휴양과 휴가로 상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도자의 명령은 국가에 힘을 주는 것이었고, 동시에 그는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휴양, 휴가,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말입니다.

"기쁨을 통한 힘" 은 아마도 국가사회주의의 전체 목표를 가장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이는 국가사회주의가 독일에 부여한 삶의 관점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안에서 고동치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표현하며,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을 지배했던 삶의 부정을 대체합니다. 과거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격했던 것, 사라진 모든 정당의 특징이었던 것은 바로 삶의 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우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삶을 지상의 눈물의 계곡을 통과하는 여정, 더 나은 저승을 향한 끊임없는 준비로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 특히 가장 가난한 동포 독일인들의 삶을 최대한 아름답고 밝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 삶을 다채롭게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영원한 파멸과 멸망에 내버려 두기 위함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삶과 행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 이러한 믿음으로 가득 찬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이 국가사회주의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쟁할 힘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낙원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쟁입니다. 삶은 투쟁이고, 투쟁은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게으름 속에서 자신의 쾌락만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영원히 저주받은 자들만이 존재하는 종착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는 오직 투쟁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표현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노동은 투쟁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노동자든 농민이든, 예술가든 학자든 군인이든, 우리 동포 모두는 매 순간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생존을 위한 이 투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신경과 물질을 소모시키기에, 인간은 이 투쟁을 위한 수단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이러한 수단을 보충하고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식과 휴일은 우리에게 내적인 필수품입니다.

얼마 전, 사회경제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휴가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독일에서는 법으로 휴일의 양을 정하고, 동시에 법정 지급액도 규제할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휴일의 일반적인 도입을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요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례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고용주는 피고용인과 싸우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고용주마저도 점차 이러한 휴일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휴일과 여가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가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비이성에 대한 이성의 승리이며, 지치고 쇠약해진 사람이 미래의 일을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재충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는 휴가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상식의 요구가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연민의 마음에서 휴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가 우리 국민의 생산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휴가를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지치고 쇠약해진 사람을 고용하는 데 아무런 이점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고, 기계는 계속 작동하며 전력을 소모하고 비용을 발생시켜 마모됩니다. 그 사람도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게 되어 고용주는 이중의 손실을 입습니다. 그는 감소된 생산성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기계의 에너지와 동력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건강하다면 고용주는 그가 지불한 휴가로 인해 발생한 차액을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자신의 잔액이 차변이 아니라 대변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와 반대로 대변 측면에서 개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의 특징은 어느 한쪽에만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동자에게만 도움이 되고 동시에 고용주에게는 해가 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 전체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독일 국민 전체에게 이롭다면 그것은 개인에게도 이로운 것이며, 사람들이 여가와 휴일을 갖는 것은 독일 국민에게도 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8일 휴가를 받고 싶습니다. 돈 주세요. 하지만 여가를 위해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쉬겠습니다." 아니, 그건 틀렸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돈을 낭비하는 것. 집에서는 여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일의 핵심은, 끊임없이 고통과 궁핍만 바라보는 다락방에서 가끔씩 끌려나와 바다로, 산으로, 라인 강으로 여행을 떠나 8일 동안 일상의 고단함을 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우리는 휴가를 원한다"라고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휴가를 통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쁨을 통한 힘이다.

첫해가 끝나갈 무렵, 저는 ' 기쁨을 통한 힘' 이 독일을 순식간에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업적은 너무나 위대해서 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해외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젊은 조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것, 전 세계 모든 사회주의자들의 오랜 꿈이었던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악의적인 언론이 종종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독일을 생각하도록 세상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Diario da Manha는 세계 여론의 호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예를 보여줍니다. 1935년 10월 12일자 기사에서 우리는 Strength Through Joy의 항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결집된 국민의 확고하고 규율 있는 의지로 독일이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혁명입니다. 그 효과와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직은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독일 정신이 새로운 삶의 개념을 창조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35년 9월 27일자 노르웨이 신문 Karmoy Posten은 노르웨이인과 Rabinowitz 씨 사이의 Strength Through Joy 여행의 가치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게재했습니다. 노르웨이인은 당신이 우리에게 준 바다 항해의 끔찍함에 대한 스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그런 여행 중에 선상 생활은 몹시 힘들 것입니다. 공간도 좁고 모든 면에서 비좁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여행에 참여해 본 적이 있고,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당신은 분명 Strength Through Joy 증기선 에 탑승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 절대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자랑스
정의에 대한 모든 감각을 던져 버리고, 기쁨을 통한 힘을 조 · 러워할 것입니다.
직하라."

저는 해외 언론에서 나온 비슷한 우호적인 발언 목록을 끝없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직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판단에서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기쁨을 통한 힘 이라는 아이디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도전받지 않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시작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작한 길을 계속 나아갈 것이며, 올해 3월에는 ' 기쁨을 통한 힘(Strength Through Joy)' 함대를 이끌고 대서양을 건너 리스본과 마데이라까지 항해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1936년부터는 매년 봄과 가을에 남부 지방으로 항해할 것입니다. 포르투갈로 향하는 첫 대서양 횡단에서 얻은 경험이 매우 좋았기에, 우리는 앞서 언급한 항해를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 기쁨을 통한 힘'과 함께 항해하는 독일 노동자보다 새로운 독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우리는 일련의 중요한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1934년과 1935년에 '기쁨을 통한 힘'(Strength Through Joy) 행사에 참여한 500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살펴보면, 이 500만 명 중 30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 국경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독일 사회주의의 살아있는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은 독일 전역에서 온 독일 형제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통한 힘' 행사 를 개인적인 여행과 구별 짓는 바로 그 위대한 동지애는 국경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새로운 영적 지지를 주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우리는 이 체계적인 작업을 계속하고 상당히 확대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이미 낮은 Strength Through Joy 요금을 30% 더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 제안이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으며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짧은 준비 기간 끝에, 저는 올해 바로 35만 명의 휴가객에게 더 저렴한 요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숙박 제공업체가 승인된 요금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평균적인 거리의 독일 노동자들이 항공료, 숙식, 그리고 각종 단체 활동을 포함하여 12에서 15 또는 16마르크의 비용으로 일주일 휴가를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 기쁨을 통한 힘' 여행에 참여하지 못했던 새로운 노동자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대중들은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휴가를 보낼 최고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름다운 국경 지역으로 데려갈 것이며, 동시에 국가사회주의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보살핌이 가장 절실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조국을 넘어 확장되는 Strength Through Joy 운동 의 모든 활동에서 우리는 해외에 있는 독일 형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른 나라들과 우리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로 만들고자 하며, 우리의 휴가객들은 다른 나라들이 독일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정의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형제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독일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독일 방문을 결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과 중간 계절에 Strength Through Joy 함대를 활용할 것이며, 이러한 여정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에서 우리는 어떤 산업 기관과도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에 참여할 개인들은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독일로 가는 일반적인 항공료를 감당할 만큼 돈이 있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행하게 하세요.

우리는 독일을 방문할 수 있는 저렴한 편의를 그렇게 행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휴가에 대한 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작은 불안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호스트와 휴가객 모두 ' Strength Through Joy' 탐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면에서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입증되었듯이, 이 기관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끔씩 들리는 비판이 하나 있습니다. 휴가객의 상당수가 저희 없이도 휴가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근거가 없습니다. 저의 협력자들은 수많은 열차의 구성을 조사했습니다. 각 참가자에게 특별하고 상세한 설문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쉽게 가능했습니다. 4개 지역의 모든 휴가 열차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객의 50% 이상이 산업 종사자였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근로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자유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Strength Through Joy 휴가객들의 소득에 관한 수치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열차에 대한 조사 결과, 휴가객의 3분의 1은 월 소득이 100마르크 미만이었습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월 소득이 100마르크에서 150마르크 사이였습니다. 나머지의 소득은 더 높았지만, 평균 월 소득은 150마르크에서 250마르크 사이였습니다. 250마르크 이상을 벌은 사람은 6%에 불과했습니다. 이 범주에는 주로 여러 가족을 둔 기혼 부부가 있는데, 이들은 높은 수수료 때문에 Strength Through Joy 여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베를린에서 뤼겐까지 왕복 교통편과 8일간의 바다 휴가를 12마르크부터 이용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독일 인구 수준을 기준으로 매년 1,400만 명의 근로자들을 12일에서 14일 동안의 휴양 여행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통 및 숙박 시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혀 부족합니다. 오늘날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이를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체 없이 새로운 숙박 시설과 새로운 선박 건설에 착수할 것입니다. 독일 노동전선은 향후 3년 동안 1억 마르크 상당의 건물을 건설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뤼겐 섬에 2만 개의 침대를 갖춘 해수욕장과 모든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포함됩니다. 이 독특한 사업에 대한 계획과 모델은 이미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의 관대한 명령 덕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각각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두 척의 선박을 건조할 것입니다. 이 선박은 대규모 숙소 없이 운영될 것이며, 모든 선실은 2인 또는 4인용으로 설계되고, 각 선실에는 현창이 설치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선실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한 갑판이 설치될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두 척의 선박, 데르 도이체호와 시에라 코르도바호 외에도, 이번 봄에는 비슷한 크기의 선박 네 척을 더 구매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외에도, 노동전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전국 휴양 시설의 침대 수는 3만 개로 늘어날 것입니다. 3년 후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는 자체 휴양 리조트에서 120만 명의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민간 호텔 및 요식업의 요구는 항상 우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일하는 독일인이 휴양과 휴가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국가사회주의 공동체 ' 기쁨을 통한 힘' 조직의 여러 부서 중에서도 스포츠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부서는 독일 노동자들이 즐거운 체육 활동을 통해 보내는 자유 시간을 힘과 휴식의 원천으로 전환해야 하는, 훌륭하지만 무한히 어려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년간의 노력 끝에 오늘, 우리는 그 결과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련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수영, 체조, 경마, 스키 등)에서 8,500개의 강좌를 수강했습니다. 스포츠, 의료, 그리고 신체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강좌는 마지막 남은 우리 동포들까지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해에서의 항해 탐험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었고, 많은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도 우리는 활동을 확대하고, 특히 지난 한 해보다 더 넓은 활동 반경으로 항해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이번 겨울,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 스포츠 지역에서 스키 강습이 진행되고 있으며, 3만 5천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 강습과 관련하여 3만 벌의 Strength Through Joy 스키 장비가 판매되는데, 스트랩, 부츠, 스톡이 포함된 스키를 35마르크에 판매합니다. 다소 높은 수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작년에는 일반 소매점에서 1만 8천 벌의 장비가 판매되었습니다. 4만 2천 명의 Strength Through Joy 휴가객들이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 올림픽을 열광적으로 관람했으며, Strength Through Joy 열차를 타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독일인들에게 이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했지만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꿈의 실현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독일에서 스포츠는 더 이상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기록을 경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미 적절한 연습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 기쁨을 통한 힘' 으로의 유입은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스포츠 과정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3년 차에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이는 독일에서 챔피언십 스포츠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대중적인 신체 단련이 육성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50~60대 노인들조차도 스포츠나 체력 단련을 일상의 필수 요소로 여길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을 통한 힘"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설립된 학교 교육 및 대중 교육 학과는 얼마 전 실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립된 지 몇 달 만에 수천 건의 등불 강연, 수십만 권의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 그리고 각종 방문 및 견학을 통해 독일 국민에게 귀중한 봉사를 해왔습니다.

국가사회주의당이 집권하기 전까지 수백만 명의 독일 남녀는 극장 내부를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극장에 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노출된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극심한 열등감에 휩싸여 극장에 가는 것조차 사회적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가의 문화적 소유물은 더 이상 소유 계급의 특권이 아닙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한 인물은 문화 정책의 관점에서 "대베를린"에서만 이루어진 활동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1934년 12월 1일부터 1935년 11월 30일까지, '기쁨을 통한 힘'은 베를린 의 15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극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수치가 놀랍기는 하지만, 이 수치가 극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사실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진정한 가치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극장에 추가적인 후원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극장을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월급이 100마르크에서 200마르크 사이인 근로자나 직원은 자신과 아내의 정상적인 극장 관람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대한 조치 덕분에 많은 대중의 후원을 받아 극장과 콘서트홀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시설들을 소문으로만 알고 전혀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던 대중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며, 물론 ' 기쁨을 통한 힘'이 찾아오지 않는 사립 극장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934년 초 지멘스 공장에서 극장 방문에 관해 실시한 조사는 이러한 관찰 결과를 뒷받침했습니다. 한두 가지 수치가 이를 쉽게 증명합니다. 설문에 참여한 남성의 87.6%, 여성의 81.3%가 오페라를 본 적이 없었고, 남성의 63.8%, 여성의 74.2%가 극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감독부터 보조 직원까지, 지멘스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직급이나 인적 사항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을 관람한 공장 직원들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는 직원들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공장에서 관찰된 결과, 특히 Strength Through Joy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육체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문화 교육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추후에 확인될 것입니다.

베를린에서만 7개의 극장이 'Strength Through Joy'를 독점적으로 또는 주로 공연합니다. 제국 전체의 평균 관객 수는 좌석 수의 60%에서 70%에 달하지만, 다행히 ' Strength Through Joy' 연극은 항상 훨씬 일찍 매진됩니다. 이러한 수준의 후원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독일의 사립 극장.

1년 전 새롭게 선보인 "마스터 콘서트"와 저희가 방문하는 "뮤지컬 아워" 역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지휘자들이 지휘하는 저희의 훌륭한 콘서트는 대개 시작 전부터 매진됩니다. 콘서트에 참여한 유명 오케스트라로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지역 오케스트라(das Landesorchester Gau Berlin), 그리고 독일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등이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은 두 번이나 만석 공연되었습니다.

노동자는 지금까지 박물관에서 명백히 부르주아적인 기관을 보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노동자를 박물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어려웠기에, 수천 번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대규모로, 그리고 제국 전역에서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작품 전시회를 통해 예술을 공장으로 들여왔습니다. 더욱이 독일의 육체 노동자들과의 접촉은 예술가에게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예술 창작에 대한 강력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몇 년 안에 모든 대형 공장들이 상설 전시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독일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룬 성과는 독일 예술가들이 전국의 노동 대중이 함께 모여드는 곳, 즉 작업장과 공장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가는 자신의 노고와 육체 노동자에게 가져다주는 예술적 보물에 대해 육체 노동자와 기계실과의 접촉을 통해 그의 예술적 창작이 받는 자극을 통해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66,000회에 걸친 Strength Through Joy 행사에 2,50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영화 밴을 타고 독일의 숲과 미개척지에 숨겨진 외딴 마을과 구석구석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형제들에게 하루의 짐과 피로에서 벗어나 활기찬 변화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천 개의 공장에서 먼지는 구석구석에 쌓였고, 아무도 작업장을 아름답게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럽고 좁고 눅눅한 작업 공간에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에 Beauty in Work 부서는 새로운 용기와 에너지로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공장에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과 야드와 공장의 구석구석에서 먼지와 흙을 쓸어냈습니다. 관리자들은 종종 공장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2억 마르크 이상을 지출하여 Beauty in Work 부서의 주도로 인간에게 적합한 작업을 제공했습니다. 이전에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널려 있던 곳에 오늘날에는 작은 정원, 녹지, 깔끔한 코트, 운동장,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작업실, 수영장, 화장실, 세면실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만들어진 작업장을 보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현재까지 약 17,000개의 공장이 처리되었습니다. 크거나 작은 수많은 개선 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것이 건설되었습니다. 공장 직원을 위한 4,314개의 식당과 공용실; 장식용 부지 1,580개, 운동장 276개, 수영장 93개.

오늘날 Strength Through Joy 가 공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작업은 독일 노동자들의 가정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작업장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아름답고 깨끗한 집에서만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공장 내 작업 그룹 건설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공장 내 NSDAP 회원과 지부 조직, 그리고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우수한 노동자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세포"와 "블록" 지도자들과 연합하여 견고하고 깨지지 않는 블록을 형성하여 공동체의 이념을 살려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작업 그룹은 공장에서 새로운 관습을 형성해야 하며, 검사 및 지역 사회의 밤과 같은 기능을 장려해야 합니다.

'기쁨을 통한 힘' 의 조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공동체 ' 기쁨을 통한 힘' 은 32개 지역, 771개 지구, 그리고 15,051개의 지역 단체로 나뉘며, 각 지역 단체에는 동일한 수의 지역 감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 내부에서 근무하는 작업 감시원을 합치면 총 57,000명입니다. 이 75,000명의 협력자들은 모두 '기쁨을 통한 힘' 에 무료로 봉사합니다 .

Strength Through Joy에서는 단 2,547명의 직원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은 처음 2년 동안 독일 노동전선의 지원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는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아마도 가장 주목할 만하고 흥미로운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기쁨을 통한 힘(Strength Through Joy)' 이 동원하고 유통시킨 자금 이 백만 라이히마르크가 넘는 반면, 이탈리아의 '도폴라보로(Dopolavoro)'는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미국의 여가 및 야간 조직은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구독일, 볼셰비키 러시아, 서방 선진국 등 어디에서나 완전히 실패했던 모든 마르크스주의적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독일 겨울 구호 활동

맥스 헝거 지음

The 국가사회주의당이 시작하고 온 국민이 큰 열의로 시작한 HE 겨울 구호 사업은 제3제국의 공인된 제도가 되었으며, 수백만 명의 궁핍하고 허약하고 병든 남자, 여자, 어린이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국가는 직접 행동을 통해 실업과 고통 극복을 위해 포괄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건강한 남녀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무역 위기 속에서도 3년 만에 실업자 수를 700만 명에서 200만 명 미만으로 줄이는 거의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회적 법률과 공공 지원은 많은 것을 완화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겨울 구호 사업은 생계가 국경선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구호 사업은 공적 지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지원을 보완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33년 1월 30일에 국가사회주의가 집권했을 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설립되었습니다.
괴벨스는 이를 "폐허의 벌판", 빈 금고, 5명 중 1명이 실업수당을 받는 정치적 혼란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수습하려 애썼지만 허사였던 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마음과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거대한 문제들을 처리했던 방식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대담하고 건설적인 정치 수완의 놀라운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위대한 국가사회주의 복지 협회의 핵심은 이미 1932년 봄에 결성되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당이 집권한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협회의 첫 공식 행사는 1933년 5월 6일, 총통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 수장으로 임명된 힐겐펠트 최고위원이 협회를 제국을 위한 당 내 공식 기관으로 승인하고 공공 복지 및 구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총통의 명령을 공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협회는 4월 20일 총통 생일에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는데, 실업자들에게 식량 소포를 분배하는 임무를 맡았고, 5월 1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휴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거리에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협회는 총통이 계획했던 동계 구호 활동을 위한 집행권을 부여받았고, 곧바로 이 중대한 임무를 위한 조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13일, 총통은 캠페인을 시작하며 독일 국민 중 누구도 겨울 동안 굶주림이나 추위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고, 괴벨스 박사는 송별사에서 이 동계 구호 활동이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품위 있는 방법을 택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온 국민이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 "한 접시 스튜"를 먹고, 일반 저녁 식사 비용의 차액을 궁핍한 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겨울 구호 활동 시작일은 10월 1일로 정해졌고, 9월 16일 힐겐펠트 최고위원은 36명의 보좌진과 함께 국회의사당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로 향했다.

1935년 12월 11일 연설에서 힐겐펠트는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몇 가지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의 성공은 효율적인 수거 및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달려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미온적이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더 높은 시민 의식을, 이기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이타주의를 일깨워야 했습니다. 진정한 연대는 자기 희생과 상호 지원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모든 독일인에게 일깨워야 했습니다. 총통은 동계 구호 활동을 시작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맞서는 이 위대한 행동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연대는 우리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독일 국민의 살아있는 민족적 단결을 세울 것이다'라는 모토 아래 시작되어야 한다."

힐겐펠트는 처음부터 조직이 효과적이려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구제하려는 실제적 필요의 다양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아무도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 이는 총통이 신뢰하는 추종자들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봐야 할 사람이 약 1,700만 명이었습니다. 독일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힐겐펠트 최고위원은 우선 약 3만 개 지역 당 지부의 헌신적인 협력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돌발 상황을 포괄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으면 당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금융, 산업, 운송, 그리고 감자, 밀가루, 석탄 거래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교회 선교회, 독일 적십자사, 기술 비상대, 그리고 "재림교인"이라 불리는 열정적인 소규모 봉사 단체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자선 단체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공공 지원 사업에 훈련받고 경험이 있는 모든 인력과 정당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명예 봉사자로서 기꺼이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총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당 지부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수집하여 보관했습니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사회주의복지협회의 특별 지부가 각 지부에 가맹되었고, 모든 계층의 남녀가 하나의 공동 목표를 위해 하나의 의지로 함께 일했습니다.

구호 활동을 조직할 때는 각 지역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연구하고 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생활 습관이 달랐고, 심지어 식량 공급선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며, 곤경에 처한 지역이 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산업 중심지와 겹쳤기 때문에 협회는 이러한 모든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라인베스트팔렌 지방 주민들은 노란색 감자 품종을 섭취하는 데 익숙합니다. 에센과 함부르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흰색과 빨간색 감자는 모두 독일의 다른 지역, 특히 바덴으로 보내져야 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감자 수집 및 배포는 지역 주민의 불평등한 수요로 인해 조직의 자원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 자급자족이 가능한 바이에른에는 거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에센 지구에는 145만 cwt의 보충량이 필요했고 작센에는 92만 cwt가 필요했습니다. 추가 공급이 필요한 다른 도시와 지구로는 베를린, 중부 독일, 라인-베스트팔렌 산업 지역, 바덴, 뷔르템베르크 일부 지역이 있었습니다. 1933/34년 전역 기간 동안 약 6만 대의 철도 트럭 분량의 감자가 수집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이 중 베를린만 매일 700~800대의 트럭 분량을 받았습니다. 배포된 월간 감자 배급량은 전체 인구 1인당 약 30파운드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구호품을 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호를 받은 사람들의 1인당 배급량은 한 달에 약 100파운드(약 45kg)에 불과했습니다. 연료의 필요량과 배급에 있어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로 나무를 태우고, 다른 지역에서는 잔디나 석탄, 갈탄을 태웠습니다. 당연히 오븐과 난로는 사용하는 연료에 맞게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에 필요한 연료를 충분한 양으로 공급해야 했습니다. 각 가구에 할당된 연료량은 겨울 내내 방 하나를 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도록 계산되었습니다. 자녀가 3~4명인 가구에는 겨울 내내 방 두 개를 데울 수 있는 충분한 석탄이 할당되었습니다.

1933/34년에 필요한 모든 연료를 수송하기 위해 약 14만 대의 철도 차량이 필요했는데, 이는 독일 전체 연료 사용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석탄량이었습니다. 두 자녀를 둔 한 가구에 겨울철에 공급된 석탄량은 약 9cwt에 달하는 반면, 석탄을 더 많이 소비하는 광산 지역의 각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약 22cwt의 석탄을 공급받았습니다.

석탄 배급은 지역 석탄상들이 담당합니다. 구제 대상자는 1cwt씩 배달할 수 있는 영장을 받습니다. 영장은 석탄상에게 전달되고, 석탄상은 소액의 운반비를 지불하고 석탄을 배달합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수령자는 무료로 석탄을 배달받습니다.

겨울 구호 활동에 필요한 양의 석탄을 얻으려면 자르 분지의 광부들이 3개월 동안 일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 석탄 공급 규모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 구호에는 신발과 의류 공급도 포함됩니다. 사용되는 재료의 길이는
옷을 모두 합치면 총 길이가 5,000마일에 달할 것입니다.

감자 외에도 쌀, 밀가루, 코코아, 우유, 지방, 육류, 생선, 그리고 기타 식료품 등 다른 식량도 배급되었습니다. 무료 식사도 제공되었고, 크리스마스에는 어린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트리도 제공되었습니다. 1933/34년에는 베를린에서만 30만 그루의 크리스마스트리가 배급되었습니다.

이 모든 막대한 물자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선물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채택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국가 공무원조차 수집가로 참여하는 거리 모금, 자선 공연, 사교 모임, 거리 복권, 월간 "한 접시 스튜" 모금, 1파운드 식품 꾸러미 기부, 공공 구독, 소득에 대한 특별 세금, 개인 모금, 배지 거리 판매 등이 있습니다.

조직의 철저함은 "한 접시"라는 방법으로 가장 잘 설명됩니다.
"스튜" 컬렉션은 베를린에서 진행됩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베를린은 약 12만 5천 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가구마다 주민 명부가 작성되고, 각 가구의 가족이나 개인 하숙인을 불러 모아 모금합니다. 기부자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모금액을 명부에 기입하고, 몇 시간 내에 모금된 금액과 함께 해당 지부로 반송합니다. 베를린에서만 평균 1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겨울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 거리에서 판매되는 배지와 기념품 제작은 쇠퇴한 산업 지역의 많은 실업자들에게 일자리와 빵을 제공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33/34년 겨울에는 바이에른 숲, 튀링겐, 작센의 제조업체에 400만 마르크에 달하는 주문이 들어왔고, 호박 산업이 번성했던 동프로이센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34/35년에는 이 주문의 가치가 500만 마르크로 증가했습니다.

이 구제 조치는 인종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적격자에게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933/34년에는 69,336명의 외국인이 도움을 받았는데, 그중 29,108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만 13,818명의 유대인과 8,054명의 외국인이 겨울 구호 사업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겨울 구호 사업을 위해 모금된 총액과 실제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in	1933/34	Mks.	357,136,040.71
in	1934/35		367,425,484.89
in	1935/36		370,000,000.00

지원받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in	1933/34	16,617,681
in	1934/35	13,866,571
in	1935/36	12,923,247

특히 겨울철 구호 활동에 농부들이 제공한 비할 데 없는 지원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몇 가지 수치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933/34년에 포메라니아는 841,477cwt의 감자를 공급했습니다.

in Kurmark	1,600,000 cwt.
in Saxony	447,000 cwt.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

Machine Translated by Google

겨울 구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국영철도를 통해 무료로 운송되었습니다.
1933/34년 캠페인에서 이와 관련하여 국영 철도의 기여금은 14,672,957 Mks에 달했고, 수송량의 총 중량은 59,025,995 cwt 에 달했습니다.

겨울 구호 활동에 참여한 명예 도우미의 수는 매년 평균 150만 명에 달했으며, 이 조직의 행정에는 다음과 같은 수의 공무원, 사무원 등이 고용되었습니다.

in	1933/34	4,116
in	1934/35	5,398
in	1935/36	about the same number

행정비용 전체는 총 수입의 1% 미만입니다.

총통이자 제국수상인 아돌프 히틀러는 지난 5월 27일 힐겐펠트 최고위원과 주요 직원들을 접견하고, 이 단체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높은 감사를 표했으며, "겨울 구호 활동은 사회 사업의 독특한 역사적 업적"이라고 말하며 이 위대한 국가적 노력과 상호 호의와 개인적 희생에 대한 모든 진정한 독일인의 감정을 대변했습니다.

******ebook 변환기 데모 워터마크*******